명리심리상담사

교 안

LEI 사회교육중앙회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명리심리상담사 강의교안

목차

1차시	명리학의 기원
2차시	명리학의 기초
3차시	음양오행과 적용
4차시	명(命) 작성법
5차시	운(運) 작성법
6차시	십신(十神)의 구분과 심리
7차시	십신(十神)의 심리 특징
8차시	육친(六親)의 구분과 심리
9차시	지장간(支藏干)의 원리와 심리
10차시	용신(用神)의 구분과 심리 특징
11차시	궁(宮)에 의한 심리 구분
12차시	운(運)에 의한 심리 변화
13차시	내방자(來訪者)의 심리 구분
14차시	명리상담 실례 1
15차시	명리상담 실례 2(신수身數)

제 1차시. 명리학의 기원

1. 명리학의 기원

1) 명리심리상담사의 정의

명리학을 바탕으로 내담자 또는 상담자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 주는 사람을 뜻한다. 명리심리상담은 상담자의 출생 년•월•일•시에 해당하는 명(命=사주팔자)과 운(運 = 方)을 바탕으로 현재의 고민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책을 알려주고, 미래의 삶에 대한 예측을 해주는 일을 한다. <심리(心理) : 마음의작용과 의식의 상태> <상담(相談) : 어떤 일을 서로 의논하는 것>

2) 명리심리상담사의 장점

1. 현재의 상태와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여 조언해 줄 수 있다.
2.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가 없어도, 현재의 상황과 고민을 예측하고 조언을 할 수 있다.
3. 상대방과 심도 있는 대화나 설문지 조사 등을 거치지 않아도 심리상태를 알 수 있다.
4. 피상담자의 심리상태를 단 시간에 알아낼 수 있다.
5. 상담을 원하는 당사자 뿐 만 아니라 주변인들과의 관계도 예측하고 조언할 수 있다.
6. 타고난 자질(姿質)을 파악하여, 상황에 따른 진학이나 진로에 대한 조언을 해 줄 수 있다.
7. 적성과 직업 및 궁합과 인간관계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다.
8. 심리와 삶의 변화를 시간과 시대별로 구분하여 조언할 수 있다.

3) 동양오술(東洋五術)

명(命) :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 자미두수(紫微斗數), 성평회해(星平會海)
복(卜) : 단역(斷易), 육임신과(六壬神課), 태을신수(太乙神數), 기문둔갑(奇門遁甲)
의(醫) : 한의학(韓醫學) - 방제(方劑), 침구(針灸)
상(相) : 인상(人相), 풍수지리(風水地理), 명상(名相)
산(山) : 양생(養生), 현전(玄典), 수일(修密)

4) 명리학이란?

명리학(命理學)은 인간이 태어난 년•월•일•시에 해당하는 간지(干支)로 구성된 사주팔자를 기본으로 하여 인간의 길흉화복(吉凶禍福)을 예측하는 학문이다. 그래서 사주명리학이라고 한다. 송대(宋代) 이전에는 년본일주(年本日主)의 방식이라 삼명학(三命學)이라 하고, 송대(宋代)부터는 일위주(日爲主)의 방식이라 창시자인 서자평(徐子平)의 호를 따서 자평명리학 또는 자평학(子平學)이라고 한다.

5) 삼명(三命)이란?

중국의 전통 삼명(三命)은 수명(壽命), 수명(隨命), 조명(遭命)을 뜻하는데, 중국 후한(後漢:25~220) 때의 독창적인 사상가(유물주의, 무신론)였던 왕충(王充)은『論衡』에서 삼명(三命)을 정명(正命), 수명(隨命), 조명(遭命)이라고 정의했다. 이에 반하여 조선 후기 실학자였던 이익(李瀷:1681~1763)은『星湖僿說』에서 삼명(三命)을 천명(天命), 성명(星命), 조명(造命)이라고 했다. <☞ 隨 : 따를 수, 遭 : 만날 조, 造: 지을 조>

6) 삼명학(三命學)과 자평학(子平學)의 차이점

삼명학(三命學)은 사주를 풀이할 때, 인원납음(人元納音)의 삼원론(三元論 : 天元, 地元, 人元)으로 구분을 하고, 년본일주(年本日主)의 방식으로 간명(看命)을 했으며, 잉태(孕胎)가 되던 시점을 나타내는 입태월(入胎月)을 중시했다. 또한 정오행(正五行), 진오행(眞五行), 납음오행(納音五行) 등 세 가지 오행을 활용했고,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지지(地支)에 대비하여 왕상휴수(旺相休囚)와 순역(順逆)과 진퇴(進退)를 판단했으며 신살(神殺)을 중시했다.

이에 비하여 자평학(子平學)은 사주를 풀이할 때, 인원장간(人元藏干)의 삼원론(三元論)으로 구분을 하고, 일위주(日爲主)의 방식으로 간명(看命)을 했으며, 입태월(入胎月)을 제외시켰다. 정오행(正五行)만 사용했고, 일간(日干)을 월령(月令 : 월지 및 월지장간)에 대비하여 월령용신(月令用神)과 오행의 생극제화(生剋制化)로 판단했으며, 신살(神殺)은 감안하는 정도에 그치거나 아예 배제했다.

甲旬	甲子旬	甲戌旬	甲申旬	甲午旬	甲辰旬	甲寅旬
干支	甲子 乙丑	甲戌 乙亥	甲申 乙酉	甲午 乙未	甲辰 乙巳	甲寅 乙卯
納音	해중금海中金	산두화山頭火	천중수泉中水	사중금沙中金	복등화覆燈火	대계수大溪水
干支	丙寅 丁卯	丙子 丁丑	丙戌 丁亥	丙申 丁酉	丙午 丁未	丙辰 丁巳
納音	노중화爐中火	간하수澗下水	옥상토屋上土	산하화山下火	천하수天河水	사중토沙中土
干支	戊辰 己巳	戊寅 己卯	戊子 己丑	戊戌 己亥	戊申 己酉	戊午 己未
納音	대림목大林木	성두토城頭土	벽력화霹靂火	평지목平地木	대역토大驛土	천상화天上火
干支	庚午 辛未	庚辰 辛巳	庚寅 辛卯	庚子 辛丑	庚戌 辛亥	庚申 辛酉
納音	노방토路傍土	백랍금白鑞金	송백목松柏木	벽상토壁上土	차천금釵釧金	석류목石榴木
干支	壬申 癸酉	壬午 癸未	壬辰 癸巳	壬寅 癸卯	壬子 癸丑	壬戌 癸亥
納音	검봉금劍鋒金	양류목楊柳木	장류수長流水	금박금金箔金	상자목桑自木	대해수大海水
空亡	戌亥	申酉	午未	辰巳	寅卯	子丑

[표 -1] 납음오행표(納音五行表)

인원납음(人元納音)이란? 삼명학(三命學)에서의 인원납음(人元納音)은 출생한 년(年)의 천간(天干)을

천원(天元)이라고 하고, 년(年)의 지지(地支)를 지원(地元)이라고 하고, 년(年)의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인원(人元)이라고 한다. 인원(人元)은 납음오행표(納音五行表)를 참고하면 된다.

진오행(眞五行)이란?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다 같이 음(陰)과 양(陽)의 상반되는 기운이 서로 결합을 하여 새로운 오행을 만드는 것을 두고 말한다. 천간(天干)의 진오행(眞五行)은 갑기합화토(甲己合化土), 을경합화금(乙庚合化金), 병신합화수(丙辛合化水), 정임합화목(丁壬合化木), 무계합화화(戊癸合化火)이고, 지지(地支)의 진오행(眞五行)은 자축합화토(子丑合化土), 인해합화목(寅亥合化木), 묘술합화화(卯戌合化火), 진유합화금(辰酉合化金), 사신합화수(巳申合化水), 오미합(午未合변화없음)이다.

신살(神殺)이란? 두 가지 글자와의 관계를 설명한 것인데, 길신(吉神)과 흉신(凶神)을 통칭하는 말로 오행의 쇠왕생극(衰旺生剋) 합형충파해(合刑沖破害)를 표시한 것으로 년본일주(年本日主)의 삼명학(三命學)에서부터 사용되어 왔기 때문에 납음(納音)에 따라 왕쇠(旺衰)를 판단하고 납음(納音)은 년주(年柱)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신살(神殺)은 원래부터 사주명리학 태동 때부터 사용되어 오던 것도 있었으나 칠정사여(七政四餘) 또는 칠정사여성명학(七政四餘 星命學)라고 알려진 오성술(五星術)에서 기인된 것이 대부분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신살(神殺)은 년지(年支)를 기준하여 살피는 것이 원칙이지만 일위주(日爲主)의 자평명리학이 자리를 잡으면서 부터는 일간을 중심으로 하는 신살법(神殺法)도 많이 애용되고 있다.

년본일주(年本日主)의 삼명학(三命學)에서는 신살(神殺)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던 것이 사실이지만 일위주(日爲主)의 자평학(子平學)이 태동하면서 부터는 진오행(眞五行=合化)과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제외하였고, 자연히 신살(神殺)도 등한시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사주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도 신살(神殺)에 관한 한 가지 상식쯤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신살(神殺)이 오랫동안 대중속에서 알려지고 사용되어져 왔음을 뜻한다. 출처 : 田政勳, 『基礎子平命理學』, 혜경출판사, 2010, p.177

7) 명리학의 시원(始原)

청대(淸代)의『자평팔자사언집액(子平八字四言集腋)』에 '명리학(命理學)의 기원(起源)은 주(周)나라의 낙녹자(珞祿子)와 귀곡자(鬼谷子)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일반적으로는 춘추전국시대(春秋戰國時代)에『낙녹자삼명소식부(珞E彔子三命消息賦)』를 쓴 낙녹자(珞E彔子)와 『귀곡자(鬼谷子』를 쓴 귀곡자(鬼谷子)로 알려져 있다.
주나라(周 : BC1046~BC256)는 호경(鎬京: 지금의 서안)을 수도로 한 서주(西周)와 낙읍(洛邑: 지금의 낙양)을 수도로 한 동주(東周)로 나누는데, 춘추전국시대는 동주(東周)와 시대를 같이 했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이름을 달리하지만 동시대를 말하고 있으므로, 명리학의 시원(始原)은 지금으로 부터 약 2,300여 년 전의 인물인 낙녹자(珞祿子)와 귀곡자(鬼谷子)라고 할 수 있다.

8) 중국역사와 명리서

하(夏 : BC2070~BC1600)나라 때부터 명리학의 근간이 되는 간지(干支)가 쓰였을 것이라 추측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하나라의 유적과 유물이 전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유적을 남긴 상(商 : BC1600~BC1046)나라 때부터 간지(干支)가 처음 쓰였다고 한다. 그러다 춘추전국시대에 명리학의 근간이 갖추어졌고, 전국시대 말에 추연(鄒衍)에 의해서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의 결합된 음양오행(陰陽五行)이라는 말이 처음으로 생겨났으며, 한(漢)나라 때 동중서(董仲舒)에 의해서 지어진『춘추번로春秋繁露』에서 지금과 같은 음양오행(陰陽五行)의 생극(生剋)의 이론이 처음으로 정립되었다. 그리고 동한(東漢) 순제(順제)에 의해 목성년기법(木星年記法)이 시작되었다.

위진남북조(魏晋南北朝)시대의 곽박(郭璞)이 저술한『옥조정진경玉照定眞經』에 사주(四柱)라는 말이 처음으로 등장했다. 수(隋 : 581~618)나라 때 소길(蕭吉)은 율려(律呂)와 칠정(七情), 팔괘팔풍(八卦八風), 성정(性情), 제신(諸神), 오제(五帝) 등 오행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을 다양하게 수록한 『오행대의五行大義』를 저술하였다. 당(唐)나라 때는 현존 명리학 최고(最古) 서적 중의 하나라고 하는 『이허중명서李虛中命書』가 저술되었고, 오대십국(五代十國)에서 송(宋)나라 때는 서거이(徐居易)와 서대승(徐大升)의『연해淵海』와 『연원淵源』 그리고 료중(廖中)의 『오행정기五行精紀』 및 경도(京圖)의『적천수滴天髓』가 저술되었다.

명(明)나라와 청(淸)나라 때는 명리학의 저술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로 명(明)나라 때는 『삼명통회三命通會』와『명리정종命理正宗』이 저술되었고, 청(淸)나라 때는『적천수집요滴天髓輯要』,『자평진전子平眞詮』, 『명리약언命理約言』 등이 저술되었다.

9) 상(商)나라와 탕(湯)왕

상나라(BCI,600~BCI,046)를 건국한 성탕(成湯)의 이름은 천을(天乙)이다. 큰아들이 태정(太丁)인데 일찍 죽고, 작은아들인 외병(外丙)과 중임(仲壬)이 왕위에 올랐으며, 손자인 태갑(太甲)도 나중에 왕위에 오른다.

5대 임금인 옥정(沃丁), 6대 태경(太庚), 7대 소갑(小甲), 8대 옹기(雍己), 9대 태무(太戊), 10대 중정(仲丁), 11대 외임(外壬), 12대 하단갑(河亶甲) 등 30대 임금 주(紂 : 이름이 신辛)까지 한 명도 예외 없이 상나라 임금 30명의 이름이 전부 천간으로 되어 있다.

10) 상(商)나라와 탕(湯)왕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상(商)나라는 동이족(東夷族)인 탕왕(湯王)이 세운 나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수도는 허베이(河北)이고, 씨족 중심의 읍제(邑制)국가였으며, 갑골문자(甲骨文字 : 동물의 뼈에 글자를 새김)를 사용했다. 간지(干支)를 사용하였으므로 달력을 썼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조상숭배를 중요시 했으며, 점(占)치는 나라라고 알려질 정도로 점(占)치기를 좋아했다. 제정일치(祭政一致)사회였으며, 부계사회(父系社會)였고, 청동기 문화를 이루고 있었다.
마지막 수도 이름이 은(殷)인데, 이를 나라 이름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상(商)나라의 마지막 왕

이 주왕(紂王)이었는데, 달기와 함께 주지육림(酒池肉林)이라는 단어가 전해질 정도로 방탕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상(商)나라와 간지(千支)

“戊子 卜, 寶, 貞由今宁用三百羌于丁用" “무자일에 점을 집니다. 정인(貞人) 빈(賓)이 점괘를 묻는데, 오늘 밤 강족 노예 3백 명을 희생으로 써서 선왕(先王) 정(丁) 의 제사를 지낼까요?”

“상(商)나라는 사람을 제물로 제사 지내기 좋아했다. 한 번의 제사에서 많게는 수백 명에 이르는 노예들이 몸이 잘리거나 산 재로 매장 당했다. 출처 : 김준역著, 『고금횡단 한자여행』, 학민사, 2008.

12) 시대별 중요 인물과 저서

춘추전국 :『귀곡자유문 』, 『낙록자소식부』
당 :『이허중명서』
송 : 서자평 『연해』, 서대승 『연원』, 료중 『오행정기』, 경도 『적천수』
명 : 만민영 『삼명통회』, 장남 『신봉통고명리정종』
청 : 진소암 『적전수집요』, 『명리약언』, 여춘태 『궁통보감』, 심효점 『자평진전』

13) 우리나라의 명리학

사주명리에 관한 최초의 기록은 『朝鮮王朝實錄』에 실려 있는 태종의 탄생과 관련된 대목으로 태종 원년 1401년에 기록된 내용으로 보아 고려 말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태종(太宗)의 모친인 신의황후 한씨(神懿王后韓氏: 1337년 음력 9월~1391년 음력 9월 23일)가 문성윤(文成允)을 불러 아들 태종의 장래에 대해 물었을 때 “이 사주는 귀하기가 이루 말할 수 없으므로 점쟁이에게 함부로 물어보지 마소서."라고 대답했다는 내용이다.

『朝鮮王朝實錄』에 따르면 명리학과 직접 관련이 있는 과거 제도는 태조 원년인 1392년 잡과(雜科)에 음양과(陰陽科)가 편성되면서 부터이다. 正 9品의 명과학 훈도(命課學 訓導) 2명을 두어 명리학에 관한 학문을 가르쳐 합격자를 관상감의 관리로 배속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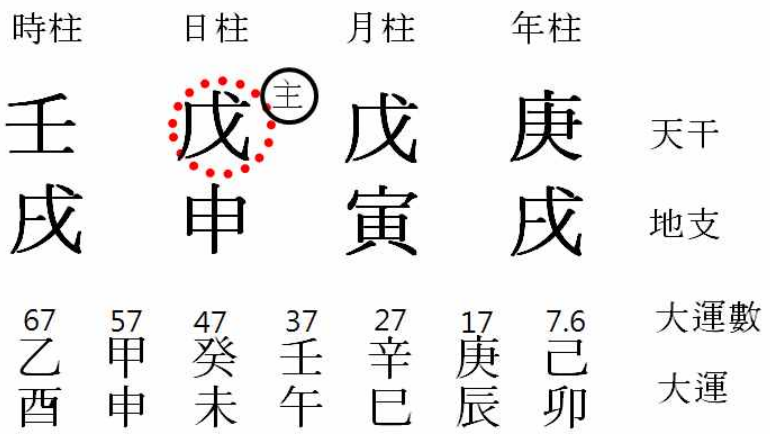
음양과(陰陽科)는 1474(성종5년)년 일시 빠졌다가 1865(고종2년)년 폐지될 때까지 조선왕조 300여 년 동안 그 명맥을 유지했었다. 출처 : 구중회 지음, 한국명리학의 역사적 연구, 국학자료원, 2010, p.146.

제 2차시. 명리학의 기초

1) 사주팔자(四柱八字)란?

네 개의 기둥과 여덟 개의 글자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柱)라는 글을 써서 기둥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 것은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하늘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천간 =天干)와 땅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지지=地支)를 서로 하나씩 위와 아래로 결합하여 적어 둠으로써 마치 기둥을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주(柱)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기둥(柱)이 年. 月, 日. 時에 각각 하나씩 있게 되니. 이를 두고 네 개의 기둥 즉 사주(四柱)라고 하는 것이다.



[그림 -1] 사주팔자와 운 및 대운수

위 명조 [그림 -1]은 庚戌年 戊寅月 戊申日 壬戌時에 태어난 남자의 사주이다. 동일한 사주를 가지려면 1850년, 1910년, 1970년생이 이러한 사주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은 년(年)의 간지(干支)가 庚戌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년(年)의 하늘 기운인 庚金을 두고 년간(年干)이라고 하고, 년(年)의 땅 기운인 戌土를 두고 년지(年支)라고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월(月)의 간지(干支)는 戊寅이다. 입춘일이 지나서 태어난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월주(月柱)가 戊寅이기 때문인데, 寅月은 입춘이 지나야 쓸 수 있다. 이때 월(月)의 하늘 기운인 戊土를 월간(月干)이라 하고, 월(月)의 땅 기운인 寅木을 두고 월지(月支)라고 한다.

일(日)의 간지(干支)는 戊申이다. 일(日)의 하늘 기운인 戊土를 두고 일지(日支)라고 하고, 일(日)의 땅 기운인 申金을 두고 일지(日支)라고 한다. 시(時)의 간지(干支)는 壬戌이다. 시(時)의 하늘 기운인 壬水를 두고 시간(時干)이라 하고, 시(時)의 땅 기운인 戌土를 두고 시지(時支)라고 한다. 여기에서 庚金, 戊土, 戊土, 壬水는 모두 하늘의 기운이므로 천간(天干)이라고 하고, 戌土, 寅木, 申金, 戌土는 모두 땅의 기운이므로 지지(地支)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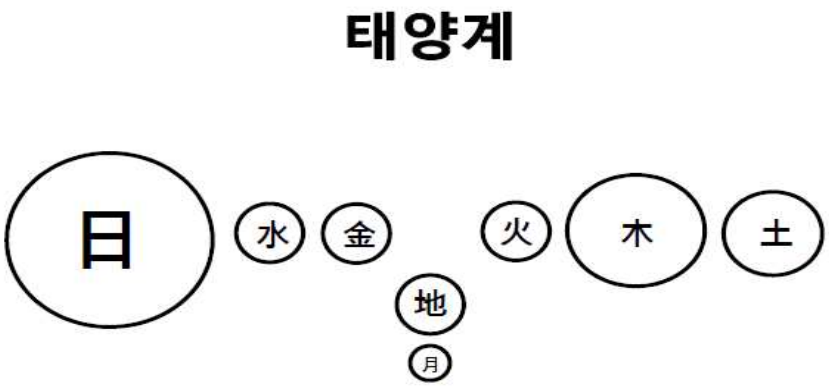
2) 운(運)이란?

사주팔자가 고정된 천지(天地)의 기운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운(運)은 변화의 과정을 나타내는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운(運)의 변화에 의해 인생행로가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또한 이 운(運)의 변화에 의해 길흉화복(吉凶禍福)이 사람마다 같지 않게 된다. (이는 인생행로에 있어 운(運)의 변화 때문에 사람마다 각기 다른 길흉화복(吉凶禍福)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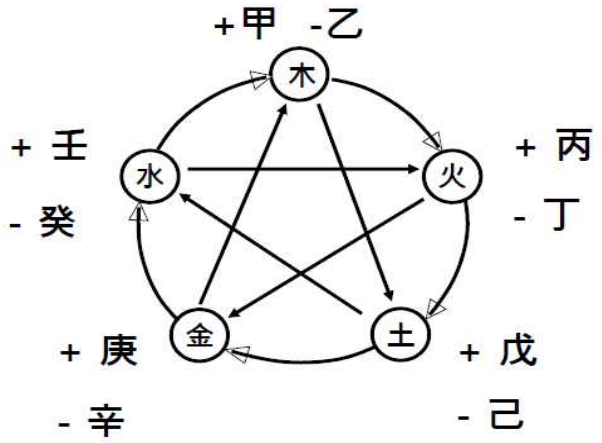
명리학에서는 운(運)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 년에 한 차례씩 바뀌는 운(運)을 세운(歲運)이라고 하고 십 년을 주기로 바뀌는 운(運)을 대운(大遽)이라고 한다.

[그림 -1] 사주팔자와 운 및 대운수에서 아래 부분에 해당하는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를 두고 대운(大運)이라고 한다. 庚戌年 戊寅月 戊申日 壬戌時에 태어난 남자가 이 대운(大運)을 거치면서 인생을 살아간다는 뜻이다. 그리고 대운(大運) 위에 있는 숫자 7 · 6, 17, 27, 37, 47, 57, 67의 숫자를 대운수(大運數)로 10살씩을 주기로 시대별로 운(運)이 시작되는 나이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대운수(大運數)는 만 나이를 대입시켜야 한다.
그러므로 팔자(八字) 즉 명(命)는 태어날 당시의 하늘과 땅의 기운에 해당하는 기운이라면, 운(運)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기운의 흐름을 뜻한다. 그래서 태어날 때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운(運)이 나쁘면 삶이 고생스럽게 되고, 태어날 때는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나지 못했더라도 운이 좋으면, 삶이 수월하게 풀려간다는 뜻이 된다.
이렇게 10년을 주기로 변해가는 운(運)의 변화를 대운(大運)이라 하고, 1년을 주기로 변해가는 운을 세운(歲運)이라고 한다. 그리고 1년 12절기를 주기로 변해가는 운을 절운(節運) 또는 통념적으로 월운(月運)이라고 하고, 하루하루 변해가는 운(運)의 변화를 두고 일진(日辰)이라고 한다.



[그림 -2] 태양계 -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그림 -2]는 태양계의 행성들을 순서대로 보여주고 있다. 수성-금성-지구-화성-목성-토성의 순서인데, 지구를 제외하면 水, 金, 火, 木, 土의 오행이 된다. 이 5개의 행성이 각각 음(陰)과 양(陽)의 영향을 받게 되므로 5행성 * 음양(陰陽) = 10천간(天干)이 된다. 오행만 쓰는 이유는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태양계의 행성이 토성까지 밖에 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림 -3]오행과 10천간 -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오행과 10천간은 오행성과 음양이 결합하여 10천간을 만들게 되는데, 그것을 [그림 -3]의 오행도(五行圖)로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십신(十神)과 육친(六親) -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그림 -4]는 오행도에 맞춘 십신(十神)과 육친(六親)을 나타낸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심리와 길흉 그리고 인간관계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그림 -5]는 음양오행(陰陽五行)을 바탕으로 한 간지(干支)로 구성된 명(命)과 운(運) 그리고 이들의 상관관계를 통한 성패(成敗), 이를 알기 쉽게 풀이해 주는 통변(通變)을 나타내고 있다. 대운 밑에 있

는 金·水·木·火는 대운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그림 -5] 명(命)과 운(運) 그리고 성패(成敗)와 통변(通變)

음양	천간	오행	상징	내용
+	甲	木	大林木 (대림목)	(장엄하고 솟구지 오르는 기상) 양반스러움. 학자. 교육자
-	乙	木	草 (풀 초)	(부드러움. 휘감음. 억센 끈질김) 내적 성숙. 심리. 무용. 체조
+	丙	火	太陽 (태양)	(강열. 넓게 비춤. 베품. 지배) 따뜻한 배려. 고위공직. 將軍
-	丁	火	燭 (촛불 촉)	(고요함. 한정된 치솟음, 소망, 희망) 이성적. 종교인. 의료. 법조
+	戊	土	大地 (대지)	(넓고 푸근, 고정, 진리, 무뚝뚝) 변함없음. 전문가. 관리자
-	己	土	開墾地 (개간지)	(지킴. 한정. 제약. 고독) 안정적. 공무원. 중간 관리자. 판매

+	庚	金	巖 (바위 암)	(웅장. 장렬. 기상. 개혁) 굳셀 강건함. 사법. 군인. 경찰. 의료
−	辛	金	珠玉 (주옥)	(보석. 칼. 치밀. 예리. 이성. 현명) 냉철판단. 회계. 설계. 수사
+	壬	水	大洋 (대양)	(수렴. 잔잔함. 정화. 평온) 은은하게 퍼짐. 종교계통. 외교관
−	癸	水	露 (이슬 로)	(영통. 영민. 호기심. 탐구. 애교) 지략지모. 시인. 소설가. 대학교수

[표 -2]천간의 음양과 오행 및 상징과 내용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표 -2]는 천간(天干)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및 상징(象徵)과 내용을 나타내고 있다. 우선 甲木, 乙木, 丙火, 丁火, 戊土, 己土, 庚金, 辛金, 壬水, 癸水라고 외워야 하고 그 다음 양(陽)은 甲, 丙, 戊, 庚, 壬이고, 음(陰)은 乙, 丁, 己, 申, 癸라는 것도 함께 암기를 해야 한다. 이 내용 부터가 명리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에 해당이 된다. 음양(陰陽)에 오행(五行)을 대조하여 형성된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는 사주 본명(本命)뿐만 아니라 대운(大運)과 세운(歲運) 및 절운(節運)과 일진(日辰) 그리고 시진(時辰)의 천간(天干)에서 끝없이 반복하게 된다.

陰陽	+	−	+	−	+	−	+	−	+	−	+	−
五行	水	土	木	木	土	火	火	土	金	金	土	水
漢子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한글	자	축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動物	쥐	소	호랑이	토끼	용	뱀	말	양	원숭이	닭	개	돼지

[표 -3] 지지의 음양과 오행 및 상징하는 동물 도표 - 출처:(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표 -3]은 지지(地支)의 음양(陰陽)과 오행(五行) 그리고 상징하는 동물들을 분류한 도표이다. 지지(地支) 역시 천간(天干)과 마찬가지로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순서부터 외우고, 그 다음 12지지(地支)를 음(陰)과 양(陽)으로 분류할 줄 알아야 하며, 또한 12지지가 어느 오행에 속하는지 그리고 상징하는 동물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천간(天干)은 甲木・乙木, 丙火・丁火, 戊土・己土, 庚金・辛金, 壬水・癸水로 오행(五行)이 木・火・土・金・水이며 음양(陰陽)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외우기가 쉽지만 지지(地支)는 그렇지 않

다. 子水, 丑土, 寅木, 卯木, 辰土, 巳火, 午火, 未土, 申金, 酉金, 戌土, 亥水로 오행(五行)이 규칙적으로 반복이 되지 않고, 여기에 각각 그 음양오행(陰陽五行)을 상징하는 동물까지 있기 때문에 외우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카드를 만들어서 앞면에는 각각 한 장씩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 라고 쓰고, 뒷면에 음(陰)과 양(陽)의 표시 및 어느 오행(五行)에 속하는지를 적어서 수시로 확인을 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지지(地支) 역시 마찬가지로 앞면에는 각각 한 장씩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를 쓰고 뒷면에는 음(陰)과 양(陽)의 표시 및 어느 오행(五行)에 속하는지 그리고 상징하는 동물이 무엇인지를 적어서 함께 확인하는 방법을 쓰는 것이 좋다. 천간은 10장이고, 지지는 12장이므로 22장의 카드를 만들어서 틈날 때마다 외워서 글자만 보면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 그리고 상징하는 동물이 바로 바로 나오게 해야 한다. 이 부분부터 완전하게 외우지 못하면 공부가 더 이상 진전을 할 수 없게 된다.

[표 -4]는 육십갑자(六十甲子)와 년도(年度) 도표로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기운이 하나씩 결합을 하여 간지(干支)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규칙적인 것은 천간(天干)과 지지(地支)는 각각 양(陽)은 양(陽)끼리 음(陰)은 음(陰)끼리 결합을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갑자(甲子)는 천간(天干)의 甲木도 양(陽)이지만 지지(地支)의 子水도 양(陽)이다. 乙丑은 천간(天干)의 乙木도 음(陰)이지만 지지(地支)의 卯木도 음(陰)이다. 이러한 규칙은 60개 모두 동일하다. 그리고 甲子로 시작하여 다시 甲子로 돌아오는데, 60년이 걸린다는 것을 알게 한다. 그래서 회갑(回甲) 또는 환갑(還甲)이라고 하는 것이다.

또 하나의 규칙은 甲은 4년, 乙은 5년, 丙은 6년, 丁은 7년, 戊는 8년, 己는 9년, 庚은 0년, 辛은 1년, 壬은 2년, 癸는 3년을 나타낸다. 예를 들어, 2020년은 庚子年인데, 끝자리가 0이므로 천간(天干)이 庚金이 되고, 2021년은 辛丑年인데 끝자리가 1이므로 천간(天干)이 辛金이 된다. 이것은 상담자가 찾아왔을 때 10년이나 20년 전의 사건을 추측할 때 긴요하게 활용이 된다. 그러므로 4로 끝나는 해는 세운(歲運) 천간(天干)이 甲木이 되고, 5로 끝나는 해는 세운(歲運) 천간(天干)이 乙木이 되는 이러한 규칙을 함께 외워들 필요가 있다.

4年	甲子	甲戌	甲申	甲午	甲辰	甲寅
5年	乙丑	乙亥	乙酉	乙未	乙巳	乙卯
6年	丙寅	丙子	丙戌	丙申	丙午	丙辰
7年	丁卯	丁丑	丁亥	丁酉	丁未	丁巳
8年	戊辰	戊寅	戊子	戊戌	戊申	戊午
9年	己巳	己卯	己丑	己亥	己酉	己未
0年	庚午	庚辰	庚寅	庚子	庚戌	庚申
1年	辛未	辛巳	辛卯	辛丑	辛亥	辛酉
2年	壬申	壬午	壬辰	壬寅	壬子	壬戌
3년	癸酉	癸未	癸巳	癸卯	癸丑	癸亥

[표 -4] 육십갑자(六十甲子)와 년도(年度) 도표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11) 천간(天干)의 합(合)과 극(剋)

천간의 10가지 기운은 서로 합하기도 하고 서로 극하기도 하는데, 합은 양과 음, 음과 양 즉 서로 다른 음양끼리만 서로 합을 한다. 이와는 반대로 극은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서로 극을 하게 된다. 합은 극하는 기운이 서로 음양이 다를 때 합을 하게 되고, 극은 자기 자리에서부터 7번째 자리에 있는 기운에 의해 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천간의 기운과 음양을 붙이면 다음과 같다.

\+ − + − + − + − + −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천간(天干)의 합(合)은 그나마 외우기가 쉽다. 그 이유는 甲·乙·丙·丁·戊까지 쓰고 그 아래에 己·庚·辛·壬·癸를 쓰면 합(合)의 위치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기 때문이다.

+ 甲	− 乙	+ 丙	− 丁	+ 戊
− 己	+ 庚	− 辛	+ 壬	− 癸
土	**金**	**水**	**木**	**火**

[표 -5] 천간(天干)의 합화(合化) 도표

[표 -5]는 천간(天干)의 음(陰)과 양(陽)이 서로 다른 오행이 만나서 새로운 오행으로 변화되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합화(合化)하여 새로운 오행을 만드는 진오행(眞五行)은 당대(唐代)와 송대(宋代) 초(初)까지는 엄격하게 쓰였으나, 오대말(五代末)에서 송대(宋代) 초(初)의 인물로 알려진 서자평(徐子平)에 의해서 일위주(日爲主)의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이 만들어진 후부터는 합화(合化)의 원리는 쓰이지 않고, 그냥 합(合)하여 묶이는 정도로만 쓰고 있다.

그러나 이 천간의 합(合)은 대단히 중요하므로 반드시 외워야 한다. 외울 때는 화(化)를 빼고, 갑기합토(甲己合化土), 을경합금(乙庚合化金), 병신합수(丙辛合化水), 정임합목(丁壬合化木), 무계합화(戊癸合化火)의 순으로 외우면 된다.

[표 -6]은 천간(天干)의 극(剋)을 나타내는 도표이다. 중간에 순서대로 쓰여진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를 기준으로 하여 보면 조금 더 이해가 쉽다. 甲木은 庚金으로 부터 극(剋)을 받고, 戊土를 극(剋)한다. 乙木은 辛金으로부터 극(剋)을 받고, 己土를 극(剋)한다. 나머지도 이런 식으로 보면 천간(天干)의 극(剋)을 이해하기가 쉽다. 이보다 더 쉬운 방법은 오행도(五行圖)를 그려서 보는 방식이 있다. 이러한 천간(天干)의 극(剋)은 처음에는 어렵게 보이지만 사주를 자주 접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익혀지게 된다.

+	−	+	−	+	−	+	−	+	−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剋	剋	剋	剋	剋	剋	剋	剋	剋	剋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剋	剋	剋	剋	剋	剋	剋	剋	剋	剋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乙	丙	丁
+	−	+	−	+	−	+	−	+	−

[표 -6] 천간(天干)의 극(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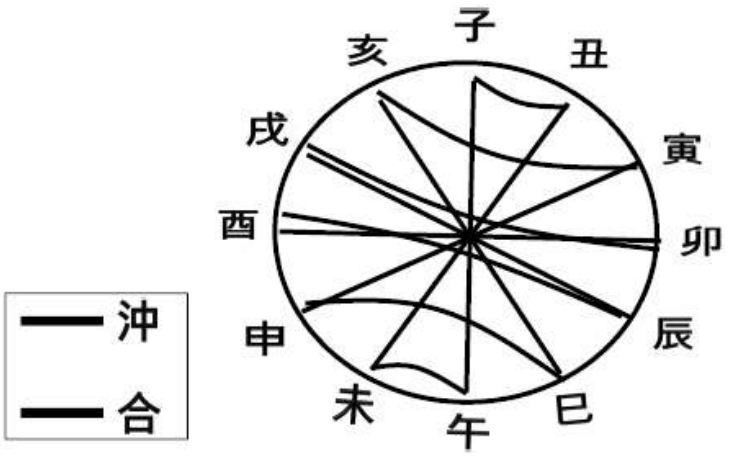
12) 지지(地支)의 육합(六合)과 충(沖)

지지(地支)도 천간(天干)과 마찬가지로 합(合)과 충(沖)을 한다. 차이점이 있다면 지지(地支)는 12개라 3개의 기운이 서로 합(合)하는 삼합(三合)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각도에 따른 합(合)과 충(沖)도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120도 각도는 가장 안정된 각도라고 하고, 180도나 90도 각도는 불안정한 각도로 본다. 이것은 서양의 점성술에서 기인된 것이다. 우선 천간(天干)의 합(合)과 충(沖)은 아래 [표-7], [그림-6]과 같다.

지지육합(地支六合)	지지충(地支沖)
자축합화토(子丑合化土)	인신충(寅申沖)
인해합화목(寅亥合化木)	사해충(巳亥沖)
묘술합화화(卯戌合化火)	자오충(子午沖)
진유합화금(辰酉合化金)	묘유충(卯酉沖)
사신합화수(巳申合化水)	진술충(辰戌沖)
오미합화무(午未合化無)	축미충(丑未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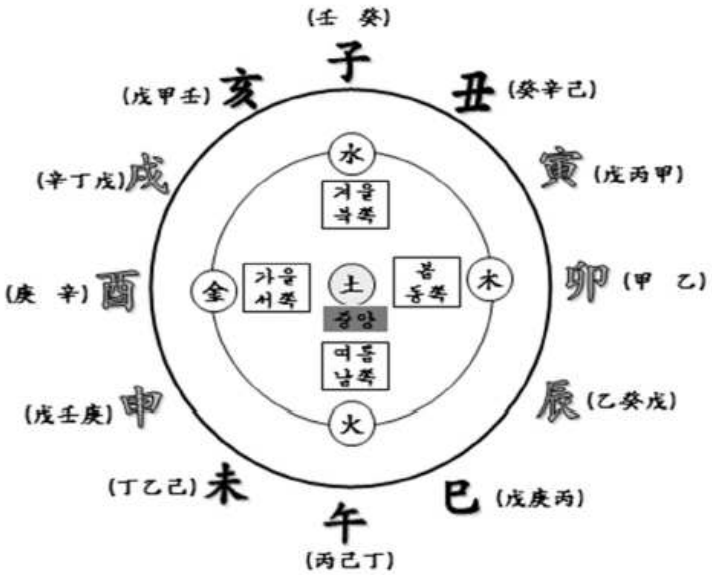
[표 -7] 지지(地支)의 육합(六合)과 충(沖)

지지(地支)의 육합(六合)을 외울 때는 자축합화토(子丑合化土), 인해합화목(寅亥合化木), 묘술합화(卯戌合化火), 진유합화금(辰酉合化金), 사신합화수(巳申合化水), 오미합화무(午未合化無) 이렇게 외우는데, 午未는 합(合)은 하지만 변화가 없다는 뜻이다. 그러나 지지(地支) 역시 합화오행(合化五行)은 진오행(眞五行)이라 송대(宋代) 이후의 명리학에서는 합(合)하여 묶이는 기능만 활용하고, 화(化)하는 기운은 제외하고 있다. 지지(地支)의 합화오행(合化五行)은 태양계의 행성 순서와 동일하다. 태양부터 수-금-화-목-토성의 순서라 지구를 제외하고, 목성에서 태양까지의 태양계 행성의 위치와 동일하다.



[그림 -6] 지지(地支)의 육합(六合)과 충(沖)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이외에 중요한 점은 천간(天干)은 한 가지의 기운을 가지고 있지만 지지(地支)는 천간(天干)의 기운을 두 가지 또는 세 가지씩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지지(地支)가 천간(天干)의 기운을 지니고 있는 것을 두고 지장간(支藏干=지지 속에 담겨진 천간의 기운)이라고 한다. [그림 -7]과 같다.



[그림 -7] 지지(地支)의 지장간(支藏干)과 계절(季節) 및 방위(方位) (출처 : 기초자평명리학)

지지(地支)는 천간(天干)과는 달리 시간과 방향을 나타낸다. 예를 들면 子水는 방위로는 북방(北方)이고, 시간상으로는 자정이며, 계절적으로는 겨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간(天干)은 이런 시간과 방향성이 없다.

[그림 -7]을 보면 寅木 즉 입춘부터 겨울에는 없던 火기운(丙)이 생긴 것을 알 수 있고, 巳火 즉 입하부터 봄에는 없던 金기운(庚)이 생겼고, 申金 즉 입추부터 여름에는 없던 水기운(壬)이 생겼고, 亥水 즉 입동부터 가을에는 없던 木기운(甲)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생(生)하기 시작했다고 해서 생지(生支)라고 하는데, 寅申巳亥는 4가지라 사생지(四生支)라고 한다. 이런 식으로 하여 子午卯酉는 사왕지(四旺支)라고 하고, 辰戌丑未는 사고지(四庫支)라고 한다.

지장간(支藏干)		
사생지(四生支)	사왕지(四旺支)	사고지(四庫支)
寅(戊丙甲) - 인병갑	子(壬　癸)	辰(乙癸戊) - 을계무
申(戊壬庚) - 신임경	午(丙己丁)	戌(辛丁戊) - 신정무
巳(戊庚丙) - 사경병	卯(甲　乙)	丑(癸辛己) - 계신기
亥(戊甲壬) - 해갑임	酉(庚　辛)	未(丁乙己) - 정을기

[표 -8] 지장간(支藏干) 도표

여기에서 사왕지(四旺支)를 외우기가 가장 쉽다. 각 계절의 중심으로 子, 卯, 酉는 천간의 기운이 두 가지 들어있고, 午에만 己土가 하나 더 들어 있다. 그리고 사생지(四生支)는 여기(餘氣=앞의 절기에서 남아 있는 기운)가 다 같이 戊土라 戊를 제외하고 인병갑, 신임경, 사경병, 해갑임을 스토리로 만들어서 외우면 더 쉽다.

예를 들자면 “인병갑씨와 신임경씨가 사경을 헤맨다 병으로 해갑인데...” 이런 식으로 외우면 절대 헷갈리지 않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지(四庫支)는 辰戌丑未를 순서대로 외운 후에 한꺼번에 을계무, 신정무, 계신기, 정을기 이런 식으로 한꺼번에 외우면 빠른 시간에 지장간(支藏干)을 모두 다 외울 수 있다. 사주에 있어 지장간은 대단히 중요하다. 고수는 지장간(支藏干)을 활용한다는 말이 있는데, 틀린 말은 아니다. 이 지장간(支藏干)은 나중에 사주의 핵심이 되는 용신(用神)과 상신(相神) 또는 병(病)을 찾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되므로 반드시 외워둬야 한다.

14) 지지(地支)의 삼합(三合)과 방합(方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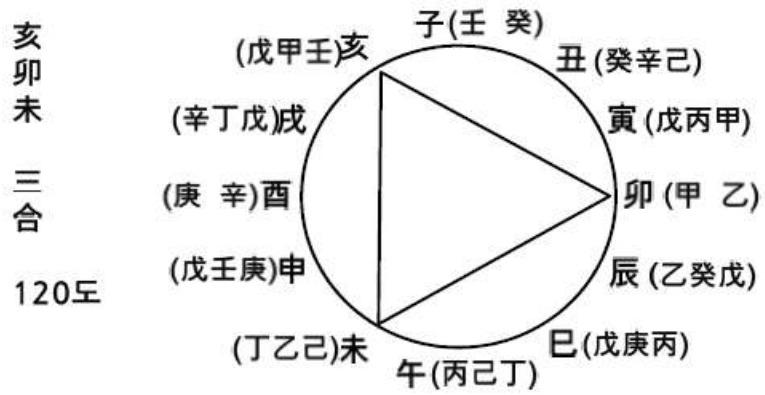
지지(地支)는 12가지이다. 이 12가지의 기운이 생겨나고(生), 왕성하다가(旺), 창고 또는 묘지(墓支)로 들어가게 되는데(庫), 이러한 생(生)하고 왕(旺)하고 고(庫)로 들어가는 세 기운을 삼합(三合=120도의 합)이라 한다.

여기에 비하여 방합(方合)은 봄 · 여름 · 가을겨울의 사계절을 뜻한다. 이외에 암합(暗合=어두운 합)은 묘신이 있다-卯중의 乙목과 申중의 庚금이 서로 乙庚合을 하기에 암합(暗合)이라고 한다. 관련된 내용은 [표 -9]와 같다.

삼합(三合)	방합(方合)
해묘미합목(亥卯未合木)	인묘진(寅卯辰) - 木方
인오술합화(寅午戌合火)	사오미(巳午未) - 火方
사유축합금(巳酉丑合金)	신유술(申酉戌) - 金方
신자진합수(申子辰合水)	해자축(亥子丑) - 水方

[표 -9] 지지(地支)의 삼합(三合)과 방합(方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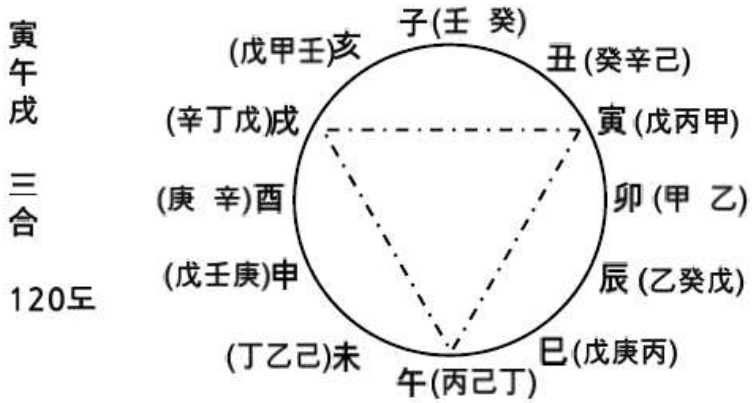
15) 亥卯未 三合 120도



[그림 -8] 해묘미(亥卯未) 목국(木局)의 삼합도(三合圖)

[그림 -8]은 해묘미(亥卯未) 목국(木局)의 삼합도(三合圖)로 중심점에서 보면 각각 120도 각도로 세 가지의 기운이 합(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亥수는 木기운의 생지(生地)이며, 卯목은 木기운의 왕지(旺支)이며, 未토는 木기운의 고지(庫支)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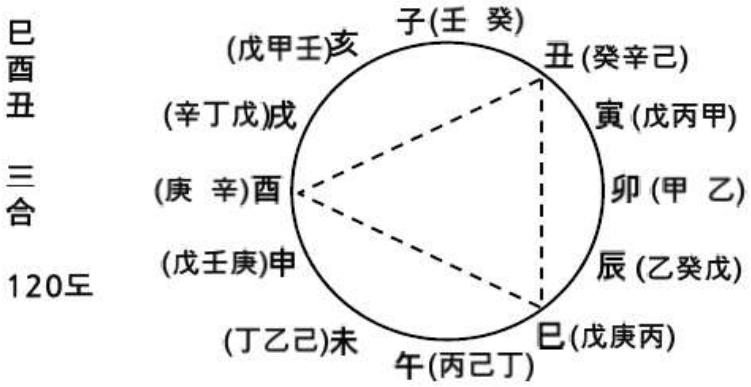
16) 寅午戌 三合 120도



[그림 -9]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의 삼합도(三合圖)

[그림 -9]는 인오술(寅午戌) 화국(火局)의 삼합도(三合圖)로 중심점에서 보면 각각 120도 각도로 세 가지의 기운이 합(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寅목는 火기운의 생지(生地)이며, 午화는 火기운의 왕지(旺支)이며, 戌토는 火기운의 고지(庫支)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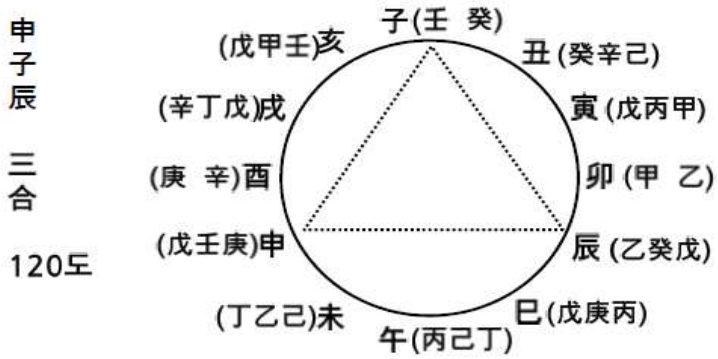
17) 巳酉丑 三合 120도



[그림 -10]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의 삼합도(三合圖)

[그림 -10]은 사유축(巳酉丑) 금국(金局)의 삼합도(三合圖)로 중심점에서 보면 각각 120도 각도로 세 가지의 기운이 합(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巳화는 金기운의 생지(生地)이며, 酉금은 金기운의 왕지(旺支)이며, 丑토는 金기운의 고지(庫支)가 된다.

18) 申子辰 三合 120도



[그림 -11]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의 삼합도(三合圖)

[그림 -10]은 신자진(申子辰) 수국(水局)의 삼합도(三合圖)로 중심점에서 보면 각각 120도 각도로 세 가지의 기운이 합(合)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申금은 水기운의 생지(生地)이며, 子수는 水기운의 왕지(旺支)이며, 辰토는 水기운의 고지(庫支)가 된다.

제 3차시. 음양오행과 적용

1) 음양오행(陰陽五行)이란?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 합쳐진 말로 모든 동양학의 기초 이론이다.

음양오행(陰陽五行)이라고 쓰고 있으나 출발은 음양(陰陽)이 먼저이고. 그 다음 오행(五行)이라는 말이 생겨났다.

음양이원론(陰陽二元論)과 오행사상(五行思想)은 전국시대 제나라 추연(鄒衍 또는 騶衍: 기원전 305-240)에 의해서 음양오행사상(五行思想)으로 구축되었다.

추연(鄒衍 또는 騶衍: 기원전 305~240)은 중국의 전국시대(戰國時代: 기원전 403~221)의 제나라(齊: 기원전 1046~221) 사람이며, 제자백가 중 음양가(陰陽家)의 대표적인 인물이다. 추연[1]은 맹자(孟子: 기원전 372?~289?)보다 조금 뒤의 사람이다. 제(齊)나라 땅은 전통적으로 미신적 ·**주술**적 ·**신비**적 사상의 경향이 강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중국 재래의 오행사상(五行思想)과 음양이원론(陰陽二元論)을 결합하여 음양오행사상을 구축하였다. 추연의 저서라고 하여 《**추연**(鄒衍)》 49편, 《**추자종시**(騶子終始)》 56편이 있었다고 하나 현존하지 않는다. 추연의 철학으로 유명한 것은 소위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과 **적현신주설**(赤縣神洲說)이다.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은 왕조(王朝)는 그 왕조에 부여(附與)된 오행의 덕의 운행논리(運行論理)에 따라서 필연적으로 흥폐가 교체된다고 하는 일종의 신비적 역사철학이다. 진나라(秦)를 수덕(水德)의 왕조(王朝)라 하고, 그 이전의 4 왕조 중 황제(黃帝)의 왕조를 토덕(土德)에, 하나라(夏)를 목덕(木德)에, 은나라(殷)를 금덕(金德)에, 주나라(周)를 화덕(火德)에 배치하여 오행상극의 이론대로 각 왕조는 다음에 나타난 왕조에게 타도될 운명에 있었다고 한다. 그리하여 물(水)은 오행상극의 최후의 것으로서 왕조의 순환은 수덕(水德)을 갖춘 진나라(秦)에서 그친다고 하여 진나라 왕조의 정통성과 절대성을 주장하였다.

추연(鄒衍)이 말한 오덕종시설(五德終始說)은 얼마 후 진나라(秦)가 망하고 한나라(漢) 왕조가 출현하는 현실을 목격하는데, 새로운 한나라 시대의 왕조론에 의하여 권력의 교체를 설명하고 역사의 예언을 하게 된다. 그리하여 추연(鄒衍)에서 출발하였다고 하는 음양과 오행의 조합은 한나라 시대에서 더욱 복잡 · 세밀해져서 자연현상이나 인간사회의 모든 현상, 심지어 정치와 율령의 방식에까지 그 논리가 이용되게 되었다.

적현신주설(赤縣神洲說)은 우주 전체는 81주(洲)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의 9분의 1인 9주를 점거하고 있는 것이 **적현신주**(赤縣神洲) 또는 간단히 **신주**(神洲)인데, 이것이 바로 중국이라는 주장이다. 일종의 신비적인 우주철학이다. 9주설(九洲說)은 《서경(書經)》〈우공편(禹貢篇)〉에 쓰인 것이다. 9(九)는 궁(窮)으로 통한다. 적현신주설은 그 9(九)와 9(九)를 곱하여 우주를 설명하려는 단순한 관념론

---

1) (또는 騶衍: 기원전 305~240)은 중국 동북지역 즉 산동반도에 위치해 있던 자신의 고향 제나라에서 특히 유행하던 음양과 오행에 관한 민간신앙과 이론을 조합해 음양오행설이라는 철학 체계를 구축했다. 이후 동중서를 비롯한 유학자들이 분서갱유 이후 유교를 재정립하면서 음양오행을 끌어들인 설명을 하였으며, 이는 유교의 전파와 함께 동아시아 문화권에 오행 사상을 널리 퍼뜨리는 계기가 되었다. 출처: 나무위키

이다. 그러나 그 말하는 바는 역시 신비적 주설(呪說)이다.

추연은 드넓기 짝이 없어 보이는 중국이 사실은 세계 전체 면적의 81분의 1 크기에 불과하며, 중국의 본래 명칭은 적현신주(赤縣神州)라고 주장한다. 적현신주(赤縣神州) 안에는 구주(九州)가 있으며, 중국 바깥에도 적현신주(赤縣神州) 같은 것이 아홉이 있고, 그 각각은 작은 바다로 둘러싸여 서로 왕래할 수 없다고 한다. 그런 구주가 한 구역을 이루는데, 그러한 구역이 다시 아홉 개가 있다. 여기에서 적현신주(赤縣神州) 안의 구주가 유교에서 말하는 구주이며, 적현신주(赤縣神州) 같은 것 아홉을 한 구역으로 해서 모두 아홉 구역이 있으므로, 중국의 면적은 세계 면적의 81분의 1에 해당한다. 출처: 위키디피아

2) 사마담(司馬談)

전한시대의 사상가로 『사기』[2]를 지은 사마천[3]의 아버지이다. 황실의 천문과 역법을 주관하고, 황실의 전적을 관장했다고 전한다.

“음양오행(陰陽五行)에 순응하는 사람은 흥하고 그것을 거스르는 자는 죽지 않으면 망한다고 하나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라고 하여 당시 음양오행(陰陽五行)이 절대적인 사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3) 『설문해자說文解字』부부(阜部)

음(陰)	양(陽)
어둡다	밝고 높다
차갑다 -『시경時經』 시대	따뜻하다- 『시경時經』 시대
구름이 해를 가리는 것	해가 땅 위에 있는 모습
雲(=云) + 今	日(=勿)+ 一
뒤쪽, 이면, 산의 북쪽	앞쪽, 표면. 강의 남쪽

[표 -10] 음(陰)과 양(陽)

2) BC 90 만들어진 책으로, 고대 중국을 무대로 ‘역사와 인간’을 탐구한 사마천의 명저이다. 『사기』 130권은 본기(本紀) 12권, 표(表) 10권, 서(書) 8권, 세가(世家) 30권, 열전(列傳) 70권의 5부로 나누어져 있다. 연대를 따라 평면적으로 기록하는 편년체가 아니라, 역사의 모습을 입체적으로 부각하는 기전체(紀傳體)로 썼다. 출처 : 절대지식 중국 고전

3) BC 140~110년 한(漢)의 조정에서 태사령(太史令)을 지낸 사마담(司馬談)의 아들로 태어났다. 태사령이란 천문관측, 달력의 개편, 국가 대사(大事)와 조정 의례(儀禮)의 기록 등을 맡는 직책이었다. 사마천은 젊어서 여러 지역을 여행한 뒤에 조정의 관리가 되었고, BC 111년 중국 남서부지방의 군사원정에 참여했다. BC 108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태사령이 되었다. BC 105년 무제(武帝)의 즉위가 한나라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에서 중국 달력의 개편이 이루어지게 되어 사마천이 이 작업을 담당하게 되었다. 이와 거의 같은 시기에 아버지가 못다 이룬 꿈이었던, 중국 역사서의 집필에 착수했다. 그러나 역사서를 완성하기도 전에 당시 평판이 나쁘던 이릉(李陵) 장군을 변호하다가 무제의 뜻을 거스르게 되어 황제 비방혐의로 심문을 당했다. 무제가 그를 죽이기에는 아까운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사마천 자신이 역사서를 완성하기 위해 처형의 연기를 간청했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아무튼 처형되는 대신 궁형(宮刑 : 去勢刑)을 선고받았다. 훗날 무제의 화가 누그러지자 다시 황실의 총애를 받아 중서령(中書令)이 되었다. 그러나 자기가 당한 치욕을 잊지 못한 채 은퇴해서 역사서 완성에 몰두했다. 출처 : 다음백과

음양(陰陽)이 서로 연속된 하나의 명사가 되고 무형무상(無形無象)한 두 가지 대대적인 성질을 가리키게 된 것은 대체로 공자(孔子) 혹은 노자(老子)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의 전적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三經[4]인 『시경詩經』과 『서경書經』과 『역경易經』의 괘사와 효사 등이다.

시경에서 '음'은 8회, '양'은 14회, '음양'은 1회, 서경에서 '음'과 '양'을 말한 것이 각각 3회. 장자(莊子)- "『易』은 '음양'을 말하였다". 주역의 효사 중 중부괘 구이효의 한 곳에서만 '음'자 하나가 발견된다. 음양(陰陽)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경전에 나타나는 것은 『상서尙書』「감서甘誓」 - "유호씨(有扈氏)는 오행(五行)을 업신여기고, 삼정(三正)[5]을 태만히 하였다"라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감서甘誓」는 하서(夏書)에 속한다. 또한 오행설이 극히 허탄해지고 조직화되는 것은 『여씨춘추呂氏春秋』의 「십이람十二覽」에서 부터이다. 당연히 춘추전국시대 이전에는 이른바 음양이라든가 오행이라든가 하는 말이 매우 드물게 나타나고 그 의미도 극히 평이한 것이었다. 그 시원은 연나라와 제나라의 방사(方士)[6]에게서 비롯되나 그 이론을 구축하고 전파한 사람은 추연(鄒衍)과 동중서(董仲舒)와 유향(劉向)[7]이다.(p43)

양한시대의 이른바 금문경학[8]자(今文經學者)들의 학설 중 음양오행에 대한 취향으로부터 벗어난 것은 이삼 할도 되지 않으며, 그것은 대개 동중서로 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p50)

> 『한서』「五行志」에서는 한나라가 흥하여 진(秦)나라에 의해 사라진 학문을 다시 이었으며, 경제(景帝)· 문제(文帝) 때에 동중서가 『춘추공양전』을 연구하여 처음으로 음양을 추론함으로써 유자의 으뜸이 되었다. 유향은 『춘추공량전』을 연구하여 그 화복을 헤아리고 홍범을 전함으로써 동중서와 함께 하게 되었다. 유향의 아들 유흠(劉歆)에 이르러서는 ...중략... 『오행전』에서 말한 것도 서로 상이하였다. 이 때문에 동중서를 취하고 유향과 유흠을 구별하며...중략...그 행사를 진술한 것은...중략...책에 드러나 있다고 하였다. 이에 의하면 한유들의 음양오행학은 동중서에서 시작되어 유향과 유흠 부자에 의해 완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五行志」에 기록된 것은 대개 유행의 『홍범오행전』의 내용이다.(p51)

---

4) **(易經)** : BC 700 만들어졌으며, 점술의 원전(原典)이자 중국 정통 사상의 자연철학과 실천윤리의 근원이 되는 책이다. 옛날에는 『주역(周易)』 또는 『역(易)』이라 했다. '易'은 도마뱀의 상형문자로 '변화'를 뜻한다. 즉, '주역'이란 '널리 변화를 설명하는 책' 또는 '주나라에서 행해지던 역점의 책'이라는 뜻이다. '역경'으로 불리게 된 것은 송나라 이후부터이다.
서경(書經) : BC 60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성왕(聖王) · 명군(名君) · 현신(賢臣)이 남긴 어록이자 선언집이다. 오경(五經)에 속하며, 중국 정치의 규범이 되는 책이다. 옛날에는 『서(書)』 또는 『상서(尙書)』라 했다. '글로 쓴 것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핵심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시경(詩經) : BC 470년경에 만들어진 책이다. 고대 중국의 풍토와 사회를 배경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노래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이다. '시경'이란 '시의 성전(聖典)'이라는 뜻이다. 서주(西周) 초기(BC 11세기)부터 춘추시대 중기(BC 6세기)까지 전승된 많은 시가 실려 있다. 출처: [Daum백과] 역경, 서경, 시경 - 절대지식 중국고전, 다케우치 미노루, 이다미디어본

5) 천, 지, 인(天, 地, 人) 삼재(三才)의 바른 도리

6) 신선의 술법을 닦는 사람

7) 중국 전한 때의 경학자· 목록학자· 문학자. 본명은 갱생· 자는 자정. 『춘추곡량전春秋穀梁傳』을 연구하기도 했으며, 간대부· 종정 등을 지냈다. 한(漢)나라 원제 때 음양재이설을 가지고 정치적인 상황의 득실을 추론했으며, 외척과 환관의 전횡을 탄핵하다가 2차례의 옥고를 치렀다. 성제가 즉위한 후 다시 등용되어 이름을 향(向)이라 바꾸었다. 광록대부로 승진되었으며, 나중에 중루교위를 지내기도 했다. 여러 서적을 교열하여 『별록 別錄』 20권을 완성했다. 작품으로는 『구탄 九嘆』 등의 사(辭)·부(賦) 33편이 있으나 대부분 유실되었다. 또한 『오경통의五經通義』가 있으나 유실되었으며 청나라 마국한의 『옥함산방집일서 玉函山房輯佚書』 속에 1권이 집록되어 있다. 이외에도 명대 사람이 그의 작품을 모아놓은 『유중루집 劉中壘集』이 있다. 유향의 저서 가운데 현존하는 것으로는 『홍범오행전 洪範五行傳』· 『신서 新序』· 『설원 說苑』· 『열녀전列女傳』 등이 있다. 출처: 다음백과

8) 예서(隸書)로 쓰여진 경전을 연구대상으로 한 것으로 한의 관학(官學)으로 기능했다. 복생(伏生)이 찬술한 〈서 書〉, 고당생(高堂生)의 〈예 禮〉, 공양씨(公羊氏)의 『춘추공양전 春秋公羊傳』 등이 그중 중요한 것으로, 이들 경전은 전한(前漢)의 무제(武帝)가 유교를 국교로 정하고 오경박사를 설치하면서 '경'으로서의 절대적 지위를 부여받고 국가 통치이념을 제공하였다. 금문경학에서 중요한 것은 경문(經文)의 대의(大義)를 발휘하여 국가의 대일통(大一統)을 확고히 하려는 것으로 특히 『춘추공양전』이 중시되었다. 출처: 다음백과

음양을 사시 열두 달에 분배한 것은 전국시대 말기에 점차 형성된 것이고, 『시경』 시대에는 음양의 관념이 없었다. (p60) 시경에서 나타나는 모든 음 양에는 후대처럼 만물을 형성하는 원소로서의 음양이기陰陽二氣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춘추시대 242년 동안 여러 가지 문화관념은 풍부하게 전개되기 시작하였으며, 음양관념도 발전하였다. (p61)

춘추시대에 이루어진 음양관념의 가장 큰 발전은 음양을 천(天)이 생성한 육기(六氣)[9] 중의 이기(二氣)로 파악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음양 자체가 이미 실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이다. (p62)

『춘추좌씨전』[10]을 근거로 춘추시대의 음양관념 발전의 세 가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 음양이 원래의 **기호관념**에서 발전되어 천지 사이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육기 중의 두 가지 성질의 기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둘째 : 육기가 **사람과 관련**을 가지기 시작. (예: 음이 지나치면 한질이 생긴다. 육정(육정)이 육기에서 생긴다. 육기는 오미, 오색, 오성 들을 만들어 내며 맛이나 색, 소리 들은 사람에게 필요하고 또 경험되는 것이다.
셋째 : 육기 중에서도 점차 부각되어 다른 많은 **현상이나 사물들과 연관**을 맺게 되었으며 남성과 여성의 상징으로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오행이라는 말이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상서尙書』의 「감서甘誓」이고, 그 다음이 「홍범洪範」이다. 『상서』의 「주서周書」 중에는 오행이라는 명사나 관념이 나타나지 않는다. 『시경』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오행이라는 명사나 관념은 『춘추좌씨전』이나 『국어』에서 비로소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오행은 만물을 구성하는 다섯 가지의 기본적인 원소로서 인도 불교의 이른바 사대(四大)[11]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 (p69)

『춘추좌씨전』에서 '구공(九功)의 덕은 모두가 노래 부를 만하기 때문에 구가라고 하며, 육부(六府)· 삼사(三事)를 구공이라고 했다' 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육부는 수(水)· 화(火)· 금(金)· 목(木)· 토(土)· 곡(穀)을 육부라고 하며, 정덕(正德) 이용(利用) 후생(厚生)을 삼사라고 했다. 고대인들은 손가락이 다섯 개였기 때문에 곧잘 '五'를 사물의 정수로 인식하였다. 그리고 육부 중의 '곡' 은 실상 '土'로부터 나온다. 그러므로 육부에서 '곡'을 제외하여 '오재五材'라고 하였던 것이다. 육부에서 '부'자가 된 것은 그것들이 모두 축척의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오재에서의 '재'자는 이 다섯 가지의 기능과 관련하여 사용된 것이었다. 또 오재는 생활 속에서 '통용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이었기 때문에 오행이라고도 하게 되었다.

『논어』에는 "자장(子張)이 행(行)에 대해서 물었다."는 구절이 있는데, 여기에서의 행(行)이란 '통행되어 막힘이 없다' 는 의미이다. 따라서 오행은 광범위하게 응용되는 '다섯 가지의 생활 자료'를 가리키며,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적인 생활 자료와는 구별되어 특별한 중요성을 가진다. (p71)

---

9) (六氣): 음(陰), 양(陽), 풍(風), 우(雨), 회(晦), 명(明)

10) 중국 최초의 편년체 역사서인 『춘추』에는 중국 춘추시대에 일어난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다. 『춘추좌씨전>은 『춘추』의 주해서로서 <춘추>에 기록된 사건들에 대해 상세한 산문체 설명과 풍부한 배경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당시 철학 유파들에 관한 역사적 자료들과 증거들도 담겨 있다. 이 책은 춘추시대 전 시기에 일어난 주요 정치적·사회적·군사적 사건들을 포괄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 최초의 담화체 서술방식으로 중국문학사상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역사적 사건과 인물들은 당사자의 행동과 대화를 통해 직접적으로 드러나 있으며, 이 책의 3인칭 화술은 정연한 구조에 명료하고 간결한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편찬자는 전국시대 초기의 익명의 작가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출처: 다음백과

11) 사대란? 地, 水, 火 ,風을 말한다. 삼대는 地, 水, 火이다.

오행을 다섯 가지의 천신으로 인식하는 것은 진(秦)나라 이후에 점차 형성된 관념이다. 그리고 간지가 오행에 배합되고, 상생과 상극의 이야기가 나오는 곳은 『춘추좌씨전』 소공 31년 12월 산해일에 일어났던 일식에 관한 조간자의 질문에 사묵이 답한 내용이다.

> 지금으로부터 육년이 지난 이 달에 오나라가 초나라의 서울 영(郢)으로 쳐들어올 것이나 마침내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지금은 해와 달이 진미(辰尾: 진성의 꼬리)에서 합쳐져서 일식이 일어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1일 전인 경오일(庚午日)에 태양이 변하기 시작하였습니다만 火는 金을 이기기 때문에 오나라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p75)

4) 음양(陰陽)

음양(陰鬻)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경전에 나타나는 것은 『상서尙書』 「감서甘誓」 - "유호씨(有扈氏)는 오행(五行)을 업신여기고, 삼정(三正)을 태만히 하였다"라는 대목이다.

음양(陰陽)이 서로 연속된 하나의 명사가 되고 무형무상(無形無象)한 두 가지 대대적인 성질을 가리키게 된 것은 대체로 공자(孔子) 혹은 노자(老子)부터 시작되었다. 이전의 전적 중에서 가장 믿을 만한 것은 三經[12]인 『시경詩經』과 『서경書經』과 『역경易經』의 괘사와 효사 등이다.

시경에서 '음'은 8회, '양'은 14회, '음양'은 1회, 서경에서 '음'과 '양'을 말한 것이 각각 3회. 장자(莊子)- "『易』은 '음양'을 말하였다". 주역의 효사 중 중부괘 구이효의 한 곳에서만 '음'자 하나가 발견된다. 음양(陰陽)이라는 글자가 가장 먼저 경전에 나타나는 것은 『상서尙書』 「감서甘誓」 - "유호씨(有扈氏)는 오행(五行)을 업신여기고, 삼정(三正)[13]을 태만히 하였다"라는 대목이다. 여기에서 「감서甘誓」는 하서(夏書)에 속한다. 또한 『묵자墨子』[14] 「경하經下」와 「경설하經說下」에는 오행(陰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오행에는 상승하는 관계가 없으니 그 설의 요점은 마땅함에 있다. 다섯 가지는 水· 土· 火를 합한 것이며, 火는 태우는 성질을 가진다. 火가 金을 녹이는 것은 火가 많기 때문이며, 金이 석탄을 쪼개는 것은

---

12) **(易經)** : BC 700 만들어졌으며, 점술의 원전(原典)이자 중국 정통 사상의 자연철학과 실천윤리의 근원이 되는 책이다. 옛날에는 『주역(周易)』 또는 『역(易)』이라 했다. '易'은 도마뱀의 상형문자로 '변화'를 뜻한다. 즉, '주역'이란 '널리 변화를 설명하는 책' 또는 '주나라에서 행해지던 역점의 책'이라는 뜻이다. '역경'으로 불리게 된 것은 송나라 이후부터이다.
서경(書經) : BC 600년경에 만들어진 책으로, 성왕(聖王) · 명군(名君) · 현신(賢臣)이 남긴 어록이자 선언집이다. 오경(五經)에 속하며, 중국 정치의 규범이 되는 책이다. 옛날에는 『서(書)』 또는 『상서(尙書)』라 했다. '글로 쓴 것 가운데 가장 순수하고 핵심적인 것'이라는 뜻이다.
시경(詩經) : BC 470년경에 만들어진 책이다. 고대 중국의 풍토와 사회를 배경으로, 그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생활을 노래한 가장 오래된 시가집이다. '시경'이란 '시의 성전(聖典)'이라는 뜻이다. 서주(西周) 초기(BC 11세기)부터 춘추시대 중기(BC 6세기)까지 전승된 많은 시가 실려 있다. 출처: [Daum백과] 역경, 서경, 시경 - 절대지식 중국고전, 다케우치 미노루, 이다미디어본

13) 천, 지, 인(天, 地, 人) 삼재(三才)의 바른 도리

14) 공자가 죽은 지 몇 년 후에 태어난 묵자墨子는 보편적 사랑, 즉 겸애를 기본 이념으로 삼는 그의 철학은 수백 년 동안 유학과 맞섰고 묵가라고 부르는 종교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묵자는 원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학자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유교는 부담스러운 의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확신하게 되어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공자는 모든 점에서 볼 때 귀족적인 기질과 경향을 갖고 있었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주나라 초기의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꾸었다. 반면에 묵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끌렸고, 주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원시시대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과 솔직한 인간관계를 꿈꾸었다. 〈묵자〉는 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주요저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묵자의 정치, 윤리, 종교적인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 출처: 다음백과

金이 많기 때문이다. 金과 火가 합하면(火가 金을 녹이기 때문에) 水가 나오며 木은 木과 짝한다.

시경(詩經)에서 '음은 8회. '양은 14회. '음양은 1회. 서경(書經)에서 '음 '과 ' 양 '을 말한 것이 각각 3회.

장자(莊子) - "『易』은 '음양'을 말하였다". 주역의 호사 중 중부괘 구이효의 한 곳에서만 '음'이 하나가 발견된다.

5) 『묵자墨子』「경하經下」,「경설하經說下」

『묵자墨子』[15] 「경하經下」와 「경설하經說下」에는 오행(陰陽)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오행에는 상승하는 관계가 없으니 그 설의 요점은 마땅함에 있다. 다섯 가지는 水 · 土 · 火를 합한 것이며, 火는 태우는 성질을 가진다. 火가 金을 녹이는 것은 火가 많기 때문이며, 金이 석탄을 쪼개는 것은 金이 많기 때문이다. 金과 火가 합하면(火가 金을 녹이기 때문에) 水가 나오며 木은 木과 짝한다.

다섯 가지는 水· 土· 火를 합한 것이며.
火는 태우는 성질을 가진다.
火가 金을 녹이는 것은 火가 많기 때문이며,
金이 석탄을 쪼개는 것은 金이 많기 때문이다.
金과 火가 합하면(火가 金을 녹이기 때문에) 水가 나오며
木은 木과 짝한다.

6)『순자荀子』「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

『순자荀子』[16] 「비십이자편非十二子篇」에서 자사(子思)와 맹가(孟軻)를 비판하면서 언급한 말은 아래와 같다.

> 옛날 일들을 살펴 새로운 학설을 만들고 그것을 오행이라 한다. 그 학설이 심히 편벽되어 조리가 없고, 난해하면서도 설명이 없고, 독단적이면서도 해설이 없다. 그 말은 수식하여 공경하면서 이것이 바로 선대 군자들의 말이다. 라고 하니 자사가 주창하고 맹가가 화답하였다.

---

15) 죽은 지 몇 년 후에 태어난 묵자墨子는 보편적 사랑, 즉 겸애를 기본 이념으로 삼는 그의 철학은 수백 년 동안 유학과 맞섰고 묵가라고 부르는 종교운동의 토대가 되었다. 전해오는 말에 따르면, 묵자는 원래 공자의 가르침을 따르던 유학자였다고 한다. 그러다가 유교는 부담스러운 의례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종교적 가르침을 너무 소홀히 한다고 확신하게 되어 독자적인 길을 가기로 결심했다. 공자는 모든 점에서 볼 때 귀족적인 기질과 경향을 갖고 있었으며, 화려하고 웅장한 주나라 초기의 조용하고 평화로웠던 시절로 돌아가기를 꿈꾸었다. 반면에 묵자는 평범한 사람들에게 이끌렸고, 주나라보다 훨씬 오래된 원시시대의 단순하고 소박한 생활과 솔직한 인간관계를 꿈꾸었다. 〈묵자〉는 묵자와 그의 제자들이 남긴 주요저술을 집대성한 것으로, 묵자의 정치, 윤리, 종교적인 가르침의 핵심을 담고 있다. 출처: 다음백과

16) BC 300경, 중국 조(趙)나라~230경, 중국 초(楚)나라 란링[蘭陵]) 공맹사상(孔孟思想)을 가다듬고 체계화했으며, 사상적인 엄격성을 통해 이해하기 쉽고 응집력 있는 유학사상의 방향을 제시했다. 유학사상이 2,000년 이상 전통으로 남아 있을 수 있었던 것은 많은 부분에 있어서 유교철학을 위해 공헌한 순자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의 생애와 활동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조나라 출생이라는 것, 몇 년 동안 동쪽에 있는 제(齊)나라의 직하(稷下) 학파에 있었다는 것, 그후 중상모략을 받아 남쪽의 주(周)나라로 옮겼고 BC 255년 그 나라의 지방 수령을 지내다가 관직에서 물러난 후 곧 죽었다는 것 등이 알려진 사실의 전부이다. 순자의 가장 유명한 말은 "인간의 본성은 악하다. 선한 것은 수양에 의한 것일 뿐이다"이다. 출처: 다음백과

7) 음양적용

陰	달	어둠	후면	추움	암컷	하부	하강	식물	靜
陽	태양	밝음	전면	더움	수컷	상부	상승	동물	動

[표 -11] 음(陰)과 양(陽)의 특징

음은 달, 어둠, 후면, 추움, 암컷, 하주, 하강, 식물, 슬픔, 내면 그리고 고요함을 나타내고, 이것에 비하여 양은 태양, 밝음, 전면, 더움, 수컷, 상부, 상승, 동물, 기쁨, 외면 그리고 움직임을 나타낸다.

8) 삼신오제(三神五帝)의 형상

(가) (나) (다)

[그림 -12] 삼신오제(三神五帝)의 형상

[그림 -12]에서 (가)는 하늘과 땅 사람의 순서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다섯을 나타내는 한자 五의 원형으로 하늘과 땅 사이에 사람이 있어 팔과 다리를 벌리고 있는 형상을 나태나고 있다. (다)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한자 오(五) 즉 다섯을 나타내는 한자이다. 결국 한자 오(五)는 이 세상 모두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생활 속에 오(五)라는 말이 들어가면 '모두 다' 라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

9) 三神[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

한민족의 삼신(三神)은 환인(桓因), 환웅(桓雄), 환검(桓儉)은 한민족의 기본사상 으뜸으로 하늘님이신 환인(桓因)과 하늘님의 서자(庶子 : 큰 아들 외에는 모두 서자라고 했음)로 이 땅에 내려오신 환웅(桓雄)과 곰을 섬기던 웅족(熊族)의 여인과 결혼하여 낳은 아들인 환검(桓儉)을 말한다. 여기에 이 땅을 지키는 다섯의 제후들인 오제(五帝)를 더하면 삼신오제(三神五帝) 즉 한민적의 사상이 되는 것이다.

이것을 중국에서는 삼황오제(三皇五帝)로 변화시켜서 활용을 했었고, 후에 삼강오륜(三綱五倫)이 나온 것이 우연이 아님을 추측할 수 있다.(한민족은 숫자 3을, 중국은 숫자 8을 좋아하는 이유라고도 함)

삼황(三皇)을 천황씨(天皇氏), 지황씨(地皇氏), 인황씨(人皇氏)이라고도 하고, 신농씨(神農氏), 복희씨(伏羲氏), 수인씨(燧人氏) 또는 황제 헌원이라고도 한다. 오제(五帝) 소호, 전욱, 제곡, 요, 순이라 한다.

10) 삼재(천재天才, 인재人才, 지재地才)

삼재삼원사상(三才三元思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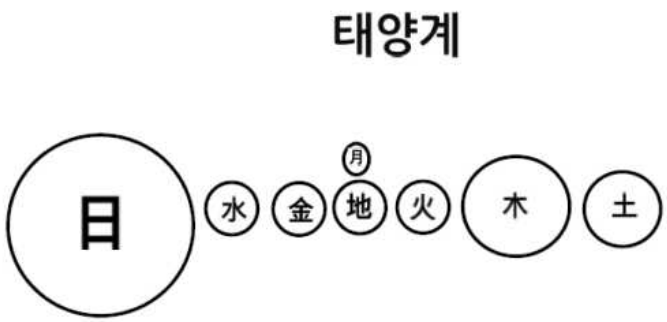
우리 겨레의 천인지(天人地) 사상은 노자(老子)가 『도덕경(道德經)』에서 '천지인天地人'이라 쓴 이후부터 '천지인天地人'' 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라 부르게 되었다. 또한, 삼신오제(三神五帝)사상은 유가(儒家)사상의 본질 중 하나인 삼재(三才)와 천인합일(天人合一)사상과도 일치하고 있다.

[참고]
이에 하늘 아래 두루 있으면서 오제(五帝)의 사명을 주관하는 바 이를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라 한다. 지하에 두루 있으면서 오령(五靈)의 이룸을 주관하는 바 이를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라 한다. 하늘 아래 있으면서 오제(五帝)의 사명(司命)을 주관하는 것은 천하대장군(天下大將軍)이다. 반면 지하(地下)에 있으면서 오령(五靈)의 이름을 주관하는 것은 지하여장군(地下女將軍)이다. 출처 : 이용섭, <신채호(申采浩) 선생(先生)의 상·고대사에 대한 인식>, 자주시보, 2014 기사에서 발췌

11) 오제(五帝)

[그림 -13] 오제도(五帝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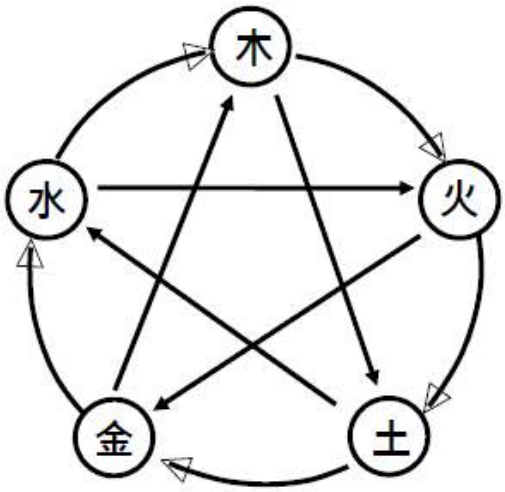
오제(五帝)는 이 땅을 지키는 다섯 제후를 뜻한다. 동쪽은 청제가, 서쪽은 백제가, 남쪽은 적제가, 북쪽은 흑제가 다스린다는 뜻이다. 가운데는 황제가 다스린다. 이러한 오제(五帝)의 신성한 의미는 중국의 한나라(BC206~AD220) 때 동중서(董仲舒)에 의해서 오행의 상생상극 이론이 만들어지면서 사라지게 된다.



[그림 -14] 태양계(太陽系)

그래서 태양을 중심으로, 육안(肉眼)으로 확인이 가능한 수성, 금성, 화성, 목성, 토성의 오행성(五行星)을 가리키는 것으로 그 의미가 바뀌게 된다. 위의 태양계를 보면 지구에서 바라봤을 때, 달은 음(陰)이 되고, 태양은 양(陽)이 됨을 알 수 있다. 이 둘을 합치면 음양오행(陰陽五行)이 된다. 이렇게 형성이 된 음양오행사상(陰陽五行思想)은 중국뿐만 아니라 동양의 중심적인 사상으로 자리를 잡게 된 것이다.

12) 오행도(五行圖)



[그림 -15] 오행의 상생상극도(五行의 相生相剋圖)

[그림 -15]는 오행의 상생과 상극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원으로 돌아가는 방향은 서로 생하게 되는 것이고, 별모양의 화살표는 서로 극하게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것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13) 오행의 상생(相生)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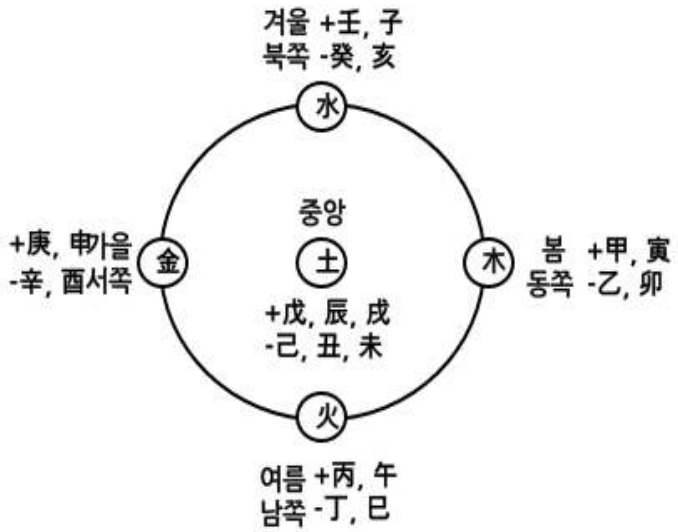
나무는 타서 불을 만들고 -> 木生火
불이 타고나면 재가 흙이 되고 -> 火生土
흙 속에서 쇠를 만들고 토생금 -> 土生金
쇠가 녹으면 물이 되고 금생수 -> 金生水
물은 다시 나무를 기우고 -> 水生木

14) 오행의 상극(相剋)

나무는 땅을 뚫고 나오고 -> 木剋土
땅은 물을 막고 -> 土剋水
물은 불을 끄고 -> 水剋火
불은 쇠를 녹이고 -> 火剋金
쇠는 나무를 자른다 -> 金剋木

오행의 상생과 상극은 음양오행을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다. 이러한 음양오행사상은 동양의 자연과학 이론이 되어 세상의 이치뿐만 아니라 사람의 운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간지(干支)의 배속(配屬)



[그림 -16] 음양오행(陰陽五行)과 간지배속도(干支配屬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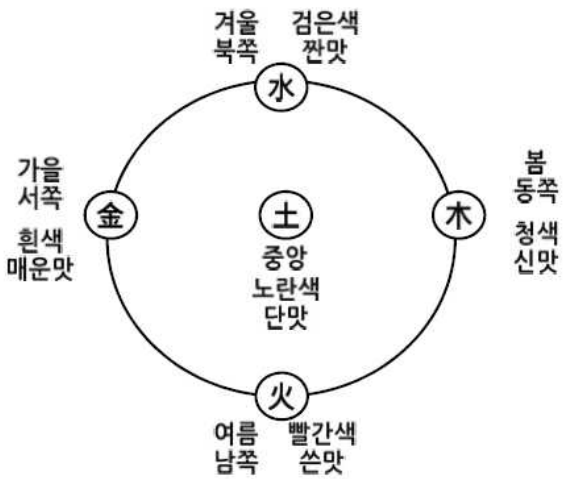
[그림 -16]은 음양오행(陰陽五行)에 간지(干支)를 배속한 그림이다. 이 그림을 보면 명리학에서 쓰고 있는 간지(干支)의 위치가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직접 연관이 있으며, [그림 -9] 오행의 상생상극도(五

行의 相生相剋圖)와 연결하면 천간(天干)과 지지(地支)의 상생(相生)과 상극(相剋)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음양오행은 사계절을 나타내기도 하고, 방향을 나타내기도 한다.

봄은 木기운이고, 동쪽을 나타낸다. 그래서 동풍이 분다고 한다. 천간(天干)은 甲·乙木이, 지지(地支)는 寅·卯木이 여기에 해당된다. 여름은 火기운이고, 남쪽을 나타낸다. 그래서 남풍이 분다고 한다. 천간(天干)은 丙·丁火가, 지지(地支)는 巳·午火이 여기에 해당된다. 가을은 金기운이고, 서쪽을 나타낸다. 그래서 서풍이 분다고 한다. 천간(天干)은 庚·辛金이, 지지(地支)는 申·酉金이 여기에 해당된다. 겨울은 水기운이고, 북쪽을 나타낸다. 그래서 북풍이 분다고 한다. 천간(天干)은 壬·癸水가, 지지(地支)는 亥·子水가 여기에 해당된다. 중앙은 천간(天干)은 戊·己土가, 지지(地支)는 辰·戌·丑·未가 여기에 해당된다. 아래는 천간의 극(剋)과 합(合)을 나타내고 있다.

15) 천간(天干)의 극(剋)과 합(合)

甲목은 戊토를 극(剋)하지만 己토와는 합(合)을 하고.
乙목은 己토를 극(剋)하지만 庚금과는 합(合)을 한다.
丙화는 康금을 극(剋)하지만 辛금과는 합(合)을 하고.
丁화는 辛금을 극(剋)하지만 壬수와는 합(合)을 한다.
戊토는 壬수를 극(剋)하지만 癸수와는 합(合)을 하고.
己토는 癸수를 극(剋)하지만 甲목과는 합(合)을 한다.
庚금은 甲목을 극(剋)하지만 乙목과는 합(合)을 하고
辛금은 乙목을 극(剋)하지만 丙화와는 합(合)을 한다.
壬수는 丙화를 극(剋)하지만 丁화와는 합(合)을 하고.
癸수는 丁화를 극(剋)하지만 戊토와는 합(合)을 한다.



[그림 -17] 음양오행(陰陽五行)과 오색(五色)과 오미(五味)

다섯이라는 의미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뜻한다. 그래서 다섯 오(五)라는 글이 들어가면 모든 것을

포함하는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 대표적이 바로 오색(五色)과 오미(五味) 그리고 오방(五方)과 오감(五感)이 되겠다. 아래는 다섯이라는 오(五)의 적용을 나타내고 있다.

16) 오(五)의 적용

오방(五方) : 동방. 서방. 남방. 북방. 중양

오행(五行) :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오악(五岳) : 동악-태산(畢山), 서악 - 화산(華山), 남악 - 형산(衡山),
북악 - 항산(恒山), 중악 - 숭산(嵩山)

오상(五常) : 인(仁), 의(義), 예(禮), 지(智), 신(信)

오음(五音) : 궁(富), 상(商), 각(角), 치(徽), 우(羽)

오감(五感) :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오장(五臟) : 동-간장, 서-폐장, 남-심장, 북-신장, 중-비장

오미(五味) : 동-시다, 서-맵다, 남-쓰다, 북-짜다, 중-달다

오색(五色) : 동-청색, 서-흰색, 남-적색, 북-흑색, 중-황색

제 4차시. 명(命) 작성법

1) 명(命) 작성에 있어 유의 사항

명(命)이란? 사람이 태어난 당시의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년·월·일·시에 해당하는 천간과 지지를 기록한 것으로 사주팔자라고도 한다.

명(命)을 작성할 때는 먼저, 태어날 당시의 년·월·일·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그러나 양력 년·월·일·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 음력 년·월·일·시를 알고 있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므로 명(命) 작성에서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반드시 양력과 음력 년·월·일·시 두 가지를 모두 적어서 확인을 해야 한다.

명(命)은 일반적으로 사주팔자(四柱八字)라는 말로 알려져 있다. "사주팔자(四柱八字)란 말은 넉 사자(四字)에 기둥 주(柱) 여덟 팔자(八字)에 글자 자(字)로, 글자 그대로 **네 개의 기둥(四柱)과 여덟 개의 글자(八字)**를 가리키는 말이다.

주(柱 = 기둥 주)라는 글을 써서 기둥이라는 의미로 불리어지게 된 것은 사주팔자를 구성하고 있는 글자 가운데에서 하늘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천간 = 天干)와 땅 기운을 나타내는 글자(지지 = 地支)를 위에서 아래로 한 글자씩 적어 두었기 때문에 마치 기둥을 세워 놓은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붙여진 말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둥(柱)들이 년(年)과 월(月)과 일(日)과 시(時)에 각각 하나씩 존재하여 있으므로 이를 모두 합치면 네 개의 기둥이 된다. 그래서 사주(四柱)라고 하는 것이다. (만세력을 펼쳐서 년·월·일·시에 해당하는 간지를 차례로 기입하면 됨)

태어난 그 해(歲)의 하늘 기운을 의미하는 글자(干)와 태어난 그 해(歲)의 땅 기운(支)을 의미하는 글자를 각각 한 글자씩 위에서 아래로 내리적어서 기둥을 세워 놓은 것을 두고 년주(年柱)라고 하고,

월(月)의 하늘과 땅의 기운을 뜻하는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적어 기둥을 세워 놓은 것을 두고 월주(月柱)라고 하며,

일(日)의 하늘과 땅의 기운을 뜻하는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 적어 기둥을 세워 놓은 것을 두고 일주(日柱)라고 하고,

시(時)의 하늘과 땅의 기운을 뜻하는 글자를 위에서 아래로 내리적어 기둥을 세워 놓은 것을 두고 시주(時柱)라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년주(年柱), 월주(月柱), 일주(日柱), 시주(時柱) 네 개의 기둥이 되기 때문에 사주(四柱)라고 하고, 사주를 구성하고 있는 천간과 지지의 글자들을 모두 합치면 여덟 자가 되므로 팔자(八字)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사주(四柱)와 팔자(八字)라는 글을 합쳐서 부르기 때문에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하는 것이다.

간혹, 편리에 따라서 '사주팔자' 라고 하지 않고 그냥 간단하게 '사주'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고, '팔자' 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식으로 줄여서 부른다고 하더라도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것은 아니다.

예전에는 사주추명학(四柱推命學)이나 명리학(命理學)으로 또는 줄여서 명학(命學)이라고 불리었었는

데 근래에 들어와서는 정확한 이름인 사주명리학(四柱命理學)이나 자평학(子平學) 또는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이라고 불리어지고 있다.“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p.101-102

2) 명(命)의 명칭(陽:1982년 11월 18일 08시 生)

[그림 -18] 명식 예

3) 명(命)의 구성(陰:1982년10월3일08시生)

위의 [그림 -18]은 壬戌年(1982년) 출생한 남(男)·녀(女)에 모두 해당된다. 먼저 태어난 년·월·일·시를 만세력을 통해서 확인하고 해당하는 간지(干支)를 찾은 다음에 년주(年柱)·월주(月柱)·일주(日柱)·시주(時柱)의 순서로 왼쪽에서부터 오른쪽으로 차례로 적으면 된다. 이때 천간(天干)은 위에, 지지(地支)는 아래에 적는다는 것은 기억을 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위·아래로 적는 이유는 위는 하늘(天干)을 뜻하고, 아래는 땅(地支)를 뜻하기 때문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년주(年柱)·월주(月 柱)·일주(日柱)·시주(時柱)로 구성이 된 사주(四柱)는 모두 여덟 자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사주팔자(四柱八字)가 되고 이를 두고 명(命)하고 한다. -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106.

4) 명(命) 작성순서-1

庚 乙 辛 壬
辰 巳 亥 戌

위에 제시된 壬戌年, 辛亥生, 乙巳日, 庚辰時에 태어난 사람의 명(命)을 작성하는 법은 먼저, 만세력

을 꺼낸 다음 명주(命柱)가 태어난 해에 해당하는 년(年)의 간지(干支)를 우측 편에 위에서 아래로 적는다.

그 다음 명주(命主)의 태어난 월(月)에 해당하는 간지(干支)를 위에서 아래로 그 옆에 적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점은 만세력에 보이는 월(月)의 간지(干支)를 보이는 대로 그냥 적는 것이 아니라 태어난 일(日)과 시(時)까지 살펴서 어느 절기(節氣)에 속하는지를 확인한 후에 정확히 그 절기에 해당하는 간지를 적는다는 것이다. -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106.

만세력을 보면, 양력과 음력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우선 이것부터 정확하게 살펴봐야 한다. 보통 위쪽에 크게 쓰인 월(月)은 양력이고, 아래에 작게 쓰인 월(月)은 음력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절기가 표시되어 있는 아래쪽을 보면 양력 날짜와 함께 그 날 몇 시 몇 분부터 위쪽에 표시된 절기가 해당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시간이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다. 이 뜻은 같은 날이라고 하더라도 절기의 적용이 서로 다를 수 있음을 뜻한다.

예를 들어, 입춘(立春)이 3일 23시 58분이고 신축년(辛丑年), 경인월(庚寅月)이 된다고 했을 때, 3일 23시에 태어난 사람은 경자년(庚子年), 기축월(己丑月)이 된다. 이와 같이 태어난 시간(時干)에 따라서 사주명식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다. 이것은 년간지(年干支) 즉 년주(年柱)를 기록할 때 입춘(立春)이 되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5) 명(命) 작성순서-1

명리학에서의 년주(年柱)는 입춘(立春)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그러므로 寅월이 되려면 반드시 입춘(立春)이 지나야 한다. 만약 입춘(立春) 전이라면 아직 새해가 시작된 것이 아니다. 명리학은 양력 1월 1일도 음력 1월 1일도 한 해의 시작이 아니고, 오로지 입춘(立春)이 되어야 새로운 한 해가 시작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입춘세수(立春歲首=입춘이 한 해의 시작)는 중국 한(漢)나라 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입춘(立春)이 꼭 한 해의 시작은 아니었다. 하(夏)나라는 寅월을, 상(商=은나라로 알려짐)나라는 丑월을. 주(周)나라는 子월을 세수(歲首)로 했다. 그러다가 한(漢)나라 때 다시 寅월을 세수(歲首)로 한 것이다. 이것은 다스리기 편하게 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해의 시작을 왕조 때마다 다르게 지정한 것을 두고 정치세수(政治歲首)라고도 한다.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106.

[24절기표]는 지구가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즉 일 년을 30도씩 나눠서 24절기로 표기를 하고 있다. 그러나 명리학에서는 24절기 가운데 중기(中氣)인 춘분, 추분, 하지, 동지 등을 제외하고, 절기(節氣)만을 활용하고 있다. 그 내용은 아래 절기에 다른 월별 분류표와 같다.

1월 (寅)	입춘(立春)	양력 2월 4일경- 봄이 시작되고 한 해가 시작되는 때
	우수(雨水)	양력 2월 19일경- 봄비가 내리고 싹이 트는 시기
2월	경칩(驚蟄)	양력 3월 6일경-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는 시기

(卯)	춘분(春分)	양력 3월 21일경- 낮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시기
3월 (辰)	청명(淸明)	양력 4월 5.6일- 봄 농사 준비하는 시기
	곡우(穀雨)	양력 4월 20일경- 농사비가 내리는 시기
4월 (巳)	입하(立夏)	양력 5월 5.6일경- 여름이 시작되는 때
	소만(小滿)	양력 5월 21일경- 본격적으로 농사짓는 시기
5월 (午)	망종(亡種)	양력 6월 6.7일경- 씨 뿌리기는 시기
	하지(夏至)	양력 6월 21일경- 년 중 낮이 가장 긴 시기
6월 (未)	소서(小署)	양력 7월 7.8일경- 여름 더위의 시작되는 시기
	대서(大暑)	양력 7월 23일경- 년 중 가장 더운 시기
7월 (申)	입추(立秋)	양력 8월 6-9일경- 가을이 시작되는 때
	처서(處暑)	양력 8월 23일경- 더위가 가고 일교차가 커지는 시기
8월 (酉)	백로(白露)	양력 9월 9일경- 이슬이 내리는 시작하는 시기
	추분(秋分)	양력 9월 23일경- 밤이 길어지는 시기
9월 (戌)	한로(寒露)	양력 10월 8일경- 찬 이슬이 내리기 시작하는 시기
	상강(霜降)	양력 10월 23일경- 서리가 내리기 시작
10월 (亥)	입동(立冬)	양력 11월 7.8일경- 겨울이 시작되는 때
	소설(小雪)	양력 11월 23.24일경- 얼음이 얼기 시작하는 시기
11월 (子)	대설(大雪)	양력 12월 7.8일경- 큰 눈이 오는 시기
	동지(冬至)	양력 12월 22일경 년 중 밤이 가장 긴 시기
12월 (丑)	소한(小寒)	양력 1월 5일경- 겨울 중 가장 추워지는 시기
	대한(大寒)	양력 1월 20일경- 겨울 중 가장 추운 시기

[표 -12] 24절기표

6) 절기에 따른 월별 분류

月別 / 節氣	正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節氣	입춘 立春	경칩 驚蟄	청명 淸明	입하 立夏	망종 芒種	소서 小暑	입추 立秋	백로 白露	한로 寒露	입동 立冬	대설 大雪	소한 小寒

[표 -13] 절기에 따른 월별 분류표

12절기를 외울 때는 일입춘, 이경칩, 삼청명, 사입하, 오망종, 육소서, 칠입추, 팔백로, 구한로, 십입동, 십일대설, 십이소한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것이 편하다. 명리학에서의 12절기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1월, 2월 등과 같은 의미이므로 반드시 외워야 한다. 그리고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은 그 날이 절기에 해당이 되는 날이라고 하더라도 시간이 되지 않으면 다음의 절기가 아닌 이전의 절기에 해당된다. 이것을 잊게 되면 사주본명(四柱本命) 자체가 틀리게 되기 때문이다.

7) 태세에 따른 월별 분류

명리학에서 한 해의 시작은 입춘(立春)이라는 사실은 한대(漢代) 이후 변함이 없다. 입춘(立春)은 寅월이기 때문에 한 해는 반드시 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 月의 순서가 된다. 이것은 일 년의 세수(歲首)가 입춘(立春)이 아니고 다른 절기(節氣)로 바뀔 때까지는 변함이 없다.

절기(節氣)는 지지(地支)이기 때문에 변함없이 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子·丑 月의 순서로 흘러가지만 천간(天干)의 기운은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천간(天干)은 년(年)의 기운과 직접적인 영향이 있기 때문이다. 사주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가 모두 양은 양끼리, 음은 음끼리 결합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때문에 한 해의 시작이 되는 입춘(立春)이 寅월 즉 양(陽)의 기운이기 때문에 한 해 절기의 시작 역시 천간(天干) 양(陽)의 기운인 甲·丙·戊·庚·壬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丙寅, 戊寅, 庚寅, 壬寅, 甲寅만 입춘(立春)의 간지(干支)가 될 수 있다.

태세 / 월별	正	二	三	四	五	六	七	八	九	十	十一	十二
甲己年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丙子	丁丑
乙庚年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戊子	己丑
丙辛年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庚子	辛丑
丁壬年	壬寅	癸卯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壬子	癸丑
戊癸年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甲子	乙丑

[표 -14] 태세에 따른 월별 간지 구분표

[표 -14]는 년(年)에 따른 절기(節氣)의 천간(天干) 변화를 보여준다. 이것을 풀어내면 아래와 같다.

甲己年 -〉 丙寅月, 丁卯月 · · ·
乙庚年 -〉 戊寅月, 己卯月 · · ·
丙辛年 -〉 庚寅月, 辛卯月 · · ·
丁壬年 -〉 壬寅月, 癸卯月 · · ·
戊癸年 -〉 甲寅月, 乙卯月 · · ·

위 절기(節氣)의 순서를 보면 천간(天干) 역시 순서대로 흘러가기 때문에 해당하는 해의 입춘(立春) 천간(天干)만 알 수 있으면, 나머지 절기(節氣)는 쉽게 알 수 있다. 그래서 아래와 같이 년간(年干)과 입춘(立春)의 천간(天干)을 함께 외우면 헷갈리지 않고 쉽게 외울 수가 있다.

갑기병(甲己丙)
을경무(乙庚戊)
병신경(丙辛庚)
정임임(丁壬壬)
무계갑(戊癸甲)

8) 명(命)의 명칭-2

庚 乙 辛 壬
辰 巳 亥 戌

절기(節氣)에 해당하는 월간지(月干支) 즉 월주(月柱)를 알았으면, 년주(年主) 왼쪽 옆에 월주(月柱)를 적는다. 위 명조(命造)의 간지(干支) 辛亥가 바로 그것이다. 그 다음은 일간지(日干支) 즉 일주(日柱)를 적어야 한다. 일주(日柱)는 월간지(月干支)의 왼쪽 옆에 그 날에 해당하는 일(日)의 간지(干支)를 위에서 아래로 적는다. 위 명조(命造)의 간지(干支) 乙巳가 바로 그것이다. 마지막으로 시(時)의 간지(干支)를 역시 위에서 아래로 적는다. 위 명조(命造)의 간지(干支) 庚辰이 바로 그것이다. 이렇게 하면 명(命) 즉 사주팔자(四柱八字)가 완성이 된다.

시간지(時干支) 즉 시주(時柱)를 알아보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만세력 뒤쪽에 있는 시간지 조견표(時干支 早見表)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일간(日干)에 따른 시(時)의 구성 원리를 암기하여 기록하는 두 가지의 방법이 있다.

9) 시간지(時干支)를 정할 때 유의사항

현재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시간은 일본 동경을 기준으로 하고 있다. 그래서 현재 알고 있는 시간에 30분씩을 더 해줘야 한다. 즉 자시(子時)라면 23시~01시까지이지만 우리나라는 일본의 수도인 동경시를 쓰고 있기 때문에 30분을 더해서 23시 30분~01시 30분이 되어야 한다.

일본 동경과 서울의 정확하게 32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일본 동경에서 정오를 울렸다면 32분 후에 서울에서 정오를 울려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는 같은 시간에 똑같이 정오를 알리고 있다. 그렇기 때문

에 대략 30분의 시간을 더해줘야 시간이 맞아진다. 조금 더 정확한 시간을 알기 위해서는 명주(命主)가 태어난 지역에 따라서 감안을 하는 것이 옳다.

生時 / 日干	子時 23:30 ~ 01:30	丑時 01:30 ~ 03:30	寅時 03:30 ~ 05:30	卯時 05:30 ~ 07:30	辰時 07:30 ~ 09:30	巳時 09:30 ~ 11:30	午時 11:30 ~ 13:30	未時 13:30 ~ 15:30	申時 15:30 ~ 17:30	酉時 17:30 ~ 19:30	戌時 19:30 ~ 21:30	亥時 21:30 ~ 23:30
甲己日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乙庚日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丙辛日	戊子	己丑	庚寅	辛卯	壬辰	癸巳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
丁壬日	庚子	辛丑	壬寅	癸未	甲辰	乙巳	丙午	丁未	戊申	己酉	庚戌	辛亥
戊癸日	壬子	癸丑	甲寅	乙卯	丙辰	丁巳	戊午	己未	庚申	辛酉	壬戌	癸亥

[표 -15] 시간지 조견표

10) 일간(日干)에 따른 시(時) 분류

시간지(時干支) 즉 시주(時柱)에서 지지(地支)는 태어난 시간을 넣으면 알 수 있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으나, 시(時)의 천간(天干) 즉 시간(時干)의 기운을 아는 것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월간(月干)을 외우는 방법이 甲己丙, 乙庚戊, 丙辛庚, 丁壬壬, 戊癸甲이라면, 시간(時干)을 외우는 방법은 천간(天干)의 기운이 모두 순서대로 되어 있다. 즉 甲·乙·丙·丁·戊의 순서로 되어 있다는 뜻이다.

여기에 천간(天干)의 합(合)하는 기운을 넣으면, 甲己合, 乙庚合, 丙辛合, 丁壬合, 戊癸合이 된다.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자시(子時)는 양(陽)의 기운이기 때문에 천간(天干)의 양(陽)의 기운이 순서대로 甲, 丙, 戊, 庚, 壬이 결합의 대상이 된다. 그래서 천간(天干)의 순서에 양(陽)의 기운을 배속시키면 된다. 그래서 甲·乙·丙·丁·戊 - 甲·丙·戊·庚·壬이런 순서로 외우면 헛갈리지 않게 된다. 아래는 일간(日干)에 따른 자시(子時)와 축시(子時)의 천간(天干) 기운을 나타낸 것이다.

甲己日 -〉 甲子時, 乙丑時 · · ·
乙庚日 -〉 丙子時, 丁丑時 · · ·
丙辛日 -〉 戊子寺, 己丑時 · · ·
丁壬日 -〉 床子時, 辛丑時 · · ·
戊癸日 -〉 壬子時, 癸丑時 · · ·

예를 들어, 태어난 날의 천간(天干) 기운 즉 일간(日干)이 甲일이나 己일인 사람의 경우, 시간지(時干支) 즉 시주(時柱)는 甲子, 乙丑, 丙寅, 丁卯, 戊辰, 己巳, 庚午, 辛未, 壬申, 癸酉, 甲戌, 乙亥 중에서 한 가지의 시주(時柱)가 되는 것이다.

태어난 날의 천간(天干) 기운 즉 일간(日干)이 乙일이나 庚일인 사람의 경우, 시간지(時干支) 즉 시주(時柱)는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 중에서 한 가지의 시주(時柱)가 되는 것이다.

11) 일간(日干)에 따른 시(時) 분류 (예)

庚 乙 辛 壬
辰 巳 亥 戊

위 명조(命造)는 일간(日干)이 乙木이다. 乙일에 태어난 사람은 丙子, 丁丑, 戊寅,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 丙戌, 丁亥이므로 이 가운데에서 한 가지의 시주(時柱)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태어난 시(時)가 진(辰)시이므로 경진(庚辰)이 시주(時柱)가 되는 것이다. 만약 일간(日干)이 庚금이고, 辰시에 태어났더라도 경진(庚辰)이 시주(時柱)가 된다.

제 5차시. 운(運) 작성법

1) 운(運)에 작성에 있어 유의 사항

운(運)이란? 사람이 태어난 당시의 현재를 기준으로 하여 年·月·日·時에 해당하는 천간(天干)과 지지(地支) 즉 간지(干支)을 기록해 놓은 것을 사주팔자(四柱八字)라고 한다면, 운(運)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해가는 간지(干支)를 기록해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부연하자면, 사주팔자(四柱八字)가 태어날 당시의 고정적인 기운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운(運)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맞이하게 되는 변화무쌍한 기운을 나타낸 것이 된다.

사주팔자는 태어날 당시의 천지(天地) 기운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한번 해당된 사주팔자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고정적이게 된다. 이에 반해서 운(運)은 살아가면서 과거에 경험했거나 앞으로 경험하게 될 변화 과정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변화를 예측해서 살피게 하는 바로미터가 된다.

운(運)의 작용에 의해서 인생은 여러 가지 다양한 변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사주가 운(運)에 배합되면서 생기는 격(格=사주의 형태)의 변화 작용이 각기 다르게 적용되기 때문에 사람마다 길흉화복(吉凶禍福)과 흥망성쇠(興亡盛衰)가 각각 다르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이는 명(命)이 길게 이어져 변화무쌍한 운(運)의 변화를 오랫동안 다양하게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어떤 이는 명(命)이 길지 못하여 상대적으로 다양한 운(運)의 변화 과정을 경험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뜨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사주팔자를 태어날 때부터 갖게 되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고정적인 오행의 기운을 나타낸 것이라고 한다면 운(運)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필연적으로 맞이하는 유동적인 오행의 기운이라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를 선천적인 것이라 하고 운(運)을 후천적인 것이라고도 한다.

사주팔자도 마찬가지 경우에 해당이 되지만 명주(命主)가 맞이하는 대운(大運)이나 세운(歲運) 역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만나게 되는 기운에 해당이 된다. 그러므로 좋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운이 좋지 않아 불운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생겨나고, 반대로 좋지 않은 사주를 가지고 태어났으나 운이 좋아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발생이 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는 상관없이 발생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한다.

이러한 이유에 비춰 보더라도 인생에 있어서의 사주팔자와 운(運)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사주팔자와 운(運)은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닌 항상 동일 선상에 놓고 함께 적용하고 함께 판단해야 하는 기운인 것이다.

사주 명리학에서는 운(運)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1년에 한차례씩 바뀌는 운(運)을 **세운(歲運)**이라고 하고, 10년을 주기로 해서 바뀌는 운(運)를 **대운(大運)**이라고 한다. 세운(歲運)은 다시 절기로 구분하는 12가지의 절운(節運) 또는 월운(月運)으로 나누게 되고, 월운(月運)은 다시 하루하루를 나타내는 일진(日辰)으로 나누게 된다.

운(運)을 살필 때는 10년을 좌우하는 대운(大運)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먼저 사주팔자를 분석한 다음에는 대운(大運)의 변화 과정에 사주팔자를 대입하여 대운에 의한 변화 현상을 살핀 후에 명조의 전체적인 고저를 종합 판단하게 된다. 사주와 대운(大運)을 살핀 연후에는 한 해 동안의 운을 나타내는 세운(歲運)을 판단하게 되는데, 세운(歲運)을 판단할 때에는 대운(大運)의 바탕 위에 세운(歲運)이 존재하므로 대운과 세운(歲運)이 서로 충(沖)을 하는지, 그렇지 않고 서로 합(合)을 하는지 그리고 대운의 방(方)과 세운(歲運)의 방(方)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하는 등의 모든 상황을 치밀하게 살펴보아야 한다.

세운(歲運)은 다시 한 달 동안의 운을 나타내는 월운(月運)에 대입하여 명주(命主)의 일 년 동안의 운세를 한 달 한 달 구분해서 판단해 보는 운(運) 즉 신수(身數)를 보는데 활용을 한다. 그러므로 일 년 동안의 신수(身數)를 볼 때는, 세운(歲運)을 먼저 적어 놓고, 월운(月運)을 하나씩 하나씩 세운(歲運)에 대입해 가면서 한 달 한 달의 운(運)을 예측해 나가게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진은 당일 하루 동안의 운세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던지 아니면 하루를 시간대 별로 나눠서 어느 특정 시간대를 중점적으로 살펴서 일진(日辰)에 각각의 시간대 별로 나눠서 대입하여 살펴보면 된다. -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p.104-105

2) 대운(大運)이 10년인 이유

인간이 우주운동을 1회전하는데, 120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 120년을 1년으로 축소하면 1년은 4계절과 12개월로 구분이 되고, 절기(節氣)로는 24절기(節氣)로 세분이 될 수 있다. 이때 120년을 12개월로 나누면 10년이 되므로 10년이 곧 한 달이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운(大運)의 간지(干支)가 10년을 주관하게 되는 것이다.

-명조 예

[1970년생 남자]

壬 戌 戌 庚
戌 申 寅 戌

67 57 47 37 27 17 7.6
乙 甲 癸 壬 辛 庚 己
酉 申 未 午 巳 辰 卯

위 명조 庚戌년, 戊寅월, 戊申일, 壬戌시에 태어난 사람의 명조이다. 년간(年干)이 庚金 즉 양(陽)인데, 대운(大運)의 흐름을 보면 월주(月柱) 戊寅 다음의 간지(干支)인 己卯, 庚辰, 辛巳...의 순으로 순행하고 있으므로 남자의 사주임을 짐작할 수 있다. 아래의 己卯, 庚辰, 辛巳, 壬午, 癸未, 甲申, 乙酉는 모두 대운(大運)이고, 대운(大運) 위의 숫자 7.6, 17, 27...등은 대운수(大運數)가 된다.

즉 태어난 후 만 7년 6개월부터 대운이 시작이 되어, 만 17살 6개월, 27살 6개월의 순서로 10년 주기의 변화를 겪게 된다는 뜻이다. 대운(大運)의 방(方)을 보면 卯·辰 즉 동방(東方) 木기운에서 巳·午·未 즉 남방(南方) 火기운으로 그리고 申酉 즉 서방(西方) 金기운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방(方)의 변화를 보면, 한 사람의 인생의 길흉(吉凶)을 단번에 알 수 있다.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은 방(方)은 東·西·南·北의 네 가지 즉 사방(四方)만 있으며, 사람이 대략 60년 이상을 살다가 간다면 살아가면서 최소 두 방(方)은 만나게 된다. 그런데 대체로 두 방(方)은 좋으나 나머지 두 방(方)은 좋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크게 구분한다면, 운(運)이 좋은 사람이 반 정도 살아가고 있고, 반대로 운(運)이 좋지 않은 사람도 반 정도 살아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3) 대운(大運) 작성법

대운(大運)을 세울 때는

1. 명주(命主)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먼저 구별해야 한다.
2. 사주팔자의 년간(年干)이 음간(陰干)인지 양간(陽干)인지를 두 번째 확인해야 한다.
3. 대운(大運)이 순행(順行)과 역행(逆行)을 하는 기준은 어떤 경우에도 사주팔자 내의 월간지(月干支) 즉, 월주(月柱)에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월주(月柱)를 기준으로 순행(順行)이나 역행(逆行)을 한다.

명주(命主)가 남자이고 년간(年干)이 양간(陽干)이면 양남(陽男)이라고 하고, 명주(命主)가 남자인데, 년간(年干)이 음간(陰干)이면 음남(陰男)이라고 한다. 명주(命主)가 남자이고 년간(年干)이 양간(陽干)이면 순행(順行)하고, 명주(命主)가 남자인데 년간(年干)이 음간(陰干)이면 역행(逆行)을 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여자의 대운(大運)도 세우면 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여자는 남자의 대운(大運) 세우는 법의 반대가 된다는 것이다.

명주(命主)가 여자이고 년간(年干)이 양간(陽干)이면 양녀(陽女)라고 하고, 명주(命主)가 여자인데, 년간(年干)이 음간(陰干)이면 음녀(陰女)라고 한다. 명주(命主)가 여자이고 년간(年干)이 양간(陽干)이면 역행(逆行)하고, 명주(命主)가 여자인데 년간(年干)이 음간(陰干)이면 순행(順行)을 한다.

이를 알기 쉽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명주(命主)가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먼저 구분한다.
2) 명주(命主)의 사주에서 년간(年干)이 양간(陽干)인지, 음간(陰干)인지를 확인한다.
3) 양남(陽男)·음녀(陰女)는 순행(順行)하고,
4) 음남(陰男)·양녀(陽女)는 역행(逆行)한다.

이 내용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대운(大運)을 작성하려면 먼저 명주(命主)의 성별을 먼저 확인하고, 두 번째 년간(年干)이 음(陰)인지 양(陽)인지를 확인하고, 세 번째 월간지(月干支) 즉 월주(月柱)를 기준하여 양남음녀(陽男陰女)는 순행(順行)을 하고, 음남양녀(陰男陽女)는 역행(逆行)을 한다.

4) 대운수(大運數) 정하는 법

대운수(大運數)는 몇 세를 기준으로 하여 대운(大運)이 시작되고, 변화되어 가는가? 하는 것을 알아보는 척도이다. 이때는 생일(일간日干)의 위지가 가장 중요하다.

일간(日干)이 절기(節氣) 중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이 첫 번째 조건이 되고, 대운(大運)이 순행(順行)하느냐 역행(逆行)하느냐 하는 것이 두 번째 조건이 된다.
일간(日干)의 위치에서 역행(逆行)하거나 순행(順行)을 해서 절기(節氣)까지 며칠이 걸리는지 날짜(수數)를 세어서 3으로 나눈다는 것이 세 번째의 조건이 된다. 3으로 나눠서 2가 남으면 반올림하고, 1이 남으면 버린다. (세분하여 개월 수까지 산정할 수도 있다)

참고 : 동양의 역법은 일 년을 60갑자가 6번 즉 360일로 잡았다. 그래서 모자라는 날짜(5일 2422)들이 있기 때문에 19년에 7번의 윤(閏)달을 두게 된 것이다. 여기서 한 절기가 30일이기 때문에 절기를 3으로 나누면 10 이상이 나올 수 없다. 즉 대운이 처음부터 11일 나올 수 없다는 뜻이 된다. 그러므로 3일이 1년이라는 뜻이 된다. 하루는 12시간(2시간을 1시간으로 봄)이고, 36시간이 1년이고, 1년은 360일이라 1시간이 10일이 된다. 결국 절기에서 절기까지의 시간을 모두 계산하면 개월 수와 일까지 나온다.

(실례-1)

[1970년생 남자]

시 일 월 년
己 甲 乙 庚
巳 辰 酉 戌

86 76 66 56 46 36 26 16 6 (대운수)
甲 癸 壬 辛 庚 己 戊 丁 丙 대운 : 순행
午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이 경우는 명주(命主)가 남자이고 년간(年干)이 경금(庚金)으로 즉 양간(陽干)이라. 양남(陽男)으로 대운(大運)이 순행(順行)한다. 이런 원리로 년간(年干)과 월주(月柱) 그리고 대운(大運)의 흐름만 보면 사주의 명주(命主)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가능하다. 위 명조의 경우 년간(年干)이 양(陽)이고, 월주(月柱)가 乙酉인데, 丙戌부터 대운(大運)이 시작되므로 순행(順行)이라 남자의 사주임을 알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월간지(月干支) 즉 월주(月柱)인 乙酉 다음으로 丙戌. 丁亥, 戊子, 己丑, 庚寅의 순으로 대운(大運)이 순행(順行)하고. 일간(日干)이 갑진(甲辰)일로써 절기(節氣)로는 백로(白露)를 지났으니 다음 절기(節氣)인 한로(寒露)까지의 날짜 수를 세어야 하는데, 일간(日干)을 제외하고 다음 절기(節氣)인 한로(寒露)까지 센 날짜의 수가 18일이니 이 날짜 수 18일을 3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때 3으로 나눈 수가 6이라 대운 수가 6. 16. 26.....이렇게 변화해 간다. 18일 나누기 3=6이라 대운 수가 6이 된다.

(실례-2)

[1977년생 남자]

시 일 월 년
己 丙 辛 丁
亥 申 亥 巳

89 79 69 59 49 39 29 19 9.6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대운 : 역행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이 경우는 명주(命主)가 남자이고 년간(年干)이 정화(丁火)로 음간(陰干)이니. 음남(陰男)으로 대운(大運)이 역행(逆行)한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월간지(月干支) 辛亥 다음으로 庚戌. 己酉, 戊申, 丁未. 丙午의 순으로 대운(大運)이 역행(逆行)하고. 일간(日干)이 丙申일로써 절기(節氣)로는 입동(立冬)을 지났으나. 양남(陽男)과 같이 다음 절기인 대설(大雪)까지의 날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지나온 절기(節氣)인 입동(立冬)까지의 수를 센다.

일간(日干)을 제외하고 지나온 절기(節氣)인 입동(立冬)까지 센 날짜의 수가 28일이니 이 날짜 수 28일을 3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때 3으로 나눈 수가 9이고 나머지 1 일이 남는다, 그래서 1 일을 버리고 9 일을 대운수로 정한다.

28일 나누기 3 = 9일 하고 1 일이 남는다. 이때 2는 취하고 1은 버리니 대운 수가 9일이 된다.

(실례-3)

[1981년생 여자]

시 일 월 년
甲 戊 癸 辛
寅 戌 巳 酉

86 76 66 56 46 36 26 16 6
壬 辛 庚 己 戊 丁 丙 乙 甲 대운 : 순행
寅 丑 子 亥 戌 酉 申 未 午

이 경우는 명주(命主)가 여자이고 년간(年干)이 辛酉로 음간(陰干)이니. 음녀(陰女)로 대운(大運)이 순행(順行)한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월간지(月干支) 癸巳 다음으로 甲午. 乙未. 丙申. 丁酉. 戊戌. 己亥.의 순으로 대운(大運)이 순행(順行)하고. 일간(日干)이 戊戌일로써 절기(節氣)로는 입하(立夏)를 지났으니 다음 절기(節氣)인 망종(芒種)까지의 날짜 수를 세어야 하는데. 일간(日干)을 제외하고 다음 절기(節氣)인 망종(芒種)까지 센 날짜의 수가 17일이기에 이 날짜 수 17일을 3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때 3으로 나눈 수가 5이고 나머지 2일이 남는다. 그래서 반올림하여 대운수가 6이 된다.
17일 나누기 3= 5일 하고 2일이 남는다. 이때 2는 취하고 1은 버리니 대운수가 6일이 된다.

(실례-4)

[1982년생 여자]

시 일 월 년
戊 辛 甲 壬
戌 巳 辰 戌

87 77 67 57 47 37 27 17 7.11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대운 : 역행
未 申 酉 戌 亥 子 표 寅 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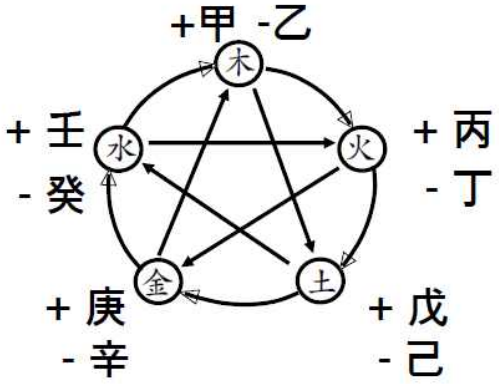
이 경우는 명주(命主)가 여자이고 년간(年干)이 임수(壬水)로 양간(陽干)이니, 양녀(陽女)로 대운이 역쵕(逆行)한다.

그래서 기준이 되는 월간지(月干支) 辛巳 다음으로 癸卯. 壬寅. 辛丑. 庚子. 己亥. 戊戌.의 순으로 대운이 역행하고. 일간(日干)이 신사(辛巳)일로써 절기(節氣)로는 청명(淸明)을 지났으나. 음녀(陰女)와 같이 다음 절기(節氣)인 입하(立夏)까지의 날짜 수를 세는 것이 아니라 역(逆)으로 지나온 절기(節氣)인 청명(淸明)까지의 수를 센다.

일간(日干)을 제외하고 지나온 절기(節氣)인 청명(淸明)까지 센 날짜의 수가 23일이니까 이 날짜 수 23일을 3으로 나누어야 한다.

이때 3으로 나눈 수가 7이고 나머지 2일이 남는다. 그래서 반올림하여 8일이 대운수가 된다.
23일 ÷ 3 = 7일하고 2일이 남는다. 이때 2는 취하고 1은 버리니, 대운수가 8일이 된다.

제 6차시. 십신(十神)의 구분과 심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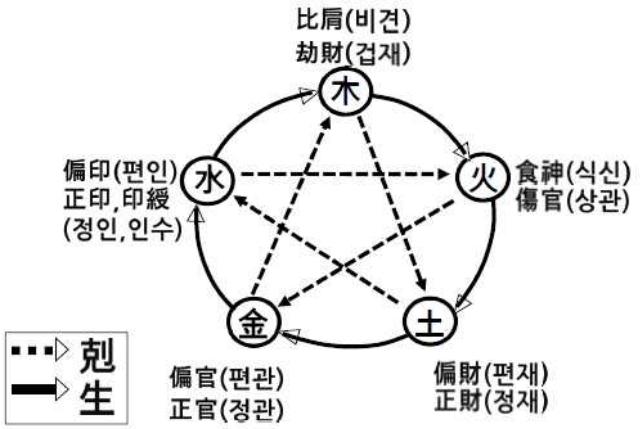


[그림 -19] 오행과 천간 배치도

위 [그림 -19]는 오행에 천간의 10가지 기운을 배치한 것이다. 오행(五行)은 각각 음(陰)기운과 양(陽)기운이 있으므로 10가지의 기운으로 나눌 수 있다. 이 10가지의 기운에 각각 의미를 부여한 것이 바로 십신(十神)이 된다.

比肩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같은 것
劫財	일간과 오행이 같고 음양이 다른 것
食神	일간이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傷官	일간이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偏財	일간이 극(剋)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正財	일간이 극(剋)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偏官	일간을 극(剋)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正官	일간을 극(剋)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偏印	일간을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같은 것
正印,印綬	일간을 생(生)하는 것으로 음양이 다른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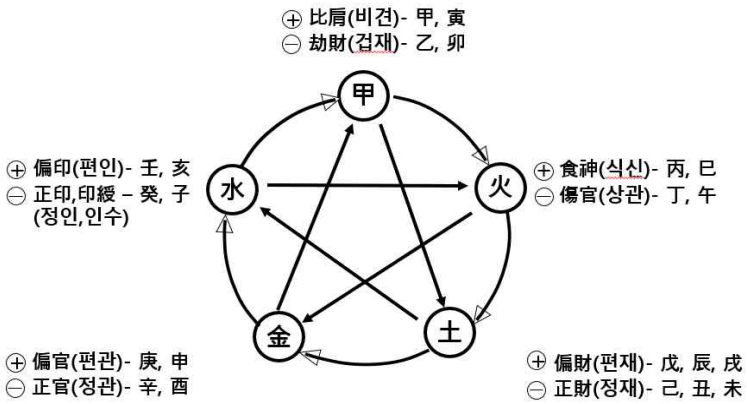
비견(比肩)은 견줄 비, 어깨 견이다.
겁재(劫財)는 빼앗길 겁, 재물 재이다.
식신(食神)은 먹을 식, 귀신 신이다.
상관(傷官)은 상할 상, 벼슬 관이다.
편재(偏財)는 치우칠 편, 재물 재이다.
정재(正財)는 바를 정, 재물 재이다.
편관(偏官)은 치우칠 편, 벼슬 관이다.
정관(正官)은 바를 정, 벼슬 관이다.
편인(偏印)은 치우칠 편, 도장 인이다.
정인(正印)은 바를 정, 도장 인이고, 인수(印綬)는 도장 인, 인끈 수이다.



[그림 -20] 오행과 십신 배치도

위 [그림 -20]는 오행(五行)에 십신(十神)을 배치하여 구분을 해놓은 것이다. 일간(日干)이 木기운 즉 甲목이나 乙목이라면 火기운은 일간(日干) 甲·乙목이 생(生)해주는 기운이라 식신(食神)이나 상관(傷官)이 되고, 土기운은 일간(日干) 甲·乙목이 극(剋)하는 기운이라 편재(偏財)나 정재(正財)가 되고, 金기운은 일간(日干) 甲·乙목을 극(剋)하는 기운이라 편관(偏官)나 정관(正官)이 되고, 水기운은 일간(日干) 甲·乙목을 생(生)해주는 기운이라 편인(偏印)이나 정인(正印)이 된다.

1) 十神 구분 甲木의 예



[그림 -21] 十神 구분 甲木의 예

위 [그림 -21]은 일간이 甲목일 때를 예로 들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이면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이나 지지의 寅목을 비견(比肩)이라고 하고, 같은 오행의 기운을 띄고 있지만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을 두고는 겁재(劫財)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으나 火기운인 丙화나 지지의 巳를 식신(食神)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를 두고 상관(傷官)이라고 한다.

[* 십성과 육친은 지장간의 정기(正氣)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子午 巳亥는 처음 외울 때와는 반대의 기운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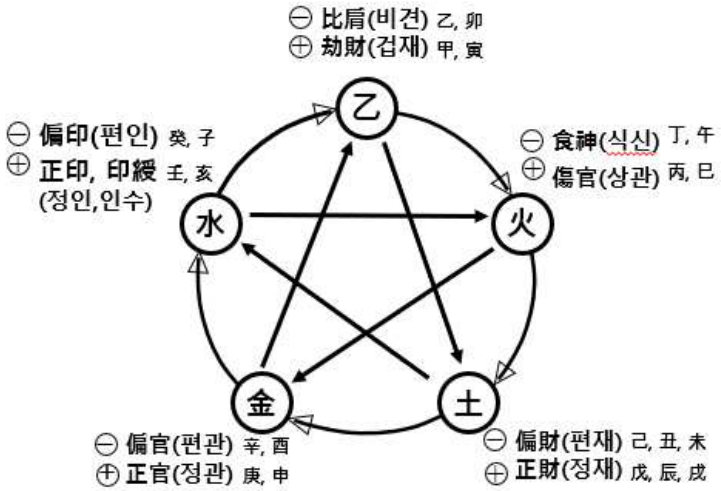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土기운인 戊토와 지지의 辰· 戌토를 편재(偏財)라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 未토를 두고 정재(正財)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金기운인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이나 지지의 酉금을 두고 정관(正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水기운인 壬수와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를 편인(偏印)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본래는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음(陰)기운]를 두고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라고 한다. -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136.

※ 十神 구분 乙木의 예



[그림 -22] 十神 구분 乙木의 예

위 [그림 -22]은 일간이 乙목일 때를 예로 들었다. 甲목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단지 음(陰)과 양(陽)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은 비견(比肩)이 되고, 같은 오행이지만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이나 지지의 寅목은 겁재(劫財)가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火기운인 丁화나 지지의 午는 식신(食神)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는 상관(傷官)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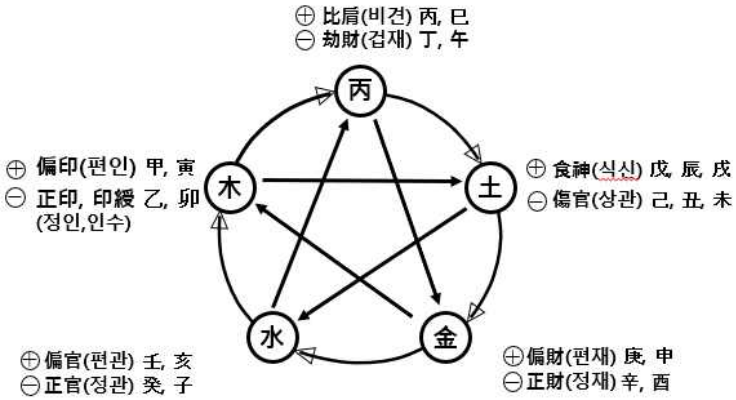
같은 음(陰)이면서 土기운인 己토와 지지의 丑· 未토는 편재(偏財)가 되고, 양(陽) 기운을 가진 戊토나 지지의 辰· 戌토는 정재(正財)가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金기운인 辛금과 지지의 酉금은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이나 지지의 申금은 정관(正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水기운인 癸수와 지지의 子수(子는 본래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

(正氣)가 음(陰)기운이라 음(陰)으로 읽는다]는 편인(偏印)이 된다. 마찬가지로,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나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의 정기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는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가 된다. -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136.

※ 十神 구분 丙火의 예



[그림 -23] 十神 구분 丙火의 예

위 [그림 -23]은 일간이 丙화일 때를 예로 들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이면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를 비견(比肩)이라고 하고, 같은 오행의 기운을 띄고 있지만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를 두고는 겁재(劫財)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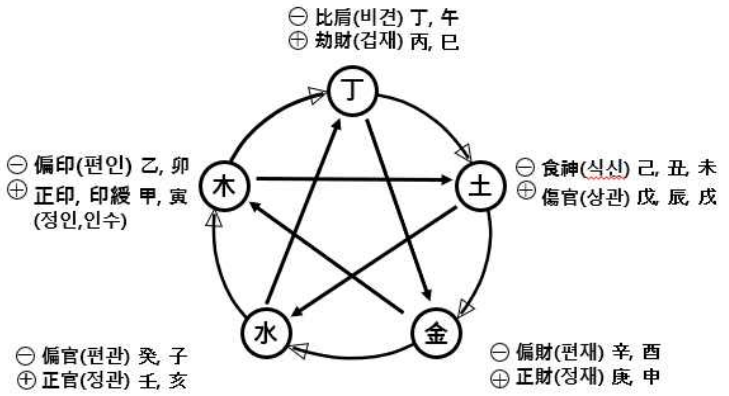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으나 土기운인 戊토와 지지의 辰· 戌토를 식신(食神)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 未토를 두고 상관(傷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金기운인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편재(偏財)라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이나 지지의 酉금을 두고 정재(正財)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水기운인 壬수와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를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본래는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음(陰)기운]를 두고 정관(正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木기운인 甲목과 지지의 乙목을 편인(偏印)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을 두고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라고 한다.

※ 十神 구분 丁火의 예



[그림 -24] 十神 구분 丁火의 예

[그림 -24]은 일간이 丁화일 때를 예로 들었다. 丙화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단지 음(陰)과 양(陽)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는 비견(比肩)이 되고, 같은 오행이지만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는 겁재(劫財)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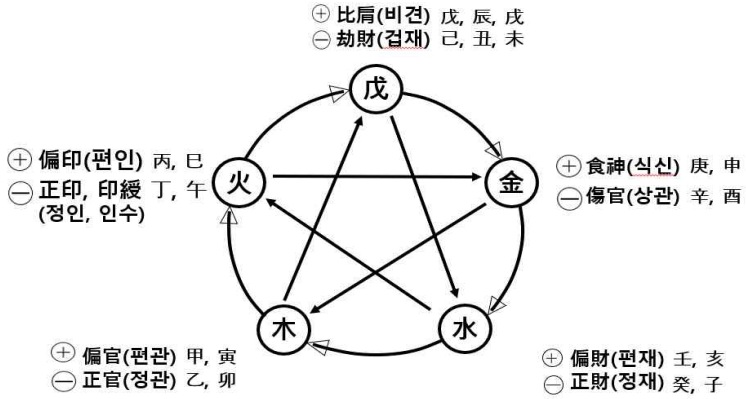
같은 음(陰)이면서 土기운인 己토와 지지의 丑· 未토는 식신(食神)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나 지지의 辰· 戌토는 상관(傷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金기운인 辛금과 지지의 酉금은 편재(偏財)가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이나 지지의 申금은 정재(正財)가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水기운인 癸수와 지지의 子수(子는 본래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음(陰)기운이라 음(陰)으로 읽는다]는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나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의 정기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는 정관(正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木기운인 乙목과 지지의 卯목은 편인(偏印)이 된다. 마찬가지로,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이나 지지의 寅목은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가 된다.

※ 十神 구분 戊土의 예



[그림 -25] 十神 구분 戊土의 예

[그림 -25]은 일간이 戊토일 때를 예로 들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이면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나 지지의 辰· 戌토를 비견(比肩)이라고 하고, 같은 오행의 기운을 띄고 있지만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 未토를 두고는 겁재(劫財)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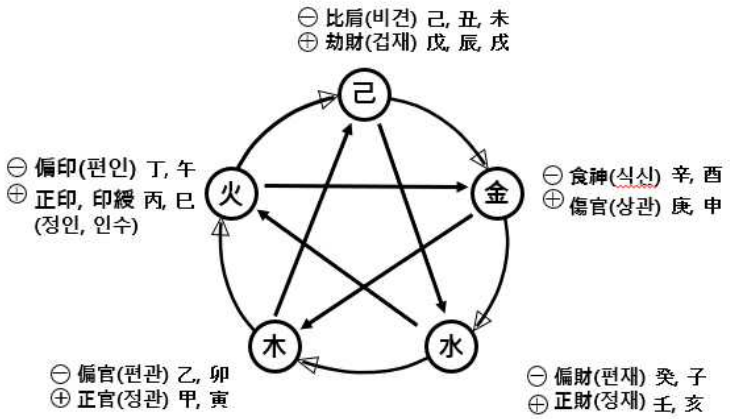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으나 金기운인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식신(食神)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이나 지지의 酉금을 두고 상관(傷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水기운인 壬수와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를 편재(偏財)라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본래는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음(陰)기운을 두고 정재(正財)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木기운인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을 두고 정관(正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火기운인 丙화나 지지의 巳화를 두고 편인(偏印)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를 두고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라고 한다.

※ 十神 구분 己土의 예



[그림 -26] 十神 구분 己土의 예

위 [그림 -26]은 일간이 己토일 때를 예로 들었다. 戊토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단지 음(陰)과 양(陽)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 未토는 비견(比肩)이 되고, 같은 오행이지만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나 지지의 辰· 戌토는 겁재(劫財)가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金기운인 辛금과 지지의 酉금은 식신(食神)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이나 지지의 申금은 상관(傷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水기운인 癸수와 지지의 子수[子는 본래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음(陰)기운이라 음(陰)으로 읽는다]는 편재(偏財)가 되고, 양(陽) 기운을 가진 壬수나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의 정기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는 정재(正財)가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木기운인 乙목과 지지의 卯목은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이나 지지의 寅목은 정관(正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火기운인 丁화와 지지의 午화는 편인(偏印)이 된다. 마찬가지로, 양(陽)의 기운을 가

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는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가 된다.

※ 十神 구분 庚金의 예

[그림 -27] 十神 구분 庚金의 예

위 [그림 -27]은 일간이 庚금일 때를 예로 들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이면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이나 지지의 申금을 비견(比肩)이라고 하고, 같은 오행의 기운을 띄고 있지만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이나 지지의 酉금을 두고는 겁재(劫財)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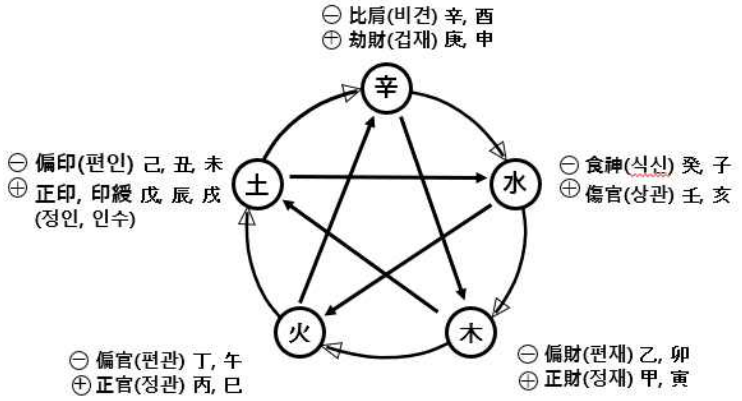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으나 水기운인 壬수와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를 식신(食神)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본래는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음(陰)기운]를 두고 상관(傷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木기운인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편재(偏財)라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을 두고 정재(正財)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火기운인 丙화와 지지의 巳화를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를 두고 정관(正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土기운인 戊토와 지지의 辰· 戌토를 두고 편인(偏印)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 未토를 두고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라고 한다.

※ 十神 구분 辛金의 예



[그림 -28] 十神 구분 庚金의 예

[그림 -28]은 일간이 辛금일 때를 예로 들었다. 庚금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단지 음(陰)과 양(陽)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이나 지지의 酉금은 비견(比肩)이 되고, 같은 오행이지만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이나 지지의 申금은 겁재(劫財)가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水기운인 癸수와 지지의 子수(子는 본래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음(陰)기운이라 음(陰)으로 읽는다]는 식신(食神)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나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의 정기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는 상관(傷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木기운인 乙목과 지지의 丑· 未토는 편인(偏印)이 되고, 양(陽) 기운을 가진 戊토나 지지의 辰· 戌토는 정인(正印)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火기운인 丁화와 지지의 午화는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는 정관(正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土기운인 己토와 지지의 丑· 未토는 편인(偏印)이 된다. 마찬가지로,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나 지지의 辰· 戌토는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가 된다.

※ 十神 구분 壬水의 예

[그림 -29] 十神 구분 壬水의 예

[그림 -29]는 일간이 壬수일 때를 예로 들었다. 그래서 같은 오행이면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나 지지의 亥수[亥는 본래 음(陰)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양(陽)기운이라 양(陽)으로 읽는다]를 비견(比肩)이라고 하고, 같은 오행의 기운을 띄고 있지만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본래는 양(陽)기운이었으나,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가 음(陰)기운]를 두고는 겁재(劫財)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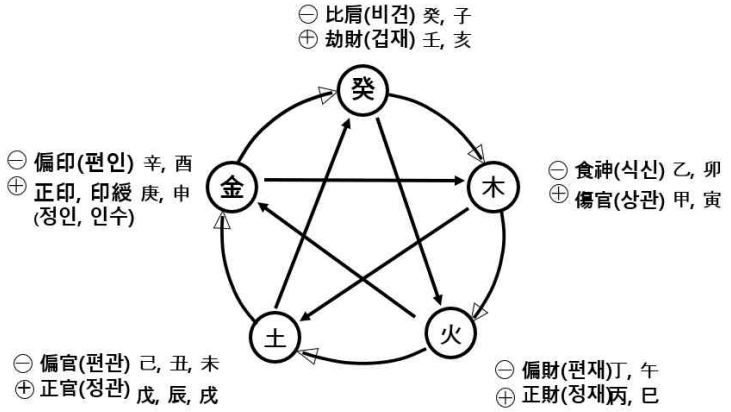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으나 木기운인 甲목이나 지지의 寅목을 식신(食神)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을 두고 상관(傷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火기운인 丙화와 지지의 巳화를 편재(偏財)라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를 두고 정재(正財)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土기운인 戊토와 지지의 辰· 戌토를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라고 하고,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 未토를 두고 정관(正官)이라고 한다.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졌고, 金기운인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편인(偏印)이라고 한다. 마찬가지로,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이나 지지의 酉금을 두고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라고 한다.

※ 十神 구분 癸水 예



[그림 -30] 十神 구분 癸水의 예

[그림 -30]은 일간이 癸수일 때를 예로 들었다. 壬수일 때와 똑같은 방식으로 접근을 하면 되는데, 단지 음(陰)과 양(陽)이 서로 자리를 바꿔서 앉아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는 비견(比肩)이 되고, 같은 오행이지만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나 지지의 亥수는 겁재(劫財)가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木기운인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은 식신(食神)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이나 지지의 寅목은 상관(傷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火기운인 丁화와 지지의 午화는 편재(偏財)가 되고, 양(陽) 기운을 가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는 정재(正財)가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土기운인 辛금과 지지의 丑· 未토는 편관(偏官) 또는 칠살(七殺)이 되고,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이나 지지의 辰· 戌토는 정관(正官)이 된다.

같은 음(陰)이면서 金기운인 辛금과 지지의 酉금은 편인(偏印)이 된다. 마찬가지로,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이나 지지의 申금은 정인(正印) 또는 인수(印綬)가 된다.

2) 十神의 心理 - 비견(比肩)

'어깨를 견준다.'는 뜻으로 어디서든 기죽고는 못 산다는 뜻이다. 대체로 할 말은 다 하는데 표시는 안 하지만 기갈이 아주 강한 사람이며 자기주장과 아집이 심하다고 할 정도로 강하다.

비견이 있으나 순하면 대체적으로 타인에 대한 관심이 적고 말 수가 적은 경우가 많으니 어딜 가든 신임을 얻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신약한데 비견이 없으면 주위의 덕을 보기가 어렵고 궁지에 몰렸을 때 타인의 도움을 받기 어렵다. 또한 줏대가 없어 보이고, 자존심을 제대로 드러내지 못하면서 속으로만 앓는 경우가 많다. - 이하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p.139-140

2) 十神의 心理 - 겁재(劫財)

겁재는 '재물을 겁탈당하다. 강탈당하다, 빼앗기다'라는 의미로 '내 재물을 빼앗아 가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당연히 주위사람의 덕이 없으며. 대체적으로 고집이 상당히 센 사람이 많다. 겁재가 왕성하면 남자는 부친과의 연이 없고, 부인을 구하기 어려우며 구하더라도 해로하기 어렵다. 여자는 부친 및 시어머니와 인연이 없다.

한편. 겁재 양인이면 그 정도가 더 심할 수가 있는데, 겁재의 성향이 더 크게 나타나는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나 겁재가 있으면 쉽게 좌절하지 않고. 어려움 속에서도 불굴의 기상과 강한 의지력을 드러내기도 하는 장점이 있다.

2) 十神의 心理 - 식신(食神)

성격이 낙천적인 사람이 대다수이며 예술성을 타고 났고. 식탐이 많다. 먹고 마시고 즐기기를 좋아하는데. 그래서인지 덩치가 큰 경우가 많다. 식신이 잘 발달된 사람은 사물과 사람을 정확히 가려내는 능력이 있어 잘잘못을 가리는 일이나 인력관리에 능통하다.

식신이 잘 발달된 사람들 중에는 조직을 관리하는 장이 많으며, 의외로 성세한 작업에서 그 진가를 발휘하기도 한다. 이와는 반대로 식신이 충(沖)이나 합(合)이 되면, 의외로 왜소한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편협되고 소견이 좁은 경우가 많다.

식신이 용신(用神)이거나 상신(相神) 또는 일지(日支)에 있으면 사려 깊고 정이 많아 교육계통, 종교계통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2) 十神의 心理 - 상관(傷官)

대체로 성격이 급하고 변덕이 심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많으며, 어딘지 모르게 타인을 무시하는 경향이 많다. 자존심은 말도 못하게 강한데, 거기에 반하여 의외로 인정이 많고 표현력이 대단히 뛰어나다.

외관상으로는 눈썹이 성기고 눈빛이 특이하게 빛나는데, 농담과 거짓에 능통하고 음식은 주로 생선과 두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많음을 볼 수가 있다.
상관격인 사람에게는 절대 자존심을 건드리면 안 된다. 아이 같은 면이 많아서 칭찬에 아주 약하고 익살스럽고 재미있기는 하지만, 자존심이 상하면 물. 불을 가리지 않는 특징이 있다. 그래서 예술인이나 군인 경찰들이 많고. 불/칼 같고 괴팍하고 변덕이 심한 사람들이 많다.

패기 있고 추진력이 있는 것은 좋으나 상관이 강하면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고, 말이 먼저 앞서고 실천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다. 그리고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여 이미지를 구기는 경우가 많으니 좀 더 신중해야 한다. 어떤 일을 하던지 추진력은 있으나 싫증을 잘 내고 끝 마무리가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은 단점도 있다.

2) 十神의 心理 - 편재(偏財)

장사꾼이나 사업가적 기질이 강한 사람에게서 자주 볼 수 있다. 시원시원하고 손이 큰 사람이 많은데, 기분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아 흥에 겨우면 자신의 기분에 도취되어 몫 돈을 쓰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재가 한 푼 두 푼 저축하여 모으는 돈이라면, 편재는 투자하여 크게 한몫을 벌거나 사업으로 재물을 벌어들이는 경우를 뜻하는데. 그래서인지 남녀 공히 화통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의 소유자가 많다.

그러나 신약한 경우에는 벌이에 비해서 씀씀이가 헤프고 허풍쟁이가 많으니, 배우자의 입장에선 불안하고 가정적으로도 안정되기가 어려운데 식신과 동주하면 더욱 더 그 성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편재가 비견에 극(剋) 당하면 남자의 경우 부친과 연이 없고, 여자의 경우 시아버지와 인연이 없고, 편재가 많으면 남자의 경우 여자관계가 복잡하고 여자의 경우 말썽 많은 집안에 시집가는 경우가 많다.

2) 十神의 心理 - 정재(正財)

정재는 성실하고 깔끔한 은행원과 같은 모습이다. 치밀하고 꼼꼼하고 깐깐하고 현실적이며 소심한 스타일이다. 또한 깔끔하고 따지기를 좋아하는데, 결벽증 같은 것이 있어 때로는 흠이 될 수가 있다.

사람도 가리는 스타일이라 아주 친한 사람이 아니면 자신의 속내를 절대 보이지 않으려 하고 쉽게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친한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소음인의 특성을 지녔는데. 오목조목한 경우가 많아 미녀, 미남이 많으며 알뜰하고 저축심이 강하다.

정재가 있으나, 식상이 없으면 주어진 임무는 잘 소화하나 창의력이나 융통성을 부리지 못한다. 정관이 없으면 일에는 능하나 진급에서 불리하고 위엄이 없는 흠이 있으며, 인성이 없으면 깔끔하고 치밀하여 실수가 없는 것 같으나 마지막 정리를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2) 十神의 心理 - 편관(偏官)

청렴, 결백, 원칙, 냉엄한 권위. 거짓을 잘 모르는 장점은 있지만 냉정한 사람이 많다. 편관격인 사람들은 직감이 발달되었고, 눈빛이 예리한 경우가 많다. 그리고 얼굴상이 불균형한 경우가 많으며. 성격이 편협이 된 경우도 많다.

일상에서 꿈이 잘 맞고. 예견이나 예측 등 직감이 발달되어 있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한 의료계통이나 회계. 성세한 작업이 필요한 설계, 수사 그리고 심리학이나 사주 명리학 등에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인간의 내면세계를 잘 살펴보려면 편관이 하나 정도 있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냉정하고 단호하기에 친한 사람과도 한 순간에 정리되는 등의 단점도 보이기 쉽다. 편관은 있으나 인성이 없는 경우에는 무술이나 운동선수에서 많이 볼 수가 있고. 더러운 꼴은 못 보는 성향이 있

으니 간혹 혼자 수도하는 사람이나 제3의학과 관련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도 많다.

2) 十神의 心理 - 정관(正官)

편관은 무인에, 정관은 문인에 비유한다. 사주 내에 정관이 있으면 형평에 맞는 원칙과 나름데로 융통성을 함께 겸비한 경우가 많다. 타인을 배려하는 따스한 마음과 형평에 맞는 정의감도 있으며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려는 원칙을 표방한다고 볼 수가 있다.

정관은 따스한 관리자라고 보면 되고, 남녀 공히 공명정대하며 인물이 좋은 사람이 많은데,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직업적으로는 공무원이나 전문 직업인이 가장 많고 사업을 하더라도 관공서와 연계된 경우가 가장 많다

그러나 정관만 있고 인성이 없으면 진급에서 누락되는 등 실력에 비해 인정을 받지 못하는 단점이 있을 수 있다.

2) 十神의 心理 - 편인(偏印)

잔머리꾼이 많고 모사(謀事)에 능한 경우가 많다. 성향은 악하거나 거칠지 않고 양반형이다. 하지만 사람을 알면 알수록 별로 친하고 싶지 않은 사람임을 느끼게 된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머릿속으로만 생각을 하고, 행동하기는 싫어하니 허황된 상상으로 가득한 게으름뱅이가 가장 많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창의력이나 상상력이 뛰어나니 지능이 우수한 경우가 가장 많다고 볼 수도 있다.

편인이 중중한 경우 대체적으로 조실부모하거나 부모덕이 없고. 종교계통에 심취한 경우가 많은데 남자의 경우 여러 사람이 함께하는 직업 보다는 개인적인 직업이 좋으며, 여자인 경우는 자식을 갖기 어렵던지 자식으로 인한 애로가 많고 외톨이로 지내는 경우가 많다.

2) 十神의 心理 - 인수(印受), 정인(正印)

엄마 같은 푸근함이 묻어나는 경우가 많다. 대체적으로 엄마, 선생님, 가르침. 보살핌 등이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많다. 조심스러우며 사려 깊은 면이 많고 위급한 상황에서도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나 인성이 너무 강하면 안하무인 타협불능이 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하지만 인수격인 사람은 믿음직한 모습이 있다는 장점도 있다. 상대적으로 거짓에 약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선천적으로 거짓과 농담을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여자가 인성이 너무 강하면 자식이 잘 생기지 않거나, 자식의 앞길을 막을 수가 있다.

2) 十神 구성에 결함이 있는 경우

① 비견, 겁재가 없는 경우 : 주체성과 리더십 부족하다.
② 식신과 상관이 없는 경우 : 융통성이 없어 재미가 없다. 여자 같으면 애교가 부족하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표현을 못하는 경우가 많다.
③ 재성이 없는 경우 : 현실적인 모습이 부족하고 생기는 능력이 부족하다. 식상의 쓸모를 잃으니 만사 계획만 하고 끝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남녀 공히 부친과의 연이 희박하고. 남자는 처와의 연도 희박하다.
④ 편관이나 정관이 없는 경우 : 직관력이 떨어져 예리함이 없고, 사람이나 사물의 깊이를 심도 있게 분석하는 면이 떨어진다.
⑤ 식상만 있고. 관이 없는 경우 : 자기중심적인 경우가 많아 예의가 없는 경우가 많고, 자유분방한 것을 좋아하니 소속감이 없는 경우가 많다.
⑥ 인성이 없는 경우 : 부모덕이 없는 경우가 가장 많고, 학문에 뜻이 없던지 학문길이 잘 막히고 글쓰기를 싫어하던지 잘 못하는 경우가 많다. 상상만 가득하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지니 용두사미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거절 등 자신의 생각을 제대로 표현 못해 속앓이 하는 경우가 많다.

명조 내에 상관, 편관, 편인이 함께 있는 경우 : 수사관, 감사관, 등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의사나 상담 전문가로도 적격이다.

제 7차시. 십신(十神)의 심리(心理) 특징

1) 성격 분석 순서

01. 일간(日干)의 음양(陰陽)을 확인한다.
▶ 일간(日干)은 명주(命主)이다. 양(陽)이면 외향적인 성격이고, 음(陰)이면 내향적인 성격이다.

02. 일간(日干)의 속성(屬性)을 확인한다.
▶ 일간(日干)이 甲목이냐? 乙목이냐? 丙화냐? 丁화냐? 戊토냐? 己토냐? 등에 따라 성격이 달리 나타난다. 이 내용은 일간에 따른 성격을 참조하면 된다.

03. 양(陽)이나 음(陰)으로만 구성된 경우인지를 확인한다.
▶ 양(陽)으로만 된 사주를 양팔통(陽八通)사주, 음(陰)으로만 된 사주를 음팔통(陰八通)사주라고 한다. 양팔통은 적극적이고, 화려한 것을 좋아하고, 구변이 좋다. 이에 반하여 음팔통은 소극적이고, 눈에 띄려고 하지 않고, 조용하다. 양팔통은 외향적이고, 음팔통은 내향적인 성격을 나타낸다.

04. 무(無) 즉 사주 내에 없거나, 너무 많은 십신(十神)을 확인한다.
▶ 사주 내에 없거나, 어느 특정한 오행의 십신(十神)이 너무 많으면 즉 과유불급(過猶不及 : 정도를 지나침은 모자라는 것과 같다는 뜻)이 되면 그 기운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이 된다.

05. 천간(天干)은 드러나는 성격. 지지(地支)는 숨겨진 성격이다.
▶ 천간(天干)은 동(動)하고, 지지는 정(靜)한다고 했다. 그래서 천간(天干)은 드러나는 성격이 되고, 지지(天干)는 숨겨진 성격이 된다.

06. 월지(月支)는 타고난 본성이다.
▶ 월지는 부모궁이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성격이라 타고난 본성이 된다.

07. 용신(用神)과 상신(相神)과 병(病)은 사회생활을 나타나는 성격이다.
▶ 용신은 삶의 도구이므로 활용하는 성격이고, 상신은 도움을 받는 성격이며, 병은 잘못된 성격이다.

08. 일지(日支)는 모든 일을 결정하는 심리를 포함하고 있다.
▶ 일지는 일간 즉 명주와 함께하고 있으며, 배우자궁이므로 일지가 바로 최종 결정하는 심리가 된다.

09. 시간지(時干支)는 일지(日支) 즉 결정을 하는데,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성격이다.
▶ 일(日)은 체(體)이고 시(時)는 용(用)이다. 그러므로 시간지는 일지의 결정에 보조역할을 한다.

10. 대운(大運)의 방(方)은 변화하는 성격이다.
▶ 방(方)은 운(運)의 흐름이므로 명주의 성격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 시가 헛갈릴 때: 시지(時支)와 시간(時干) 즉 시주(時柱)의 성격으로 파악하면 정확하다.

2) 일간(日干) 왕쇠(旺衰)에 따른 심리

旺	衰
1. 자신만만 2. 자기위주 3. 지도능력 4. 정신강건 5. 화합저하 6. 솔선수범	1. 주위의식 2. 규칙준수 3. 화합위주 4. 소심안정 5. 피해의식 6. 도움요청

[표 -16] 일간(日干) 왕쇠(旺衰)에 따른 심리

일간(日干=命主)이 왕(旺)하다는 것은 일단 **월지(月支)**가 비견이나 겁재 또는 양인이 되거나, **지지(地支)에 일간(日干)의 근(根)이 여러 군데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외에 사주 본명(本命)의 지지(地支)에 일간(日干)을 생조(生助)해 주는 **인(印)이 많아도 일간(日干)이 왕(旺)해진다**. 반대로 월지(月支)가 비견이나 겁재 또는 양인이나 인(印)이 아니고, 사주 본명(本命)의 지지(日干)에 비견이나 겁재 또는 인(印)이 없는 경우 쇠(衰)하다고 한다.

일간(日干)이 왕(旺)하면 에너지가 왕성하고 기갈이 센 사람이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매사에 자신만만하고, 자기위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남들 앞에 서서 타인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도력을 갖추고 있고 또한 솔선수범하여 타인을 모범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래서인지 육체와 정신이 강건하고 일반적으로 장수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사회생활을 주로 하는 남자의 경우는 일간(日干)이 왕(旺)한 것이 좋다고 했다. 그래야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신감 있고, 당당하게 자기의 주장을 펼치면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현대에 와서는 여자들도 사회생활을 많이 하므로 활동력이 요구되는 직업을 가진 여성이라면 일간의 기운이 왕(旺)한 것이 역시 좋다.

그러나 일장일단이 있듯이 일간(日干)이 왕(旺)하다 보면 이로 인한 문제도 있게 마련이다. 일간(日干)이 왕(旺)하다 보니 남들에게 지고는 살지 못하고, 또한 타인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듣는 스타일이 되지 못한다. 이런 문제 때문에 조직에서 화합을 저해하고 상사의 지시에 불응하여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일은 친구나 지인과의 관계에서도 문제가 되는데, 학창시절 친구들과의 불화로 다툼을 자주 일으키는 학생들 역시 사주가 왕(旺)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간(日干)이 쇠(衰)하다는 것은 일단 사주 본명(本命)의 지지(地支)에 일간(日干)의 뿌리가 되는 비견이나 겁재 또는 인(印)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리고 12운성(運星) 상 쇠·병·사·묘·절(衰·病·死·墓·絶)에 해당하는 경우도 이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일간(日干)이 뿌리가 미약하여 쇠(衰)한 경우의 명주(命主)들은 대체로 몸과 마음이 약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음이 약하다보니 남들의 눈치를 많이 보는 편이다. 그래서 대체로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내가 이렇게 한다면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사에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하지 않고, 정해진 법이나 규칙에 맞게 행동하려는 성향도 강하다.

독단적으로 일을 처리하는 것보다는 타인들과 힘을 합해서 뭔가를 하려는 심리가 강하여 모든 일에 화합을 하려고 하며 다투려고 하지 않고, 다투기를 싫어한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소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심리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변화보다는 안정을 추구한다. 일간(日干)이 쇠(衰)하면 마음이 약하기 때문에 피해의식도 강하다. 또한 어려울 때마다 부모님이나 형제 또는 주위의 지인들이 어려운 문제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강하다.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의지하려는 심리가 강하다.

3) 비견(比肩)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평등 2. 협동 3. 발전(경쟁) 4. 자체의식 5. 인덕(人德)	1. 無禮(무례) 2. 손해(이익분배) 3. 극단적 4. 독불장군 5. 자각부족(현실)

[표 -17] 비견(比肩)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비견(比肩)의 심리는 일간(日干)과 음양(陰陽)과 오행(五行)이 같으므로 타인을 보더라도 자신과 동격(同格)이라는 의식이 강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동격(同格)의 의식은 좋은 경우도 있고, 나쁜 경우도 있다. 격의 없이 지내야 할 때는 도움이 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수직적인 사회 구조에서는 이러한 사고방식이 자칫 무례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이다. 비견(比肩)의 심리 속에는 모두 평등하다는 의식이 깔려 있다.

그리고 같은 류의 사람이 함께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협동도 포함을 하고 있다. 건강한 라이벌 의식은 상호 발전을 지향하게 만드는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기도 한다. 또한, 비견(比肩)은 명주(命主) 자신이거나 같다는 의미와 같으므로 주체의식이 강하다는 뜻도 내포하고 있다. 이외에 비견(比肩)은 같은 무리가 있는 것이므로, 공동체의식도 포함이 될 있어 인화의식(人和意識)도 강하게 드러난다.

4) 겁재(劫財)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목표의식 2. 도전정신 3. 자기보호 4. 근면성실 5. 급속발전	1. 과욕 2. 오만독선 3. 이기주의 4. 외곬수 5. 급속퇴보

[표 -18] 겁재(劫財)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겁재(劫財)의 심리를 단적으로 표현한다면 ‘도둑놈 심보’나 ‘욕심쟁이’ 또는 ‘옹고집쟁이’가 될 것이다. 재물을 빼앗고자 하는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당연히 ‘욕심’이라는 단어가 포함이 된다. 그래서 사주에 겁재(劫財)가 있는 사람은 고집이 세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과욕을 부리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그러나 겁재(劫財)가 흉신(凶神)이지만 장점도 많다. 우선 사주에 겁재(劫財)가 있으면 무엇을 하겠다는 목표의식이 분명하다.

욕심을 좋은 방향에서 보면, 야심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도전정신도 겁재(劫財)인 것이다. 만약 산악인이나 탐험가를 꿈꾼다면 명조에 겁재(劫財)가 있는지를 유심히 살필 필요가 있다. 겁재(劫財)의 또 다른 장점은 자기 자신을 지키는 능력이 있다는 점이다. 고집이 세다는 것을 다른 방향으로 보면 주관과 자기주장이 분명하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이루고자 하는 욕망 때문에 언제나 목표를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겁재(劫財)의 장점이다. 겁재의 욕심이 장점으로 나타날 때는 갑작스런 재물을 취하는 경우이다. 욕심이 많아 적당한 부(富)에 만족하지 않고, 끝없이 노력하여 큰 재물을 갖게 되기 때문이다.

5) 식신(食神)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낙천적	1. 무사안일
2. 성실	2. 비효율
3. 배려	3. 무관심
4. 지구력	4. 저속
5. 보호본능	5. 악감정지속

[표 -19] 식신(食神)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길신(吉神)의 역할에서는 위상이 떨어지지만 식신(食神)은 인간 생활의 3대 기본 요소 가운데 하나에 속한다. 그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식신(食神)이라 할 수 있다. 인간에게 먹을 것이 없다면 생명을 존속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식신(食神)은 ‘食福’이라는 우리의 정서와도 연결이 있으며, 아쉬울 것이 없는 ‘낙천적인 성격’을 나타내기도 한다.

변함없는 성실함과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역시 식신(食神)의 심리 가운데 하나이다. 상담을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 사주 간명(看命)을 했을 때 대학교로 진학하는 학생들에게 있어 세운(歲運)이 식신(食神)으로 흐르게 되면, 먹는 것이나 보호와 연관이 있는 식품영양학과나 사회복지학과로의 진학을 하려고 하는 데 이 역시 식신(食神)이 가진 기운의 작용에 의해서임을 알 수 있다. 또 식신(食神)의 꾸준함은 지구력을 요하는 경우에 탁월하게 나타기도 한다. 그리고 타인의 배려와 봉사 및 모성애가 가진 보호본능과도 연관이 있다.

6) 상관(傷神)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임기응변	1. 변덕, 질투
2. 창작모방	2. 싫증, 무책임
3. 실행력	3. 실수연발
4. 패기	4. 조직파괴
5. 감정풍부	5. 악감정지속

[표 -20] 상관(傷官)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상관(傷官)의 심리를 한마디로 한다면 파격적(破格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만큼 傷官은 영혼이 자유롭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거칠 것이 없는 자유분방한 성격을 그대로 드러낸다. 매사에 망설이는 일이 없으며 마음이 동(動)하는 대로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으며 대체로 즉흥적으로 행동한다. 그러면서 변덕이 죽 끓듯 한다.

상관(傷官)의 심리 가운데 장점은 임기응변에 능하고, 모방과 창작에 뛰어나며 실행력과 실천력에 있어서는 따를 기운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패기가 있어 생동감이 넘치며 순발력과 스피드가 대단히 뛰어나다. 이외에 항상 유쾌하면서 유머러스하여, 인정이 많아서 놀랄 정도의 큰 적선(積善)을 하는 경우가 많다.

상관(傷官)의 심리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많다. 자유로운 영혼이라 변덕과 질투가 심하며, 아래 위가 없이 무례하다는 말을 어디에서나 듣게 된다. 싫증과 변덕이 죽 끓듯이 하고, 무책임하며 급한 심리 때문에 실수를 연발한다. 거짓말과 호언장담을 잘하며, 조직을 파괴하고 잘못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다. 욕을 잘하고, 언행이 불손하며, 법이나 규칙을 어기는 것을 우습게 안다.

7) 편재(偏財)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능수능란	1. 변심
2. 신속판단	2. 과오(실수)
3. 大財욕망	3. 재앙(과욕)
4. 실리추구	4. 인간미 상실
5. 시원, 화통	5. 허세, 허풍

[표 -21] 편재(偏財)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편재(偏財)는 '치우친 재물'이라는 뜻이 있으므로 정해진 것이나 저축을 하여 모은 재산과는 차이가 있다. 오히려 일확천금이나 사업을 하여 한꺼번에 큰 재물을 벌어들인 것과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正財가 가진 치밀하고 꼼꼼하고, 깐깐하고, 따지기 좋아하며 현실적이면서 소심한 것과는 반대의 성향을 나타낸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다분히 사업가의 기질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바로 편재(偏財)이다. 시원하고 화통한 사업가의 기질에 맞게 어느 자리에 가더라도 능수능란하고, 이익과 손해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므로 판단력과 결단력이 뛰어나다. 그러면서도 실리추구를 게을리 하지 않으며, 한꺼번에 큰 재물을 벌고자 하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는 형이다. 그러나 단점도 있는데, 이익을 쫓다보니 변심도 하게 되고, 판단을 잘못하여 크나큰 과오를 저지를 수도 있다. 또한 이익을 추구하다 보면 인간적인 면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고, 별로 가진 것이 없으면서도 많이 가진 부자인 것처럼 말과 행동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것이 모두 편재(偏財)의 장·단점에 속한다.

8) 정재(正財)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현실주의 2. 치밀 3. 정확 4. 무결점 5. 정리정돈	1. 소심 2. 근심 3. 安住(발전저하) 4. 결벽증 5. 불신

[표 -22] 정재(正財)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정재(正財)는 은행원에 비유하기도 하는데, 당연히 심리도 정확하고, 치밀하고, 꼼꼼하고, 현실적이고, 계산적이면서 깔끔한 것과 연관이 있다. 단점으로는 따지기를 좋아하고, 소심하며, 근심이 많고, 결벽증이 있으며 과감하질 못하므로 앞으로 나아가는 것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 안주하고자 하는 성향을 자주 보인다는 점이다.

이러한 정재(正財)의 심리는 숫자와 계산과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수학이나 데이터베이스 또는 통계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모든 십신(十神)의 正·偏은 양날의 검과 같이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데, 편재(偏財)와 정재(正財) 역시 이로운 점과 해로운 점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둘은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상호보완을 해야 하는 관계에 있다.

9) 편관(偏官)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직감, 기억 2. 예리함 3. 냉철	1. 난제 봉착 2. 잔인 3. 냉정

4. 청렴	4. 포용력 부재
5. 인내	5. 살기(殺氣)

[표 -23] 편관(偏官)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칠살(七殺)의 심리는 살(殺) 또는 살(煞)의 의미 그대로 죽음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죽음, 고통, 아픔, 수술, 난제, 적 등 조금 무섭거나 살벌한 이미지에 맞는 냉정하고 냉혹한 심리를 나타낸다. 또한 七殺이 가진 정곡을 찌르는 예리함을 다른 기운들이 따를 수가 없다. 그래서 장점으로는 직관력과 기억력 그리고 예리함이다. 꿈이 현실과 잘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이 많은데, 대체로 사주에 살(殺)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세월이 흘렀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에 일들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역시 사주에 살(殺)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七殺이 있으면 영적인 감각과 냉철함과 위엄이 있다. 그래서 살(殺)을 가진 사람들이 직업을 구할 때 역술이나 사학계 또는 의료계나 검찰 또는 경찰이나 군인을 꼽는데,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기운을 가졌기 때문이다. 이외에 살(殺)의 장점으로는 고통을 참아내는 인내력이 있고, 깊은 통찰력을 갖추었으며, 거짓을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체로 살(殺)을 쓰는 사람들이다.

10) 정관(正官)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공명정대	1. 융통성 결여
2. 언행일치	2. 자기번민
3. 원리원칙	3. 복지부동
4. 정의추구	4. 주위의식
5. 절대신임	5. 패배주의

[표 -24] 정관(正官)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정관(正官)의 심리는 관료(官僚)들을 연상하면 될 것이다. ‘바를 정’에 ‘벼슬 관’이니 ‘올바른 관료’라고 해도 될 것이다. “살(殺)을 무관(武官)으로 본다면 정관(正官)은 문관(文官)이다.”라는 말이 있다. 이 말이 뜻하는 바가 바로 正官을 잘 나타내는 말이다. 그래서 모든 일에 원리원칙에 근거하여 공명정대하게 사회정의를 구현하며, 언행이 일치하여 국민들이나 상사들로부터 절대적인 신임을 얻는 것 이것이 바로 정관(正官)의 심리의 장점들이다. 한마디로 어느 자리 어느 모임에 가더라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며, 옳지 않은 일을 하거나 말과 행동 등을 함부로 하지 않아 ‘사회의 모범이 되는 사람’ 또는 ‘공무원’이 바로 현대적 의미의 정관(正官)의 심리이다.

정관(正官)의 심리의 단점은 매사에 원리원칙(原理原則)으로 행동을 하다 보니 융통성이 없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또한 공명정대(公明正大)하지만 ‘자신만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진다. 이외에 복지부동(伏地不動)하는 경우가 많다. 말과 행동에서 실수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주위의식을 너무 많이 하는 경향이 있는 심리 역시 정관(正官)에 있다.

(출처: 유승미,「十神의 性情과 六親을 활용한 吉凶格의 看命入式 硏究」,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2019.)

11) 편인(偏印)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논리적 2. 심사숙고 3. 신비주의 4. 경청능력 5. 철학적 사고	1. 의심증 2. 술수, 모사(謨事) 3. 공상, 망상 4. 결정지연 5. 신뢰감 결여

[표 -25] 편인(偏印)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편인(偏印)은 심리는 우선 정인(正印)에 비해 사고적이면서도 논리적이다. 그래서 생각이 깊고, 신비적인 면에 관심이 많고, 남의 말을 끈기 있게 잘 들어주며 철학적 사고를 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러한 차이점 때문인지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역시 수용과 의심이다.”라고 말하는 학자들이 많다. 정인(正印)은 육친(六親)에서 모친에 해당이 된다. 당연히 어머니의 심정으로 자식의 말을 들어주듯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상대방을 말이나 행동 등을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선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잘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타인에게 절대 해를 끼치지 않고, 사람의 도리에 충실하고자 하며 착하게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에 비하여 편인(偏印)은 의심이 많은 점이 흠이다. 타인의 말을 듣기는 하지만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믿음을 갖기가 어렵다. 그래서 “편인(偏印)을 두고 잔 머리꾼이나 모사꾼이다.”라고도 한다.

12) 정인(正印)의 심리(心理)

장점	단점
1. 보수적 2. 안정추구 3. 도덕적 4. 맹목적 신뢰 5. 교육지향	1. 무력 2. 혁신성 결여 3. 융통성 결여 4. 잦은 사기 5. 잦은 간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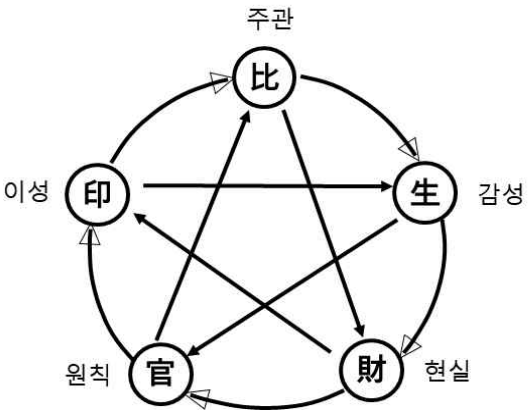
[표 -26] 정인(正印) 심리(心理)의 장점과 단점

정인(正印)의 심리는 단적으로 전형적인 보수의 성향을 띄고 있다. 그래서 변화보다는 안정을 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도덕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한다. 正印에는 인간의 도리라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이 지켜야 할 덕목이 무엇인가하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고, 그것에서 벗어나는 일을 상당히 싫어한다. 이것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에게 모두 적용을 하는 습성이 있다.

부당하거나 위법적인 일이 아니라면 일단 그 내용을 수긍하고 절대적인 지지를 해 주는 성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현대 사회의 보수 성향을 가진 유권자들이 보이는 행태와 다름이 없다. 이외에 정인(正印)은 학문과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그러나 이런 정인(正印)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정인(正印)이 가진 단점 또한 많다. 우선 혁신적이지 못하므로 무기력하고, 융통성과 애교가 없고, 남의 말을 너무 믿는 습성과 낯선 상대에게도 무턱대고 가르치려는 성향을 보이는 점 등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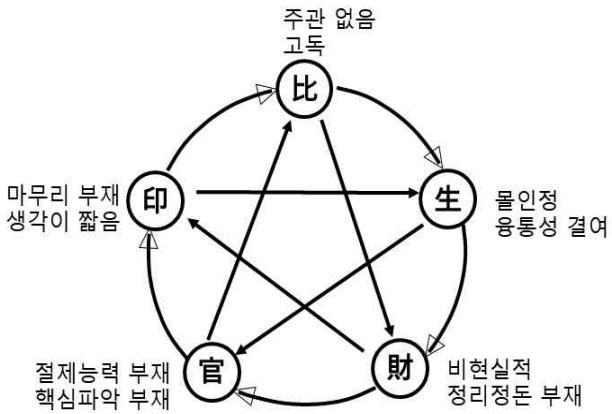
13) 성격 분석 -개념



[그림 -31] 오행도(五行圖)에 따른 성격 분석 - 개념

비견(比肩)과 겁재(劫財)는 일간(日干) 즉 명주(命主)나 명주(命主)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사주에 비겁(比劫) 있다는 것은 주관적이고, 줏대가 있다는 뜻이 된다.
식신(食神)과 상관(傷官) 그래서 식상(食傷)은 일간(日干)이 생(生)하는 기운이라 명주(命主)가 가진 생각이나 행동 들을 나타내므로 명주(命主)의 감성과 연관이 있다. 융통성도 된다.
재(財)는 재물이라 현실적으로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으며 명주(命主)가 쟁취하고자 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그래서 사주에 재(財)가 없으면 현실성이 부족하게 된다.
관(官)은 일간(日干)을 극(剋)하는 것으로, 명주(命主)를 억압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법이나 규칙들이 관(官)에 속한다. 이 때문에 사주에 관(官)이 없으면 원칙이 없거나 지키지 않는 사람이 된다.
인(印)은 일간(日干)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명주(命主)가 갖고자 하는 것과 생각하고(이성), 공부하고, 습득하는 학습과 연관이 있다. 그러므로 사주에 인(印)이 없으면 생각하는 능력이 부족하다. 이는 [그림 -31]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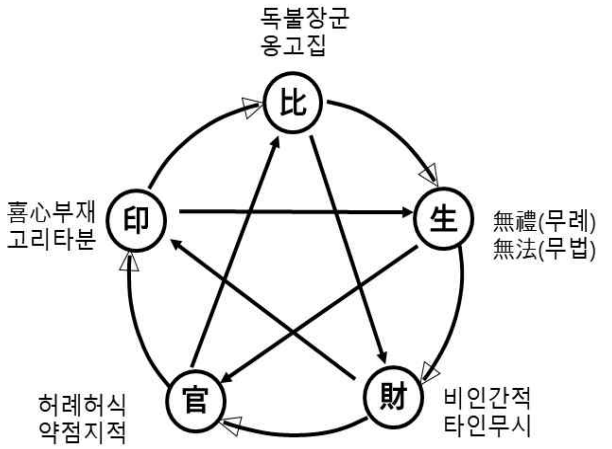
14) 성격 분석 -부재의 단점



[그림 -32] 오행도(五行圖)에 따른 성격 분석- 부재의 단점

사주(四柱)에 비겁(比劫)이 없으면 줏대가 없고, 형제나 친구 및 동료들이 없어 고독하게 된다.
사주(四柱)에 식상(食傷)이 없으면 융통성이 없고, 감성이 없어 인정을 베풀지 못한다.
사주(四柱)에 재(財)가 없으면 비현실적이고, 정리정돈 및 갖고자 하는 것을 취하지 못한다.
사주(四柱)에 관(官)이 없으면, 카리스마가 없고, 절제를 못하며, 핵심 파악에 약하여 장황하다.
사주(四柱)에 인(印)이 없으면, 깊이 생각을 못하고 마지막 정리를 깔끔하게 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15) 성격 분석 -과다의 단점



[그림 -32] 오행도(五行圖)에 따른 성격 분석 - 과다의 단점

사주(四柱)에 비겁(比劫)이 너무 많으면, 자기주장이 강하여 독불장군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또한 남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여 이기적이고 고집이 센 것이 단점이다. 남자의 경우 사주(四柱)에 비겁(比劫)이 많으면, 부친과 여자와 돈과 인연이 없으며, 재(財)를 극하는 기운이 많으므

로 현실성이 결여된 경우가 대부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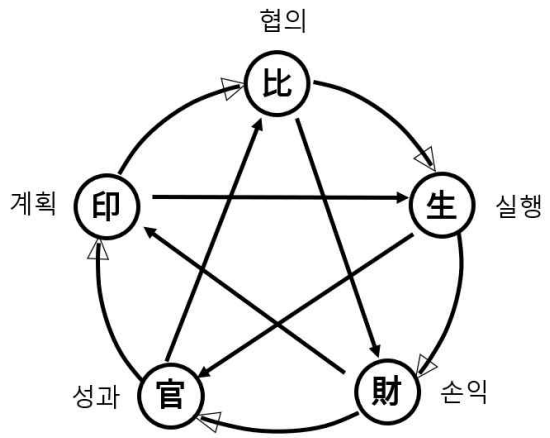
사주(四柱)에 식상(食傷)이 너무 많으면 대단히 감정적으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래서 자기 기분에 따라 말과 행동이 완전하게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식상(食傷)은 관(官) 즉 법이나 규칙을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하거나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들을 자주 한다.
사주(四柱)에 재(財)가 너무 많으면 현실적인 이익만을 추구하는 경우가 많고, 물질에 약하기 때문에 비인간적이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재(財)는 인(印)을 극하는 위치에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또한 재(財)가 너무 많으면 못사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경우도 있다.

사주(四柱)에 관(官)이 너무 많으면, 자신의 형편은 고려하지 않고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볼까 두려워 허례허식을 일삼는 경우가 많다. 없어도 모양이 나고 그럴까하게 보여야 만족을 한다. 그리고 관(官)이 너무 많으면, 일간(日干)을 극(剋)하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지적을 잘하는 습성이 있다.

사주(四柱)에 인(印)이 너무 많으면, 너무 많은 생각과 사람들만 만나면 사람의 도리를 말하고 가르치려 들기 때문에 고리타분하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된다. 그리고 식상(食傷)을 극(剋)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고, 타인들을 도와주려는 좋은 마음을 갖기 어렵다, 인(印)은 명주(命主)의 입장에서 보면 가져 오거나 입력(入力)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주에 인(印)이 너무 많으면, 출력(出力) 즉 타인을 위한 돕거나 배려하는 마음이 없고, 측은지심(惻隱之心) 또한 갖기 어렵다.

(출처: 유승미,「十神의 性情과 六親을 활용한 吉凶格의 看命入式 硏究」, 공주대 석사청구논문, 2019.)

16) 성격 분석 -속성



인(印)은 일간을 생(生)하므로 타인의 말을 들어주고, 보호받고, 가져오고, 인정을 베푼다.

식상(食傷)은 일간이 생(生)하므로 전해 주고, 베풀고, 행동하는 것이다.

재(財)는 일간이 일간(剋)하므로 획득하고, 때리고, 힘들게 하고, 공격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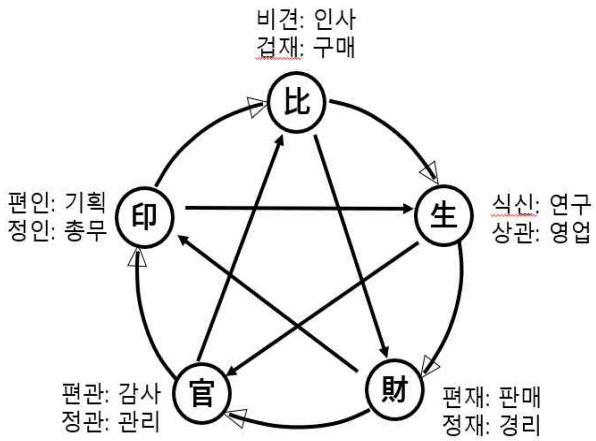
관살(官殺)은 일간을 극(剋)하므로 빼앗기고, 얻어맞고, 어려워지고, 공격을 당하는 것이다.

[표 -27] 오행도(五行圖)에 따른 성격 분석 - 속성

어떠한 일을 추진한다고 했을 때
인(印)은 생각이므로, 인(印)이 있어야 계획하고 준비하며, 마감도 제대로 할 수 있게 된다.
비겁(比劫)은 동료이므로, 비겁(比劫)이 있어야 다른 사람들과 협의를 제대로 이끌어 낼 수 있게 된다.

식상(食傷)은 언행이므로, 식상(食傷)이 있어야 일을 하는데 있어, 시작을 쉽게 할 수 있게 된다.
재(財)는 현실이므로, 재(財)가 있어야 이익이 되는지, 손해가 나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 있다.
관(官)은 규칙이므로, 관(官)이 있어야 목표를 정확하게 하여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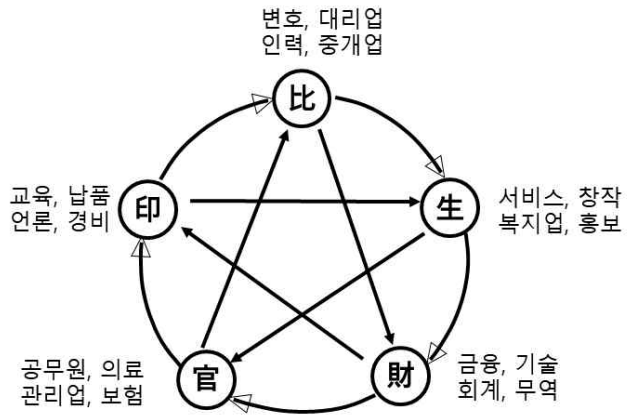
17) 성격 분석 -업무 적성



[그림 -33] 오행도(五行圖)에 따른 성격 분석 - 업무 적성

용신(用神)을 바탕으로 업무적성과 연관시켜 보면
비견(比肩)은 평등이라 인사과에, 겁재(劫財)는 욕심이라 구매과에 적합하다.
식신(食神)은 꾸준함이라 연구실에, 상관(傷官)은 기발함이라 영업이나 개발실이 적합하다.
편재(偏財)는 사업이라 판매과에, 정재(正財)는 꼼꼼함이라 경리과에 적합하다
칠살(七殺)은 예리함이라 감사과에, 정관(正官)은 공명정대라 관리과에 적합하다.
편인(偏印)은 잔머리라 기획실에, 정인(正印)은 올곧으니 총무과에 적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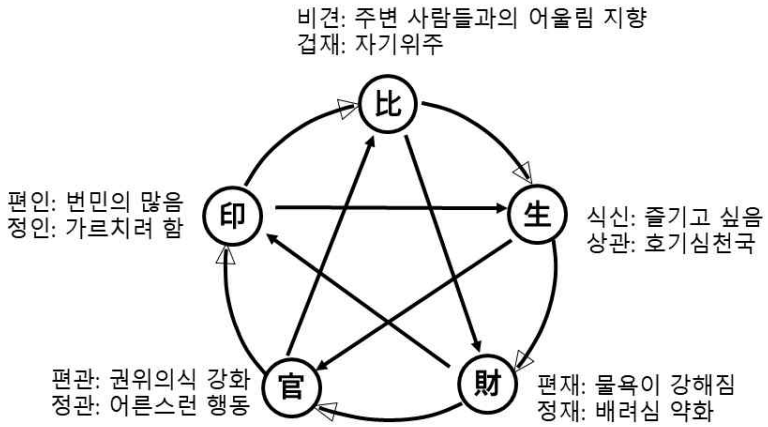
18) 성격 분석 - 직업 적성



[그림 -34] 오행도(五行圖)에 따른 성격 분석 - 직업 적성

용신(用神)을 바탕으로 직업적성과 연관시켜 보면
비견(比肩)은 평등이라 변호나 대리업에, 겁재(劫財)는 욕심이라 인력이나 중개업에 적합하다.
식신(食神)은 꾸준함이라 서비스나 복지에, 상관(傷官)은 기발함이라 창작이나 홍보에 적합하다.
편재(偏財)는 사업이라 금융과 무역에, 정재(正財)는 꼼꼼함이라 기술과 회계에 적합하다
칠살(七殺)은 죽음이라 의료나 보험에, 정관(正官)은 공명정대라 공무원과 관리업에 적합하다.
편인(偏印)은 잔머리라 납품과 언론에, 정인(正印)은 보호와 육성이라 교육과 경비에 적합하다.

19) 성격 분석 - 운에 의한 성향



[그림 -35] 오행도(五行圖)에 따른 성격 분석 - 운에 의한 성향

비견(比肩)은 평등이라 어울리기 좋아하고, 겁재(劫財)는 욕심이라 자기 욕심과 고집만 가득하다.
식신(食神)은 풍요라 놀기를 좋아하고, 상관(傷官)은 호기심이라 어린애 같은 성정을 갖고 있다.
편재(偏財)는 사업이라 물욕이 강하고, 정재(正財)는 깔끔함과 따짐이라 배려심이 적다
칠살(七殺)은 극단이라 의료나 권위적이고, 정관(正官)은 공명정대라 어른스럽게 보이려고 한다.
편인(偏印)은 잔머리라 번민이 많고, 정인(正印)은 보호와 육성이라 누구에게든 가르치려고 든다.

(이상 7차시의 출처 : 전정훈, 『자평진전강해2』,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동양학과, 2014에서 발췌했음)

제 8차시. 육친(六親)의 구분(區分)과 심리(心理)

1) 육친(六親)이란?

육친(六親)은 부(父) • 모(母) • 형(兄) • 제(弟) • 처(妻) • 자(子) 로 일간(日干), 즉 명주(命主)를 중심으로 한 직계가족 여섯을 뜻한다. 이것만이 아니라 확대 해석을 하면. 명주 (命主)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 모두를 나타낸다. 여자의 경우는 부(父) • 모(母) • 자(姉) • 매(妹) 부(夫) • 자(子)가 된다.

일반적으로 인간관계에 있어 덕(德)을 이야기할 때. 인덕이 있고 없고, 조상 덕이 있고 없고, 부모덕이 있고 없고, 자식 덕이 있고 없고, 상사 덕이 있고 없고, 부하 덕이 있고 없고 등의 말을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육친(六親)과 직접 연관이 있다.

궁(宮)과 비교를 하면, 지지(地支)는 일단 월지(月支)를 중심으로 하여 성패(成敗)를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월지(月支)와의 관계를 고려한 각 궁(宮)에 있는 십신(十神)끼리의 성패(成敗)가 우선이고, 그 다음 성(星) 즉 육친(六親)을 고려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간명(看命)을 해 보면 각 궁(宮)에는 큰 문제가 없으나, 육친적(六親的)으로는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궁(宮)에만 매달리는 간명(宮)만을 해서는 안 된다.

2) 육친(六親)의 구분 - 육친(六親) 분류

比我者 兄弟 나와 같은 자는 형제이다	比肩. 劫財
我生者 子孫 내가 낳은 자는 자손이다	食神. 傷官
我剋者 妻財 내가 극하는 자는 처와 재이다	正財. 偏財
剋我者 官鬼 나를 극하는 것은 관귀다	正官. 偏官
生我者 父母 나를 낳아준 사람은 부모다	偏印. 正印

[표 -28] 육친(六親)의 구분표

비아자 형제(比我者 兄弟)라고 했다. 비(比)는 '견줄 비' 이다. 아(我)는 '나 아' 이다. 자(者)는 '~하는 것' 이다. 그래서 비아자(比我者)는 나와 같은 것은 형제(兄弟) 즉 형이고, 아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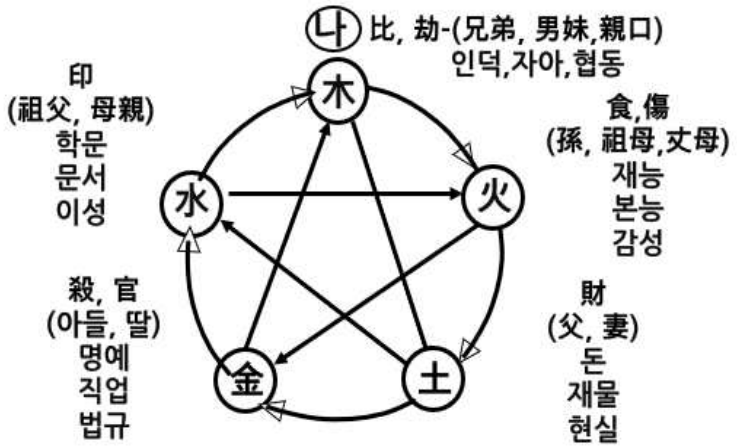
아생자 자손(我生者 子孫)라고 했다. 아(我)는 '나 아' 이다. 생(生)은 '날 생' 이다. 자(者)는 '~하는 것' 이다. 그래서 아생자(我生者)는 내가 낳은 것은 자손(子孫) 즉 자식이 된다.

아극자 처재(我剋者 妻財)라고 했다. 아(我)는 '나 아' 이다. 극(剋)은 '이길 극' 이다. 자(者)는 '~하는 것' 이다. 그래서 아극자(我剋者)는 내가 이기는 것은 처재(妻財) 즉 처와 재물이 된다.

극아자 관귀(剋我者 官鬼)라고 했다. 극(剋)은 '이길 극' 이다. 아(我)는 '나 아' 이다. 자(者)는 '~하는 것' 이다. 그래서 극아자(剋我者)는 나를 극하는 것은 관귀(官鬼) 즉 벼슬과 귀신이 된다.

생아자 형제(生我者 父母)라고 했다. 생(生)은 '날 생' 이다. 아(我)는 '나 아' 이다. 자(者)는 '~하는 것' 이다. 그래서 생아자(生我者)는 나를 낳은 사람은 부모(父母) 즉 아버지, 어머니가 된다.

3) 육친(六親)의 구분 - 木 日干 男子의 六親



[그림 -36] 木 일간(日干)의 남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은 나(我)을 뜻하므로 일간(日干)과 같은 기운인 비견(比肩)이나 겁재(劫財)는 형제나 동료 친구 등에 해당이 되는데, 음양(陰陽)이 다를 때에는 남매나 성별(性別)이 다른 동료가 된다. 비견과 겁재를 줄여서 주로 비겁(比劫)이라고 한다.

남자나 여자의 경우 모두 해당이 되지만 음양(陰陽)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性別)이 다른 육친(六親)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치에 따라 차근차근 이해를 해 나가면 된다.

일간(日干)이 생(生)하는 기운인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되고,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를 생하는 기운이 되므로 장모나 아랫사람이 된다. 식신과 상관을 줄여서 식상(食傷)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재(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이므로 남자의 입장에서는 부친이나 부인 또는 외간 여자가 해당이 되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나타내는 관(官)을 생(生)하는 꼴이 되므로 시모(媤母)가 되는 것이다. 편재(偏財)와 정재(正財)를 줄여서 주로 재(財)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정관(正官)과 편관(偏官)은 일간(日干)을 극(剋)하는 기운이므로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이 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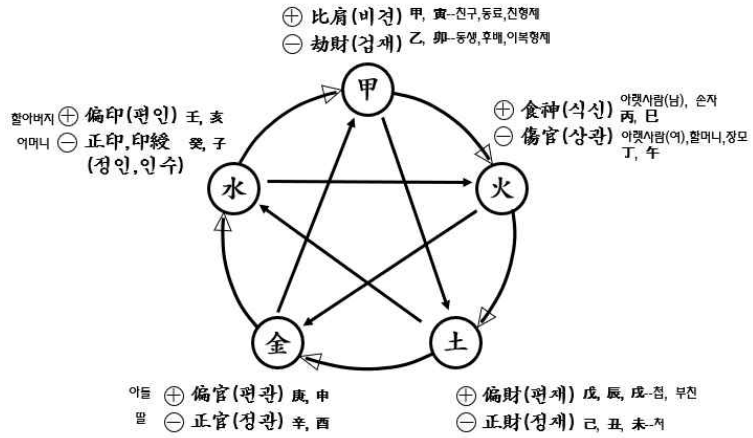
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외간남자 또는 시동생이나 시누이에 해당이 된다. 정관(正官)과 편관(偏官)을 줄여서 관살(官殺)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은 일간(日干)을 생(生)하는 기운이므로 공통적으로 조상이나 부모 또는 어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도 음양(陰陽)의 기운을 성별(性別)에 대입하면 정확한 육친(六親)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된다.

정인(正印)을 다른 말로는 인수(印綬)라고도 하는데,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은 재성(財星)와 마찬가지로 정(正)과 편(偏)을 서로 가리지 않으므로 줄여서 그냥 인(印)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육친관계에서는 분류가 필요하다)

육친관계는 자주 사주를 접하면서 저절로 숙달이 되게 끔 해야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사주를 접하게 되더라도 한 눈에 쏙 들어와야 한다. 육친관계가 완전히 숙달되지 않으면 사주를 보고도 통변(通辯)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육친관계에서도 지지(地支)의 자오사해(子 午 巳 亥)는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를 기준으로 간명(看命)해야 한다.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142.

4)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甲木 日干의 例)



[그림 -37] 甲목 일간(日干)의 남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이 甲목인 남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甲목이나 지지의 寅목은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이 해당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를 뜻하고, 상관(傷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를 뜻한다.(장모,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와 지지의 辰戌토를 뜻하고, 정재(正財)는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와 지지의 丑未토를 뜻한다.(부친, 처, 첩)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뜻하고, 정관(正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이과 지지의 酉금을 뜻한다.(자식, 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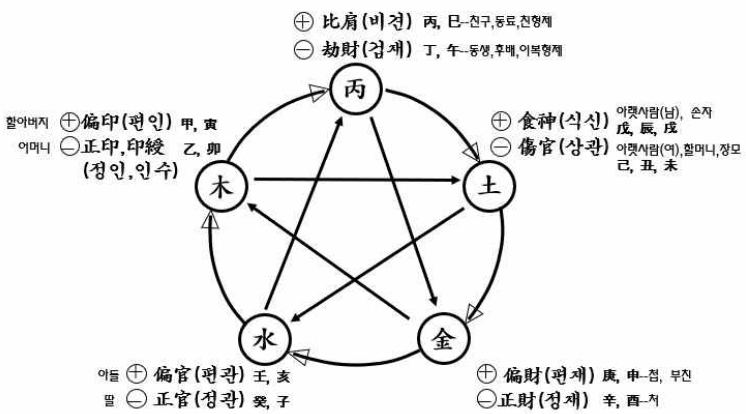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와 지지의 亥수를 뜻하고, 정인(正印)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와 지지의 子수를 뜻한다.(부모, 조부모)**출처 : 같은 책.p.144**

5)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甲木 日干의 例)

時柱	日柱	月柱	年柱
-	+	-	+
乙	甲	辛	庚
劫財(남매)	命主(나)	正官(딸)	偏官(아들)
+	+	+	+
亥	寅	巳	戌
偏印(조부)	比肩(친구)	食神(손자)	偏財(부친)

년간(年干)의 庚금은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고, 육친상으로는 아들이 된다.
월간(月干)의 辛금은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딸이 된다.
시간(時干)의 乙목은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겁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남매가 된다.
년지(年支)의 戌토는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부친이 된다.
월지(月支)의 巳화는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손자가 된다.
일지(日支)의 寅목은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비견이고, 육친상으로는 형제가 된다.
시지(時支)의 亥수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6)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丙火 日干의 例)



[그림 -38] 丙화 일간(日干)의 남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이 丙화인 남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丙화나 지지의 巳화는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가 해당이 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나 지지의 辰戌토를 뜻하고, 상관(傷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未토를 뜻한다.(장모,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뜻하고, 정재(正財)는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과 지지의 酉금을 뜻한다.(부친, 처, 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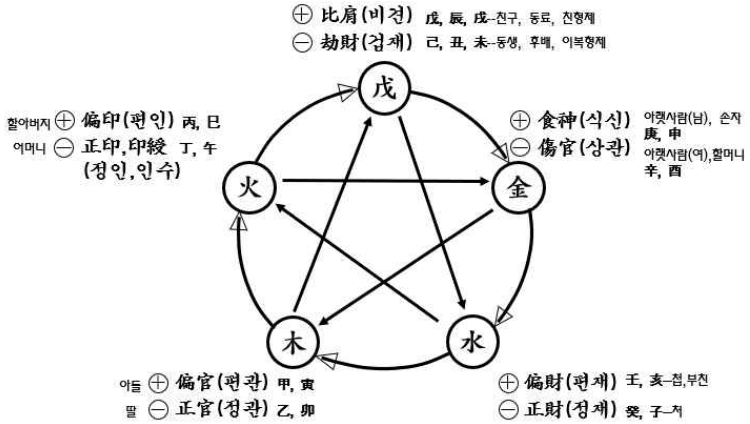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와 지지의 亥수를 뜻하고, 정관(正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와 지지의 子수를 뜻한다.(자식, 상사)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뜻하고, 정인(正印)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과 지지의 卯목을 뜻한다.(부모, 조부모)**출처 : 같은 책.p.146**

7)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丙火 日干의 例)

년간(年干)의 甲목은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월간(月干)의 甲목은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시간(時干)의 庚금은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이고, 육친상으로는 시모가 된다.
년지(年支)의 寅목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월지(月支)의 戌토는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딸이 된다.
일지(日支)의 午화는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양인이고, 육친상으로는 남매가 된다.
시지(時支)의 寅목는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8)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戊土 日干의 例)



[그림 -39] 戊토 일간(日干)의 남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이 戊토인 남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戊토나 지지의 辰戌토는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未토가 해당이 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뜻하고, 상관(傷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과 지지의 酉금을 뜻한다.(장모,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와 지지의 亥수를 뜻하고, 정재(正財)는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와 지지의 子수를 뜻한다.(부친, 처, 첩)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뜻하고, 정관(正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과 지지의 卯목을 뜻한다.(자식, 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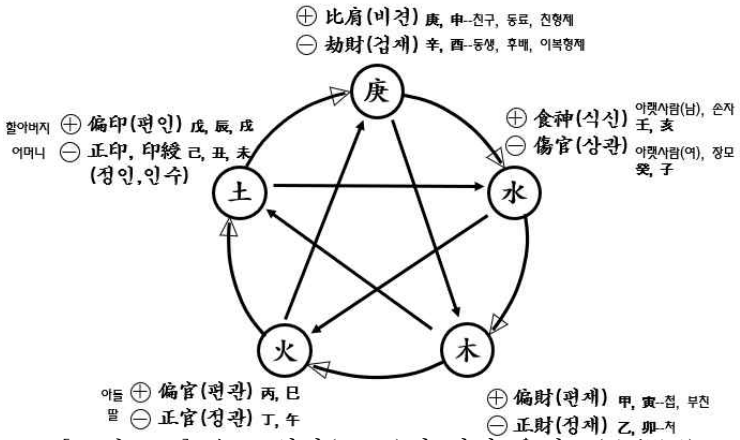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와 지지의 巳화를 뜻하고, 정인(正印)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와 지지의 午화를 뜻한다.(부모, 조부모)**출처 : 같은 책.p.148**

9)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戊土 日干의 例)

時柱	日柱	月柱	年柱
+	+	+	-
壬	戊	戊	丁
偏財(부친)	命主(나)	比肩(친구)	正印(모친)
-	+	+	+
子	戌	申	巳
正財(부인)	比肩(친구)	食神(손자)	偏印(조부)

년간(年干)의 丁화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고, 육친상으로는 모친이 된다.
월간(月干)의 戊토는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비견이고, 육친상으로는 형제가 된다.
시간(時干)의 壬수는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부친이 된다.
년지(年支)의 巳화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월지(月支)의 申금은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손자가 된다.
일지(日支)의 戌토는 일간(日干)과 같하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비견이고, 육친상으로는 형제가 된다.
시지(時支)의 子수는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부인이 된다.

10)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庚金 日干의 例)



[그림 -40] 庚금 일간(日干)의 남자 육친도(六親圖)

일간이 庚금인 남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庚금과 지지의 申금은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과 지지의 酉금이 해당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나 지지의 亥수를 뜻하고, 상관(傷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를 뜻한다.(장모,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뜻하고, 정재(正財)는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과 지지의 卯목을 뜻한다.(부친, 처, 첩)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와 지지의 巳화를 뜻하고, 정관(正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와 지지의 午화를 뜻한다.(자식, 상사)**출처 : 같은 책.p.1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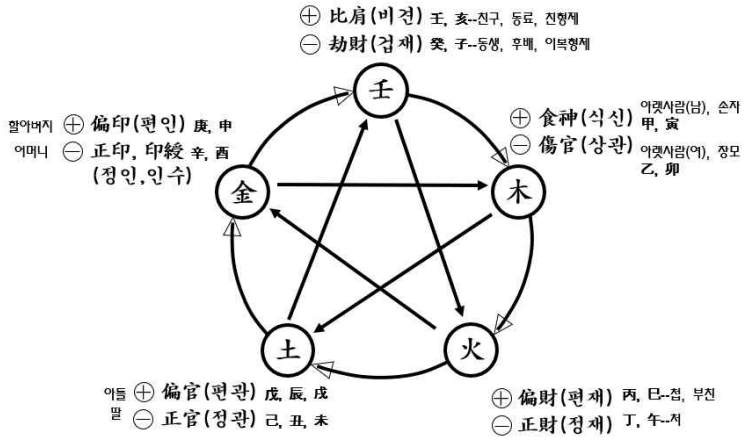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와 지지의 辰戌토를 뜻하고, 정인(正印)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와 지지의 丑未토를 뜻한다.(부모, 조부모)

11)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庚金 日干의 例)

時柱	日柱	月柱	年柱
+	+	+	-
庚	庚	壬	丁
比肩(친구)	命主(나)	食神(손자)	正官(딸)
+	+	+	+
辰	辰	寅	亥
偏印(조부)	偏印(조부)	偏財(부친)	食神(손자)

년간(年干)의 丁화는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딸이 된다.
월간(月干)의 壬수는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손자가 된다.
시간(時干)의 庚금은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비견이고, 육친상으로는 형제가 된다.
년지(年支)의 亥수는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손자가 된다.
월지(月支)의 寅목은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편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부친이 된다.
일지(日支)의 辰토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시지(時支)의 辰토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12)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壬水 日干의 例)



[그림 -41] 壬수 일간(日干)의 남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이 壬수인 남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壬수나 지지의 亥수는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가 해당이 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뜻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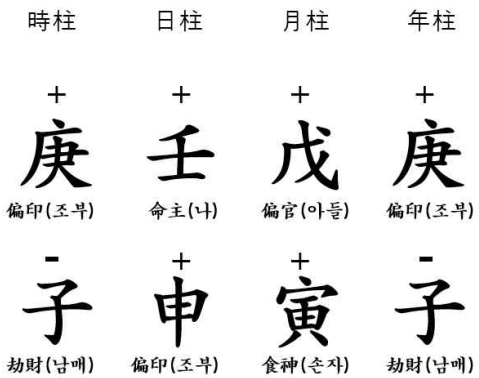
상관(傷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과 지지의 卯목을 뜻한다.(장모,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와 지지의 巳화를 뜻하고, 정재(正財)는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와 지지의 午화를 뜻한다.(부친, 처, 첩)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와 지지의 辰戌토를 뜻하고, 정관(正官)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와 지지의 丑未토를 뜻한다.(자식, 상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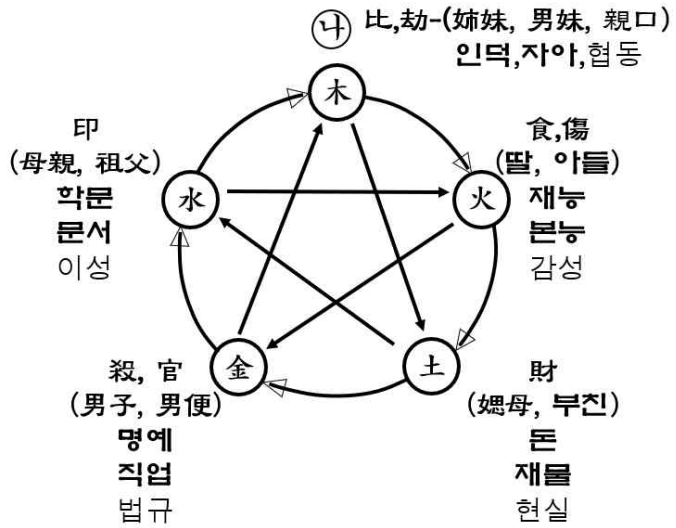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뜻하고, 정인(正印)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과 지지의 酉금을 뜻한다.(부모, 조부모)**출처 : 같은 책.p.152**

13) 육친(六親)의 구분 - 男子 (壬水 日干의 例)



년간(年干)의 庚금은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월간(月干)의 戊토는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고, 육친상으로는 아들이 된다.
시간(時干)의 庚금은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년지(年支)의 子수는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양인이고, 육친상으로는 남매가 된다.
월지(月支)의 寅목은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손자가 된다.
일지(日支)의 申금은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시지(時支)의 子수는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양인이고, 육친상으로는 남매가 된다.

14) 육친(六親)의 구분 - 木 日干 女子의 六親



[그림 -42] 木 일간(日干)의 여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은 나(我)을 뜻하므로 일간(日干)과 같은 기운인 비견(比肩)이나 겁재(劫財)는 자매나 동료 친구 등에 해당이 되는데, 음양(陰陽)이 다를 때에는 남매나 성별(性別)이 다른 동료가 된다. 비견과 겁재를 줄여서 주로 비겁(比劫)이라고 한다.

남자나 여자의 경우 모두 해당이 되지만 음양(陰陽)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성별(性別)이 다른 육친(六親)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치에 따라 차근차근 이해를 해 나가면 된다.

일간(日干)이 생(生)하는 기운인 식신(食神)과 상관(傷官)은 여성의 입장에서는 식신은 딸, 상관은 아들이 된다. 남자의 입장에서는 재를 생하는 기운이 되므로 조모나 장모 또는 아랫사람이 된다. 식신과 상관을 줄여서 식상(食傷)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재(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이므로 남자의 입장에서는 부친이나 부인 또는 외간 여자가 해당이 되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을 나타내는 관(官)을 생(生)하는 꼴이 되므로 시모(媤母)가 되는 것이다. 편재(偏財)와 정재(正財)를 줄여서 주로 재(財)라고만 하는 경우가 많다.

정관(正官)과 편관(偏官)은 일간(日干)을 극(剋)하는 기운이므로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식에 해당이 되고, 여자의 입장에서는 남편이나 외간남자 또는 시동생이나 시누이에 해당이 된다. 정관(正官)과 편관(偏官)을 줄여서 관살(官殺)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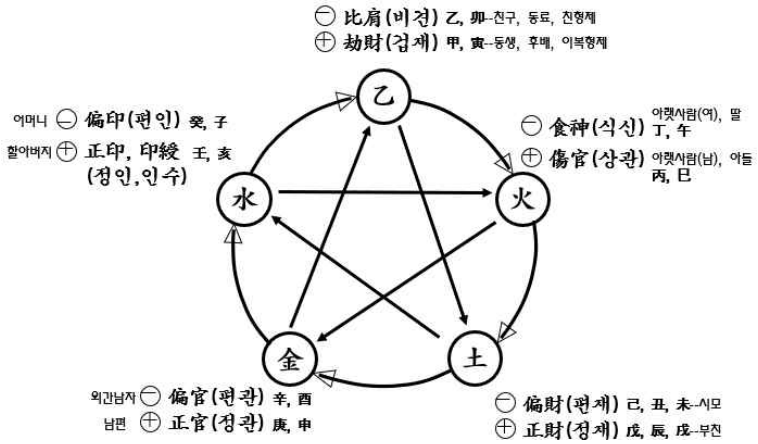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은 일간(日干)을 생(生)하는 기운이므로 공통적으로 조상이나 부모 또는 어른에 해당이 되는데, 이때에도 음양(陰陽)의 기운을 성별(性別)에 대입하면 정확한 육친(六親) 관계를 알 수가 있게 된다.

정인(正印)을 다른 말로는 인수(印綬)라고도 하는데, 정인(正印)과 편인(偏印)은 재성(財星)와 마찬가

지로 정(正)과 편(偏)을 서로 가리지 않으므로 줄여서 그냥 인(印)이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하지만 육친관계에서는 분류가 필요하다)

육친관계는 자주 사주를 접하면서 저절로 숙달이 되게 끔 해야 하는데, 언제 어느 때 사주를 접하게 되더라도 한 눈에 쏙 들어와야 한다. 육친관계가 완전히 숙달되지 않으면 사주를 보고도 통변(通辯)을 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육친관계에서도 지지(地支)의 자오사해(子·午·巳·亥)는 지장간(支藏干)의 정기(正氣)를 기준으로 간명(看命)해야 한다. 출처 : 전정훈, 『기초자평명리학』, 혜경출판사, 2010, p.142.

15)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乙木 日干의 例)



[그림 -43] 乙목 일간(日干)의 여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이 乙목인 여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乙목이나 지지의 卯목은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이나 지지의 寅목이 해당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나 지지의 午화를 뜻하고, 상관(傷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를 뜻한다.(자식,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와 지지의 丑未토를 뜻하고, 정재(正財)는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와 지지의 辰戌토를 뜻한다.(시모, 손자)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과 지지의 酉금을 뜻하고, 정관(正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이과 지지의 申금을 뜻한다.(남편, 외간남자. 시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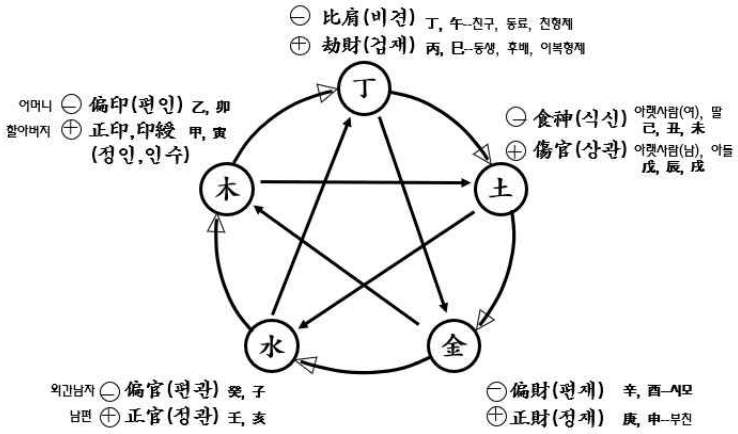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와 지지의 子수를 뜻하고, 정인(正印)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와 지지의 亥수를 뜻한다.(모친, 조부) **출처 : 같은 책.p.155**

16)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乙木 日干의 例)

時柱	日柱	月柱	年柱
+	-	+	-
庚	乙	庚	辛
正官(남편)	命主(나)	正官(남편)	偏官(남자)
+	+	+	+
辰	巳	寅	亥
正財(부친)	傷官(아들)	劫財(남매)	正印(조부)

년간(年干)의 辛금은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관이고, 육친상으로는 시누이가 된다.
월간(月干)의 庚금은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된다.
시간(時干)의 庚금은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된다.
년지(年支)의 亥수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월지(月支)의 寅목은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겁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남매가 된다.
일지(日支)의 巳화는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고, 육친상으로는 아들이 된다.
시지(時支)의 辰토는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고, 육친상으로는 부친이 된다.

17)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丁火 日干의 例)



[그림 -44] 丁화 일간(日干)의 여자 육친도(六親圖)

일간이 丁화인 여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丁화나 지지의 午화는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나 지지의 巳화가 해당이 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나 지지의 丑未토를 뜻하고, 상관(傷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나 지지의 辰戌토를 뜻한다.(자식,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과 지지의 酉금을 뜻하고,

정재(正財)는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뜻한다.(시모, 손자) **출처 : 같은 책.p.157**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와 지지의 子수를 뜻하고, 정관(正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와 지지의 亥수를 뜻한다.(남편, 외간남자. 시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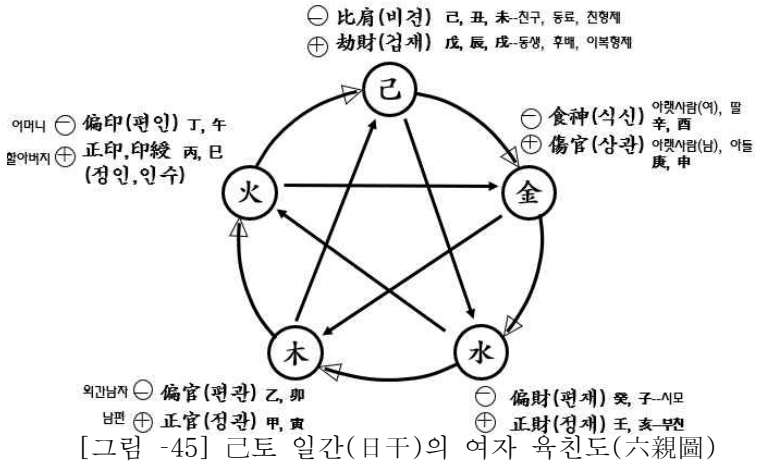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과 지지의 卯목을 뜻하고, 정인(正印)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뜻한다.(모친, 조상, 어른)

18)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丁火 日干의 例)

時柱	日柱	月柱	年柱
+	-	-	-
庚	丁	辛	癸
正財(부친)	命主(나)	偏財(시모)	偏官(남자)
+	+	-	+
戌	巳	酉	亥
傷官(아들)	劫財(남매)	偏財(시모)	正官(남편)

년간(年干)의 癸수는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된다.
월간(月干)의 辛금은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이고, 육친상으로는 시어미가 된다.
시간(時干)의 庚금은 일간(日干)이 극으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부친이 된다.
년지(年支)의 亥수는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된다.
월지(月支)의 酉금은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정재이고, 육친상으로는 시어미가 된다.
일지(日支)의 巳화는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겁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남매가 된다.
시지(時支)의 戌토는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상관이고, 육친상으로는 아들이 된다.

19)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己土 日干의 例)



[그림 -45] 己토 일간(日干)의 여자 육친도(六親圖)

일간이 己토인 여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己토나 지지의 丑未토는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와 지지의 辰戌토가 해당이 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과 지지의 酉금을 뜻하고, 상관(傷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뜻한다.(자식,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와 지지의 子수를 뜻하고, 정재(正財)는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와 지지의 亥수를 뜻한다.(시모, 손자)**출처 : 같은 책.p.159**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과 지지의 卯목을 뜻하고, 정관(正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뜻한다.(남편, 외간남자. 시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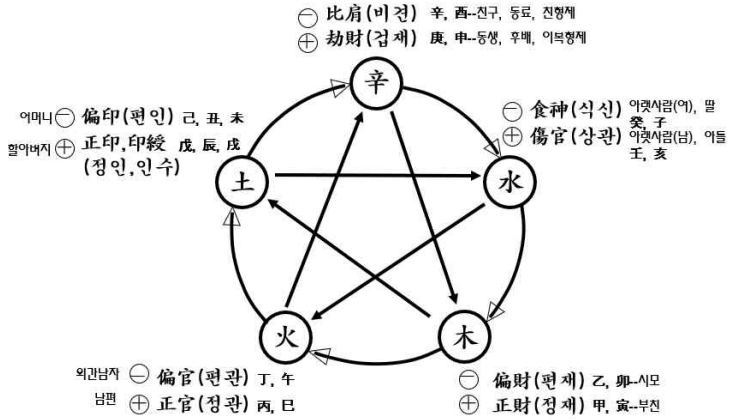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와 지지의 午화를 뜻하고, 정인(正印)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와 지지의 巳화를 뜻한다.(모친, 조상, 어른)

20)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己土 日干의 例)

時柱	日柱	月柱	年柱
-	-	-	+
己	己	丁	丙
比肩(친구)	命主(나)	偏印(모친)	正印(조부)
+	-	-	+
巳	卯	酉	寅
正印(조부)	偏官(남자)	食神(딸)	正官(남편)

년간(年干)의 丙화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월간(月干)의 丁화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모친이 된다.
시간(時干)의 己토는 일간(日干)과 같으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비견이고, 육친상으로는 자매가 된다.
년지(年支)의 寅목은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된다.
월지(月支)의 酉금은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딸이 된다.
일지(日支)의 卯목은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편관이고, 육친상으로는 시누이가 된다.
시지(時支)의 巳화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21)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辛金 日干의 例)



[그림 -46] 辛금 일간(日干)의 여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이 辛금인 여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辛금과 지지의 酉금은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과 지지의 申금이 해당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癸수나 지지의 子수를 뜻하고, 상관(傷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나 지지의 亥수를 뜻한다.(자식,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과 지지의 卯목을 뜻하고, 정재(正財)는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뜻한다.(시모, 손자) **출처 : 같은 책.p.161**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와 지지의 午화를 뜻하고, 정관(正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와 지지의 巳화를 뜻한다.(남편, 외간남자. 시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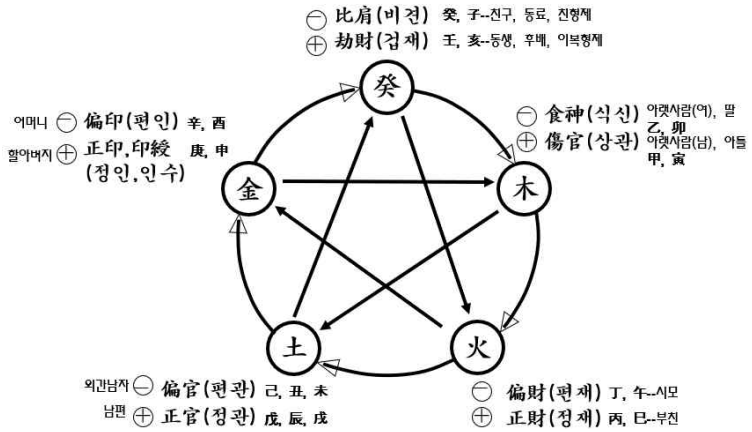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와 지지의 丑未토를 뜻하고, 정인(正印)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와 지지의 辰戌토를 뜻한다.(모친, 조상, 어른)

22)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辛金 日干의 例)

時柱	日柱	月柱	年柱
+	-	+	-
戌	辛	丙	己
正印(조부)	命主(나)	正官(남편)	偏印(모친)
+	-	-	+
戌	卯	子	巳
正印(조부)	偏財(시모)	食神(딸)	正官(남편)

년간(年干)의 己토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모친이 된다.
월간(月干)의 丙화는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된다.
시간(時干)의 戊토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년지(年支)의 巳화는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된다.
월지(月支)의 子수는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딸이 된다.
일지(日支)의 卯목은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이고, 육친상으로는 시어미가 된다.
시지(時支)의 戌토는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조부가 된다.

23)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癸水 日干의 例)



[그림 -47] 癸수 일간(日干)의 여자 육친도(六親圖)

일간(日干)이 癸수인 여자의 경우 일간과 동일한 癸수와 지지의 子수는 비견(比肩)이 되고, 겁재(劫財)는 오행은 같으나 양(陽)의 기운을 가진 壬수와 지지의 亥수가 해당이 된다.(형제, 동료, 친구)

식신(食神)은 일간이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乙목과 지지의 卯목을 뜻하고, 상관(傷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甲목과 지지의 寅목을 뜻한다.(자식, 아랫사람)

편재(偏財)는 일간이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丁화와 지지의 午화를 뜻하고, 정재(正財)는 양(陽)의 기운을 가진 丙화와 지지의 巳화를 뜻한다.(시모, 손자) **출처 : 같은 책.p.163**

편관(偏官)은 일간을 극(剋)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己토와 지지의 丑未토를 뜻하고, 정관(正官)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戊토와 지지의 辰戌토를 뜻한다.(남편, 외간남자. 시동생)

편인(偏印)은 일간을 생(生)하는 기운으로 같은 음(陰)의 기운을 가진 辛금과 지지의 酉금을 뜻하고, 정인(正印)은 양(陽)의 기운을 가진 庚금과 지지의 申금을 뜻한다.(모친, 조상, 어른)

24) 육친(六親)의 구분 - 女子 (癸水 日干의 例)

년간(年干)의 戊토는 일간(日干)을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관이고, 육친상으로는 남편이 된다.
월간(月干)의 乙목은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딸이 된다.
시간(時干)의 丁화는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이고, 육친상으로는 시어미가 된다.
년지(年支)의 午화는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편재이고, 육친상으로는 시어미가 된다.
월지(月支)의 卯목은 일간(日干)이 생하면서 음양이 같으므로 식신이고, 육친상으로는 딸이 된다.
일지(日支)의 酉금은 일간(日干)을 생하면서 음양도 같으므로 편인이고, 육친상으로는 모친이 된다.
시지(時支)의 巳화는 일간(日干)이 극하면서 음양이 다르므로 정재이고, 육친상으로는 부친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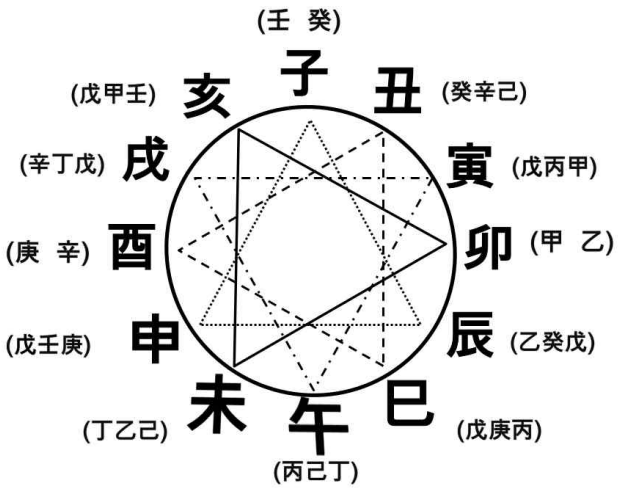
제 9차시. 지장간(支藏干)의 원리와 심리

1) 지장간(支藏干)의 뜻

지장간(支藏干)의 장(藏)은 감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지장간(支藏干)이라고 한다면 지지(地支) 속에 감춰져 있는 천간(天干)의 기운을 뜻한다.

천간(天干)이 한 개의 기운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지지(地支)는 둘 또는 셋의 하늘 기운을 포함 또는 담고 있다. 특히, 월지(月支)의 지장간(支藏干)은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로 나눠서 사주의 핵심이 되는 용신(用神)이 되므로 항상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지장간(支藏干)에 있어서, 여기(餘氣)는 막 지나간 그래서 과거 절기(節氣)의 기운이 남아 있는 것이고, 중기(中氣)는 그 절기(節氣)의 가운데 즉 중심이 되는 기운이면서 새롭게 나타나는 기운이나 고(庫=창고)로 들어가는 기운을 나타내고, 정기(正氣)는 월지(月支)와 같은 천간(天干) 기운을 나타낸다.



[그림 -48] 지장간(支藏干) 조화도(造化圖)

절기(節氣)로 구분하여 볼 때 寅·卯·辰은 봄, 巳·午·未는 여름, 申·酉·戌은 가을, 亥·子·丑은 겨울을 나타낸다. 이 가운데 子·午·卯·酉는 계절의 가운데이므로 가장 왕성한 기운을 나타내므로 중기(中氣)의 기운이 없다.(午화는 제외) 하늘의 기운을 담은 지장간(支藏干)의 특징을 살펴보면,

봄에는 숙살지기(肅殺之氣) 즉 만물이 성장(成長)을 마치고, 죽어가는 기운을 나타내는 가을을 대표하는 金기운이 없고,

여름에는 휴식(休息)을 취하고, 만물의 근원인 물이 땅으로 들어가는 기운을 나타내는 겨울을 대표하는 水기운이 없고,

가을에는 만물이 겨울잠에서 깨어나고, 소생(蘇生)하여 자라나는 기운을 나타내는 봄을 대표하는 木기운이 없고,

겨울에는 만물이 가장 힘차게 생동(生動)하고, 장성하여 꽃을 피우는 기운을 나타내는 여름을 대표하는 火기운이 없다.

봄에 만물이 소생을 해야 하는데, 제대로 자라기도 전에 金기운 즉 익어버리면 쓸모가 없게 되고,

여름에 꽃을 피우고 만발해야 하는데, 水기운 즉 휴식을 취해 버리면 꽃을 피울 수 없게 되고,

가을에 열매가 익어야 하는데, 木기운 즉 소생을 하게 되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고,

겨울에 쉬어야 다음 해 봄에 소생을 하게 되는데, 火기운 즉 꽃을 피워버리면 쉬지 못하여 오래 살 수가 없게 되는 이치이다.

그래서 이 지장간(支藏干)의 이치가 바로 자연의 이치와 세상의 순리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면 된다. 명리학 역시 마찬가지로 이러한 계절적인 기운의 조화를 잘 이뤄야 발복(發福)을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이치에 맞는 기후 조건을 말할 때 조후(調候)라는 말을 쓴다. 그래서 명리학 고서(古書) 어디에서나 사주는 조후(調候)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봄의 왕지(旺支)인 卯목에서부터 시작을 해보면, 봄은 木기운이므로 왕지(旺支)인 경칩(驚蟄)에 해당하는 卯목에는 천간(天干)의 木기운에 해당하는 甲목과 乙목 밖에 없다.

이어지는 그 다음 절기(節氣)인 청명(淸明)에 해당하는 辰토의 지장간(支藏干)을 보면, 여기(餘氣)인 乙목과 중기(中氣)인 癸수와 정기(正氣)인 戊토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乙목은 이전의 절기였던 경칩(驚蟄)의 정기(正氣)인 乙목이 여기로 남아서 넘어온 것이다. 그 다음은 중기(中氣)인 癸수는 여름에는 水기운이 없으므로 고지(庫支) 즉 창고로 들어가게 되고, 辰토는 본래 양(陽)의 土기운이므로 戊토가 정기(正氣)가 되는 것이다.

여름의 생지(生支)이자 입하(立夏)에 해당하는 巳화를 보면, 여름은 火기운이므로 지장간(支藏干)에 겨울을 대표하는 水기운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과거의 절기(節氣)인 청명(淸明)에 해당하는 辰토의 정기(正氣)인 戊토가 巳화의 여기(餘氣)가 되고, 봄이 되면서 사라졌던 金기운이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중기(中氣)인 庚금이다. 이러한 현상을 여름에 꽃이 피던 자리가 바로 가을에 열매를 맺는 자리가 되는 이치라고도 한다. 마지막으로 巳화의 정기(正氣)는 천간(天干)의 丙화가 된다. 그래서 巳화의 지장간(支藏干)은 戊토, 庚금, 丙화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치를 바탕으로 하여 나머지 지장간(支藏干)도 이해를 하면 된다.

3) 지지조화도표(地支造化圖表)

支地藏干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
餘氣	壬 10	癸 9	戊 7	甲 10	乙 9	戊 7	丙 10	丁 9	戊 7	庚 10	辛 9	戊 7
中氣		辛 3	丙 7		癸 3	庚 7	己 10	乙 3	壬 7		丁 3	甲 7
正氣	癸 20	己 18	甲 16	乙 20	戊 18	丙 16	丁 11	己 18	庚 16	辛 20	戊 18	壬 16

[표 -28] 지지조화도표(地支造化圖表)

위의 지지조화도표를 보면 숫자가 적혀있는 것이 보일 것이다. 이것은 날짜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子수라고 했을 때 지장간(支藏干)의 여기(餘氣)인 壬수는 10일을 사령(司令)하고, 중기(中氣)는 없으며, 정기(正氣)인 癸수는 20일을 사령(司令)한다는 뜻이다. 丑토를 보면, 여기(餘氣)인 癸수는 9일을, 중기(中氣)인 辛금은 3일을, 정기(正氣)인 己토는 18일을 사령(司令)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사생지(四生支)

생지(生支)란 새롭게 계절이 생겨나거나, 시작이 된 것을 나타내는 지지(地支)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입춘(立春)은 봄이 시작 되었다는 뜻이고(寅), 입하(立夏)는 여름이 시작 되었다는 뜻이며(巳), 입추(立秋)는 가을이 시작 되었다는 뜻이고(申), 입동(立冬)은 겨울이 시작 되었다는 뜻이다(亥).

사생지(四生支)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생지(生支)가 봄·여름·가을·겨울의 네 개가 있다는 뜻이다. 인신사해(寅申巳亥)라고 한 이유는 순서로 보면 寅申沖, 巳亥沖이 된다. 그러므로 충(沖)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

寅(戊丙甲) (7, 7, 16)

申(戊壬庚) (7, 7, 16)

巳(戊庚丙) (7, 7, 16)

亥(戊甲壬) (7, 7, 16)

5) 사왕지(四旺支)

왕지(旺支)란 계절의 기운이 가장 왕성하게 드러나는 지지(地支)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경칩(驚蟄)은 봄의 가운데라는 뜻이고(卯), 망종(芒種)는 여름의 가운데라는 뜻이며(午), 백로(白露)는 가을의 가운데라는 뜻이고(酉), 대설(大雪)은 겨울의 가운데라는 뜻이다(子).

사왕지(四旺支)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왕지(旺支)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네 개가 있다는 뜻이다. 자오묘유(子午卯酉)라고 한 이유는 순서로 보면 子午沖, 卯酉沖이 된다. 그러므로 충(沖)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

子(壬 癸) (10, 20)

午(丙己丁) (10, 10, 11)

卯(甲 乙) (10, 20)

酉(庚 辛) (10, 20)

6) 사고지(四庫支)

고지(庫支)란 계절의 기운이 창고로 들어가는 때의 지지(地支)라는 뜻이다. 예를 들어, 청명(淸明)은 봄기운이 창고로 들어간다는 뜻이고(辰), 소서(小暑)는 여름의 기운이 창고로 들어간다는 뜻이며(未), 한로(寒露)는 가을의 기운이 창고로 들어간다는 뜻이고(戌), 소한(小寒)은 겨울의 기운이 창고로 들어간다는 뜻이다(丑).

사고지(四庫支)라고 하는 이유는 이러한 고지(庫支)가 봄 · 여름 · 가을 · 겨울의 네 개가 있다는 뜻이다. 진술축미(辰戌丑未)라고 한 이유는 순서로 보면 辰戌沖, 丑未沖이 된다. 그러므로 충(沖)을 외우기 쉽게 하기 위해서 순서를 그렇게 정한 것이다.

辰(乙癸戊) (9, 3, 18)

戌(辛丁戊) (9, 3, 18)

丑(癸辛己) (9, 3, 18)

未(丁乙己) (9, 3, 18)

7) 사령(司令)

사령(司令)이란?
맡을 사(司), 하여금 령(令)으로 '맡아서 하게 한다.' 라는 뜻이다. 그런데 월령(月令) 가운데 사령(司令)이 있기 때문에 '월지장간 가운데서 일을 맡아서 하게 하는 기운을 뜻한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월지(月支)의 지장간(支藏干)은 여기(餘氣). 중기(中氣). 정기(正氣)로 나누는데. 이 세 가지의 기운 가운데 '일을 맡아서 하는 기운을 두고 '사령(司令)' 이라고 정의한다.

사령(司令) 역시 길신(吉神)으로 쓰일 때와 흉신(凶神)으로 쓰일 때, 각기 차이가 있다. 월령(月令) 가운데 기운을 맡은 그래서 가장 왕(旺)한 기운이기 때문에, 사령(司令)하고 있는 기운이 길신(吉神)으로 쓰일 때는 크게 발복(發福)할 수 있으나, 반대로 사령(司令)하고 있는 기운이 흉신(凶神)으로 쓰일 때는 대패(大敗)가 날 수 있다.

문제는 사주를 간명(看命=살필 간, 목숨 명)하면서 사령자(司令字)를 아예 외면하고,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다. 월령(月令)이 사주의 핵심이라고 한다면, 사령(司令)은 핵심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운이 되기 때문이다. 이를 간과한다는 것은 간명(看命)의 핵심을 제외하고 간명(看命)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이다.

乾命

壬 戊 戊 庚
戌 申 寅 戌

(辛丁戊) (戊壬庚) (戊丙甲) (辛丁戊)

67	57	47	37	27	17	7.6
乙	甲	癸	壬	辛	庚	己
酉	申	未	午	巳	辰	卯

8) 사령(司令)을 찾는 법(순행일 때)

예시 명조의 대운수(大運數)를 보면 7.6이다. 즉 태어난 후 7년 6개월부터 대운(大運)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17세나 27세 그리고 37세 등 나머지 대운수(大運數)에는 6개월을 쓰지 않았다. 그러나 6개월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대운수(大運數)를 적용해야 맞아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역행(逆行)의 경우 대운수(大運數)는 태어난 날에서 부터 과거 절기(節氣)까지 날짜를 세어서 3으로 나눈다. 한 절기(節氣)는 30이지만 3으로 나누어서 대운수(大運數)를 정했으므로, 사령(司令)을 찾을 때는 역(逆)으로 대운수(大運數)에 곱하기 3을 해줘야 한다.

7.6 X 3 = 22.8일이 나온다. 寅월은 7.7.16일이고 戊, 丙, 甲 이므로 丙화가 사령임을 알 수 있다.

壬 戊 戊 庚 坤命
戌 申 寅 戌

(辛丁戊) (戊壬庚) (戊丙甲) (辛丁戊)

63	53	43	32	22	12	2.4
辛	壬	癸	甲	乙	丙	丁
未	申	酉	戌	亥	子	丑

9) 사령(司令)을 찾는 법(역행일 때)

예시 명조의 대운수(大運數)를 보면 2.4 이다. 즉 태어난 후 2년 4개월부터 대운이 시작된다는 뜻이다. 그런데 역행(逆行)의 경우 대운수(大運數)는 태어난 날에서 부터 과거 절기(節氣)까지 날짜를 세어서 3으로 나눈다. 한 절기(節氣)는 30이지만 3으로 나누어서 대운수(大運數)를 정했으므로, 사령(司令)을 찾을 때는 역(逆)으로 대운수(大運數)에 곱하기 3을 해줘야 한다. 그래서 2.4 X 3 = 7.2일이 나온다. 寅월은 7.7.16일이고 戊, 丙, 甲 이므로 역시 丙화가 사령(司令)임을 알 수 있다.

10) 지장간(支藏干)과 사령(司令)의 심리

월(月)의 지장간(支藏干) 즉 월지장간(月支藏干) 또는 월령(月令=용신)은 두 개 또는 세 개의 천간(天干) 기운을 담고 있다. 그러므로 두 가지나 세 가지의 기운을 모두 활용하고자 하는 심리를 가지고 있다. **사령(司令)**은 이 가운데 일을 맡아서 하게 하는 기운이므로, 이 사령(司令)에게 일(활동)을 맡기고자 하는 심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그러나 사령(司令)이 월지(月支)나 천간(天干)에 투출한 월령(용신)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또 제 각각일 수도 있다. 월지(月支)가 본성(本性)이고, 투출한 용신(用神)이 사회성이므로 사령(司令)은 본성(本性) 속의 내면 심리가 된다.

11) 지장간(支藏干)과 사령(司令)의 심리

제시된 명조는 월지(月支)가 寅목 즉 살(殺)이고. 천간(天干)에 투출한 월령(용신)이 없는 상태에서

사령(司令)은 丙화 즉 편인(偏印)이다. 그러면 본성(本性)은 강직하고, 정확하며. 예리하지만 내면은 생각이 깊고, 의심이 많으면서 끊임없이 모사(謀事)를 꾸미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천간(天干)에 월령(용신)이 투출하지 않았으므로. 자신의 마음을 쉽게 표출하고는 있지 않지만 언제라도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표출하고자 하는 심리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제 10차시. 용신(用神)의 구분과 심리 특징

1) 용신의 정의 -1

용신(用神)이란?

“神을 쓴다.” 또는 “쓰는 神”이라는 뜻이다. 사주명리학에서의 신(神)은 10가지이기 때문에 십신(十神)이다. 比肩 •劫財 •食神 •傷官 •偏財 •正財 •偏官 •正官 •偏印 •正印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격(格)으로 쓸 수 있는 신(神)은 食呻 • 傷官 • 偏財 • 正財 • 偏官 •正官 • 偏印 • 正印의 8가지이다. 그래서 팔정격(八正格)이라고 한다.

팔정격(八正格)에서 재(財)와 인(印)은 正•偏을 가리지 않으므로 食申 • 傷官 • 財 • 偏官 • 正官 • 印의 6가지가 되므로 육신(六神)이라고 한다. 이 육신(六神) 가운데 쓰는 신(神)이 용신(用神)인 것이다. 줄여서 食 • 傷 • 財 • 官 • 殺 • 印 이 용신(用神)이 된다.

1) 용신의 정의 -2

“팔자용신 전구월령(八字用神 專求月令)” 이 말은 『자평진전子平眞詮』에 나오는 말로 “용신은 오로지 월령에서 구해야 한다.”라는 뜻이다. 이것이 바로 서자평(徐子平 : 오대말 ~ 송초)선생이 창시한 일위주(日爲主)의 자평명리학(子平命理學) 근본이다.

“불향월령구용신, 이망취용신자, 집가실진야.(不向月令求用神, 而妄取用神者, 執假失眞也)” 이 말은 “월령(月令)에서 용신(用神)을 구하지 않고, 망령되게 용신(用神)을 취하는 것은 가짜를 고집하여 진실을 잃어버리는 것이다.”라는 뜻이다.

1) 용신의 정의 -3

서자평선생 이전에는 년본일주(年本日主)의 명리학 체계라 년주(年主)의 납음오행(納音五行)을 인원(人元)으로 하여 간명(看命)을 했었다. 그러다 서양점성술(베딕점성술)이 인도를 거쳐 당나라로 유입이 되면서 명리학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 것이다.

그래서 당대(唐代)와 송초(宋初) 이전까지는 목성을 중심으로 한 체계였다가 송대(宋代)로 오면서 태양 중심(절기)의 체계로 변화된 것이다. 명리학의 텍스트라고 할 수 있는『연해자평淵海子平』에 년본일주(年本日主)와 일위주(日爲主)의 체계가 혼재되어 기록된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2) 사길신(四吉神)과 사흉신(四凶神)

사길신(四吉神)은 財 · 官 · 印 · 食이다. 여기에 비견(比肩)도 포함된다. 財 · 官 · 印 · 食은 富 · 貴 · 壽 · 孫으로 표현이 된다. 사길신(四吉神)은 순용(順用)해야 한다. 즉 생(生)해주거나 보호해줘야 한다.

사흉신(四凶神)은 殺 ·傷 ·劫 ·刃이다. 刃은 양인(陽刃)이다. 殺 ·傷 ·劫 ·刃은 살인 ·사기 · 도둑 ·강도 등으로 표현할 수 있다. 사흉신(四凶神)은 역용해야 한다. 즉 沖·剋을 하거나 합거(合去) 또는 기운을 설(洩=빼다)해야 한다. 比肩·劫財·陽刃은 월지(月支)만 적용이 된다. (用神不可)

3) 용신(用神) 비유

사람의 팔자마다 용신(用神)은 다 있다. 그것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있어 꼭 필요한 도구나 장기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그 도구나 장기가 다 좋은 것만은 아니다. 좋은 도구나 장기를 갖고 한 평생을 편안하게 잘 살 수도 있으나, 어떤 도구나 장기는 그것은 잘못 다루었을 때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들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줄 수도 있다. 그래서 용신(用神) 즉 '신을 쓴다.' 는 것은 양날의 검과 같이 좋은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쓰일 수도 있다.

吉神	財	官	印	食	比
비유	부자	고위직	학자	기술자	중개인
凶神	殺	傷	劫	刃	
비유	살인범	사기꾼	도둑	강도	

[표 -29] 용신(用神)에 따른 직업 도표

위 [용신에 따른 직업 도표]는 길신(吉神)과 흉신(凶神)으로 나뉘어져 있고, 또 그 용신(用神)이 가진 의미와 연관이 되는 비슷한 직업군과 서로 연결을 시켜 놓았다. 그러나 위의 직업도표가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단지 쉽게 이해를 하라는 의미에서 만든 도표이므로 참고 정도하는 것이 좋다.

길신(吉神)은 財·官·印·食이다.

재(財)는 재물을 뜻하므로, 부자와 연관이 된다.
관(官)은 벼슬을 뜻하므로, 공직자와 연관이 된다.
인(印)은 도장을 뜻하므로, 학문이나 문서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학자와 연관이 된다.
식(食)은 먹는 것을 뜻하지만 기술이나 재능이라는 의미가 있으므로 기술자나 과학자와 연관이 된다.

비견(比肩)은 형제나 친구 등 명주의 지인을 뜻하므로, 중개인과 연관이 된다. 비견(比肩)을 길신(吉神)에 포함시킨 것은 비견(比肩)이 12운성에서 건록(建祿=세울 건, 녹봉 녹) 즉 정관(正官)과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이 비견(比肩)에 대한 길흉(吉凶)을 구분해 놓은 적이 없었으나 2,000년대에 들어와 필자에 의해 임상 연구가 된 십신(十神)이다.

흉신(凶神)은 殺 · 傷 · 劫 · 刃이다.
살(殺)은 죽음을 뜻하므로, 살인범과 연관이 된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는 군인 · 경찰 · 검찰 · 의료계통 및 역사 · 종교 · 철학 · 보험 · 장례계통 등 인간의 삶과 죽음을 함께 논할 수 있는 분야와 연관이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

상관(傷官)은 벼슬을 상한다는 것을 뜻하므로, 사기꾼이나 깡패 및 패륜과 연관이 된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는 음악 · 문화 · 예술 · 체육계통 및 방송 · 연예 · 공연 · 강의 · 영업 등 사람들에게 보여주거나 알릴 수 있는 분야와 연관이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

겁재(劫財)와 양인(陽刃)의 차이점은 일간(日干)이 양(陽)이냐 음(陰)이냐 하는 것에 있다. 단지, 양인(陽刃)은 겁재(劫財)보다도 더 극렬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성격이나 직업군이 비슷할 수 있다. 겁재(겁재)는 재물을 빼앗기거나 빼앗는다는 것을 뜻하므로, 도둑과 연관이 된다. 여기에 비하여 양인(陽刃)은 칼 인을 쓴다. 물건만 빼앗는 것이 아니고 살상도 할 수 있는 것을 뜻하므로, 흉신(凶神)으로서의 의미는 더 중(重)하다. 그러나 좋은 쪽으로는 탐험 · 모험 · 수집 · 경호 및 정보 · 중개 · 개척 · 무역 등 어려운 일을 개척하거나 사람과 사람을 서로 연결시켜 주는 분야와 연관이 있고, 또 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

4) 용신(用神)에 따른 심리

용신(用神)이 무엇이냐? 에 따라서 사람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에서 차이를 드러낸다. 물론 운(運)에 의해서도 이러한 성향을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운(運)에서 어느 특정한 십신(十神)이나 특정한 십신(十神)의 운(運)을 만나게 되면, 그 십신(十神)이 가진 고유의 기운에 영향을 받아 본명(本命)에 십신(十神)의 기운이 혼합된 형태로 생각하고 행동을 할 수 있다.

그 이유는 명(命)과 운(運)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타고난 사주가 있다고 하더라도 운(運)에 의해서 얼마든지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평진전子平眞詮』은 운(運)에 의해서 성중유패(成中有敗=잘 짜여진 사주가 깨짐), 패중유성(敗中有成=깨진 사주가 다시 짜여짐)이 된다고 했던 것이다. 아래는 그 내용과 직업을 압축시켜 놓았다.

比肩 :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는 것을 추구한다. 그래서 동업이나 대기업에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劫財 : 자신만의 의지로 사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자영업이나 소개업이 적성에 맞다.

食神 : 꾸준하게 연구하거나 편한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연구나 수리 또는 서비스업이 적성에 맞다.

傷官 : 무엇에도 구애 받지 않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발명이나 영업 또는 강사 등이 적성에 맞다.

偏財 : 자신의 판단으로 큰 재물을 꿈꾸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사업이나 투자계통이 적성에 맞다.

正財 : 정확하고 착실하며 알뜰한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은행이나 경리 또는 숫자계통이 적성에 맞다.

偏官 : 강직하고 최고를 지향하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군인, 검찰, 경찰, 의료계통이 적성에 맞다.

正官 : 원칙과 정도에 맞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공무원이나 관리자 등이 적성에 맞다.

偏印 : 깊은 사고와 자신 위주의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종교, 철학, 심리 상담 등이 적성에 맞다.

正印 : 착하고 타인에게 도움 되는 삶을 추구한다. 그래서 교육이나 봉사, 계몽 등이 적성에 맞다.

5) 월지(月支)에만 있는 경우 -1

比肩•劫財•陽刃을 포함한 월령(月令=월지=월지장간=용신)이 투출(透出)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 『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는 “가만히 쓸 때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지지(地支)는 정(靜)하고. 천간은 동(動)하므로, 용신이 천간에 투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마음은 있으나 표출하지 않고, “가만히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용신(用神)이 지지(地支)에만 있고. 천간(天干)에 투출(透出)하지 않고 있는 경우는 자신의 본심을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사는 사람이 된다.

[용신이 투출하지 않은 경우]

위 명조는 인월임수(寅月壬水= 일간은 壬수이고, 寅월 즉 입춘 이후에 태어났다는 뜻)이다. 월지(月支) 寅에는 지장간(支藏干)이 戊土, 丙火, 甲木이 있으나, 천간(天干)에 월령(月令) 즉 용신(用神)이 투출(透出)하지 않고, 비견(比肩)들만 있는 경우이다.

이런 경우에는 월령(月令)이 천간(天干)에 투출하면, 천간(天干)에 있는 비견(比肩) 壬수들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성패(成敗)를 가려야 한다.

6) 변격(變格)의 경우(월지와 다른 기운이 투출)

변격(變格)이란? 월지(月支)와 다른 음양이나 오행을 가진 기운이 천간(天干)에 투출한 경우를 두고 말한다. 월지(月支) 즉 월령(월지장간)에는 대제로 두 가지나 세 가지의 기운을 담고 있다.

이 가운데 월지(月支)와 같은 육신(六神)이 천간에 투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월지(月支)와는 다른 음양이나 오행 즉 월령(용신)이 투출한 경우가 있다. 이럴 때를 두고 용신(用神) 즉 격(格)이 변했다고 하여 변격(變格)이라고 한다. 변격(變格)이 되면 본성과 사회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당연히 마음에 지니고 사는 삶의 가치관과 사회활동을 하며 나타나는 가치관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게 된다.

口 壬 丙 口

口 口 寅 口

[월지와 다른 월령(용신)이 투출한 경우]

앞의 명조는 월지(月支)가 식신(食神) 寅목이라 식신격(食神格)이다. 그러나 월간(月干)에 월령(月令) 중기(中氣)인 丙화 즉 편재(偏財)가 투출하였으므로 식신격(食神格)이 편재격(偏財格)으로 변격(變格)이 된 경우이다.

월지(月支)는 부모궁(父母宮)이므로 타고난 성정(性情)은 식신(食神)이지만 사회활동을 하며 나타나는 성정(性情)은 편재(偏財)가 된다. 그래서 낙천적이면서 푸근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정(性情)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회활동에서는 시원시원하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능수능란한 사람으로 보여진다는 것이다.

7) 겸격(兼格)의 경우 (용신이 2개 또는 3개)

겸격(兼格)이란? 월령(月令=용신)이 한 개 이상 2개 또는 3개가 투출한 경우를 말한다.

겸격(兼格)은 일단 천간(天干)에 월령(月令) 정기(正氛)와 함께 중기(中氣)나 여기(餘氣)의 기운이 함께 투출한 경우도 있지만 아예 월지(月支)와는 다른 기운 2가지가 투출한 경우도 있다. 먼저 변격(變格)이 된 이후에 겸격(兼格)이 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투출한 용신(用神)이 둘 이상이므로, 마음이 한결같지 못한 것이 바로 겸격(兼格)의 특성이다. 겸(兼)이라는 의미 자체가 한 가지가 아니라는 뜻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를 『적천수滴天髓』에서는 “용신

다자 성정 불상(用神多者 性情不常) 즉 용신이 많다는 것은 성정(性情)이 일정하지 않다." 고 했다. 이러한 겸격(兼格)은 운(運)에 의해서 성립이 되기도 한다. 즉 어느 한 가지의 기운이 투출해 있다가 다른 월령(月令)이 운(運)에서 다시 투출하게 되면 역시 겸격(兼格)이 되기 때문이다. 이것은 명(命)과 운(運)은 다름이 없다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다.

7) 겸격(兼格)의 경우 -2

壬　壬　丙　甲

口　口　寅　口

[두 개의 월령이 투출한 경우]

위의 명조는 월지(月支)가 식신(食神) 寅목이라 식신격(食神格)이다. 그러나 년간(年干)에 월령(月令) 정기(正氣)인 식신(食神)이 투출하였으나 월간(月干)에 월령(月令) 중기(中氣)인 丙화 즉 편재(偏財)가 함께 투출하였으므로 식신격(食神格)이 편재격(偏財格)을 겸(兼)하는 겸격(兼格)이 된 경우이다.

월지(月支)는 부모궁(父母宮)이므로 타고난 성정(性情)도 식신(食神)이고, 사회활동을 하며 나타나는 성정(性情) 역시 식신(食神)이지만 편재(偏財)의 성정(性情)도 함께 겸(兼)하여 나타난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낙천적이면서 푸근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정(性情)과 시원시원하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능수능란한 성정(性情)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사람인 것이다.

7) 겸격(兼格)의 경우 -3

戊　壬　丙　口

口　口　寅　口

[두 개의 월령이 투출한 경우]

위의 명조는 월지(月支)가 식신(食神) 寅목이라 식신격(食神格)이다. 그러나 월간(月干)에 월령(月令) 중기(中氣)인 丙화 즉 편재(偏財)와 시간(時干)에 월령(月令) 여기(餘氣)인 戊토 즉 편관(偏官)이 함께

투출하였으므로 식신격(食神格)이 편재격(偏財格)과 편관격(偏官格)으로 변격(變格) 및 겸격(兼格)이 된 경우이다. 월지(月支)는 부모궁(父母宮)이므로 타고난 성정(性情)은 식신(食神)이지만 사회활동을 하며 나타나는 성정(性情)은 편재(偏財)와 편관(偏官)이 된다. 그래서 낙천적이면서 푸근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정(性情)을 가진 사람이지만, 사회활동에서는 시원시원하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능수능란한 뛰어난 면과 함께 원칙만을 고수하고, 모질면서 지적을 잘하여 적이 많은 사람이 된다.

7) 겸격(兼格)의 경우 -4

戊　壬　丙　甲

口　口　寅　口

[월령이 모두 투출한 경우]

위의 명조는 월지(月支)가 식신(食神) 寅목이라 식신격(食神格)이다. 그러나 년간(年干)에 월령(月令) 정기(正氣)인 식신(食神)이, 월간(月干)에 월령(月令) 중기(中氣)인 丙화 즉 편재(偏財)가, 시간(時干)에 월령(月令) 여기(餘氣)인 戊토 즉 편관(偏官)이 함께 투출하였으므로 식신격(食神格)이 편재격(偏財格)과 편관격(偏官格)을 겸(兼)하는 겸격(兼格)이다.

타고난 성정(性情)과 사회활동을 주관하는 성정(性情) 식신(食神)이지만, 편재(偏財)와 편관(偏官)의 성정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낙천적이면서 푸근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정(性情)의 본 모습과 함께 시원시원하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능수능란한 뛰어난 면이 있지만, 원칙만을 고수하고, 모질면서 지적을 잘하여 적이 많은 사람이 된다.

7) 겸격(兼格)의 경우 -5

己　壬　丙　甲

口　口　寅　口

[월령이 모두 투출했으나 변격이 된 경우]

위의 명조는 월지(月支)가 식신(食神) 寅목이라 식신격(食神格)이다. 그러나 년간(年干)에 월령(月令) 정기(正氣)인 식신(食神)이, 월간(月干)에 월령(月令) 중기(中氣)인 丙화 즉 편재(偏財)가, 시간(時干)에 월령(月令) 여기(餘氣)인 戊토를 대신하여 정관(正官) 己토가 투출하였다. 그러므로 식신격(食神格)이 편재격(偏財格)과 정관격(正官格)을 겸(兼)하는 겸격(兼格)이다.

타고난 성정(性情)과 사회활동을 주관하는 성정(性情) 식신(食神)이지만, 편재(偏財)와 정관(正官)의 성정(性情)이 모두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낙천적이면서 푸근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정(性情)의 본 모습과 함께 시원시원하고 판단력과 결단력이 있는 능수능란한 뛰어난 면이 있지만, 공명정대하며 원리원칙을 고수하여 타인들로부터 신뢰와 신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위의 명조가 앞 페이지의 “겸격(兼格)의 경우 -4” 와 다른 점은 시간(時干)에 편관(偏官)이 아닌 정관(正官)이 투출했다는 것이다. 월령(月令)의 정기(正氣)는 분명 戊토가 맞으나 이렇게 월령(月令)의 정기(正氣)와 같은 오행(五行)이 천간(天干)에 투출하게 되면 그 기운 역시 용신(用神)이 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이런 경우에도 비견(比肩)이나 겁재(劫財)는 용신(用神)이 될 수 없다.

이런 논리에 관한 예는 다음과 같다. 가령 예를 들어, 丙午월의 庚금이라고 한다면 월지(月支)가 午화 즉 정관인데, 천간(天干)에 편관(偏官) 즉 칠살(七殺)이 투출한 경우가 된다. 壬子월의 丙화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丙午월의 乙목이나 壬子월의 辛금 역시 월지(月支)가 식신(食神)인데, 천간(天干)에 상관(傷官)이 투출하여 성정(性情)이 강하게 드러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庚 丙 午	丙 壬 子	乙 丙 午	辛 壬 子

[월령 자체가 변격이 된 경우]

제 11차시. 궁(宮)에 의한 심리 구분

1) 궁(宮)의 위치와 심리 -1

궁(宮)이란? 사주명리학은 명주(命主)의 현재의 상황이나 심리뿐만 아니라 미래의 상황과 심리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명주(命主)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와 변화해 가는 운(遵)의 성패(成敗)와 함께 심리의 변화 과정도 예측이 가능하다.

궁(宮)의 위치를 구분하면,

년지(年支)는 조상궁이 된다.
월지(月支)는 부모궁이 된다.
일지(日支)는 배우자궁이 된다.
시지(時支)는 자식궁이 된다.

1) 궁(宮)의 위치와 심리 -2

1) 궁(宮)의 위치와 심리 -3

년지(年支)는 조상덕의 유무와 초년기의 심리 기준이 된다.
월지(月支)는 부모덕의 유무와 청년기의 심리 기준이 된다.
일지(日支)는 부부덕의 유무와 장년기의 심리 기준이 된다.
시지(時支)는 자식덕의 유무와 말년기의 심리 기준이 된다.

년지(年支)는 뿌리(根)에 비유한다. (01세 ~ 20세)
월지(月支)는 묘목(苗)에 비유한다. (21세 ~ 40세)
일지(日支)는 꽃(花)에 비유한다. (41세 ~ 60세)
시지(時支)는 열매(實)에 비유한다. (61세 ~ 80세)

명리학 고전에는 초•청•장•말년을 1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1) 궁(宮)의 위치와 심리 -4

년지(年支)에 길신(吉神)과 일간(日干)의 근(根)이 있으면 조상덕이 있다.
월지(月支)에 길신(吉神)과 일간(日干)의 근(根)이 있으면 부모덕이 있다.
일지(日支)에 길신(吉神)과 일간(日干)의 근(根)이 있으면 배우자덕이 있다.
시지(時支)에 길신(吉神)과 일간(日干)의 근(根)이 있으면 자식덕이 있다.

년지(年支)에 길신(吉神)이 있으면 초년기가 좋다. (01세 -~20세)
월지(月支)에 길신(吉神)이 있으면 청년기가 좋다. (21 세 ~ 40세)
일지(日支)에 길신(吉神)이 있으면 장년기가 좋다. (41세 ~ 60세)
시지(時支)에 길신(吉神)이 있으면 말년기가 좋다. (61세 ~ 80세)

선빈후부(先貧後富)와 선부후빈(先富後貧)의 원인이기도 하다.

2) 형충회합(刑沖會合)에 따른 심리 -1

삼형(三刑)에 의한 심리

자묘(子卯)는 **무례지형(無禮之刑)**이다. 타인과의 관계에서 예의(禮義)에 벗어나는 언행을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인사신(寅巳申)은 **무은지형(無恩之刑)**이다. 은혜를 원수로 갚을 수 있다는 뜻이다, 자신을 도와준 사람의 은혜를 잊고 사는 경우가 많다.

축**술미(丑戌未)**는 **시세지형(恃勢之刑)**이다. 자신 주위의 세력을 믿고 날뛰는 경우가 많다.(恃:믿을 시)

2) 형충회합(刑沖會合)에 따른 심리 -2

충(冲)에 의한 심리

칠충(七冲)은 지지가 7번째 만나 서로 충돌한다는 뜻이다.
寅·申, 巳·亥, 子·午, 卯·酉, 辰·戌, 丑·未를 말한다. 타인들과 다툼이 많은 사람이라는 뜻이다.
또한 충(冲)을 하면 동(動)하므로 부지런한 사람에게 충(冲)이 많다.

그리고 영웅호걸의 명조에는 충(冲)이 많고, 합다자(合多者)는 소인이라고 했다. 영웅호걸은 불의를 보면 투쟁하려는 심리가 강하고, 소인배들은 불의를 보더라도 그냥 넘어가려고 한다.

2) 형충회합(刑沖會合)에 따른 심리 -3

충(沖)은 갑작스럽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충(沖)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사건이 발발하는 경우가 많다.

년지(조상궁)를 충(沖)하면, 외국으로 갈 일과 조부모나 묘지에 이상이 생긴다.
월지(부모궁)를 충(沖)하면, 직장이동과 부모 곁을 떠나는 일이 생긴다.
일지(배우자궁)를 충(沖)하면, 이사할 일과 배우자와의 불화가 생긴다.
시지(자식궁)를 충(沖)하면, 자식이나 손자가 떠나거나 이상이 생긴다.

2) 형충회합(刑沖會合)에 따른 심리 -4

삼합(三合)은 생(生) 즉 처음과 왕(旺) 즉 중간과 고(庫) 즉 마지막이 서로 합(合)을 한다. 육친(六親)으로 표현하면 아이와 청년과 노인이 서로 합(合)을 한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광범위한 합의를 이끌어 내거나 그런 능력과 심리를 포함하고 있음을 뜻한다.

그래서 인간관계나 직업관련 등 어느 상황에서도 합의를 도출시켜 내는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많다. 이러한 능력은 사회생활에 큰 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나 '합다자(合多者)는 소인'이라고 했으니 불의와도 타협을 하는 경우가 발생이 되므로 좋은 것만은 아니다.

2) 형충회합(刑沖會合)에 따른 심리 -5

육합(三合)은 음(陰)과 양(陽) 각각 하나씩의 기운이 서로 합(合)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러므로 삼합(三合)과 같은 포괄적인 합(合)이 아닌 남녀관계나 일대일 등의 직접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는 능력을 말한다.

子丑合, 寅亥合, 卯戌合, 辰酉合, 巳申合, 午未合의 여섯 가지의 합(合)인 육합(六合)의 순서를 보면, 水·金·火·木·土로 태양과 함께 태양계 행성의 위치와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삼명학에서는 육합(六合)의 변화를 통변(通辯)에 적용했다. 즉 子丑合化土하면 子水가 土기운으로 화(化)한다고 보고 적용을 했으나, 자평학에서는 합(合)하여 기능이 정지된 것만을 인정하고 변화는 적용하지 않았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1

지지(地支)는 궁(宮)과 함께 형충회합(刑沖會合) 및 12신살(神煞)과 연결이 된다. 년지 ·월지 ·일지 ·시지의 각 궁(宮)이 형(刑)이 될 때의 심리와 충(沖)이 될 때의 심리, 삼합(三合)이 되었을 때의 심리와 육합(六合)이 되었을 때의 심리가 각각 달리 나타나게 된다.

또한, 궁(宮)은 12신살(神殺)과 연결이 되면 그 각각의 심리가 달리 나타나게 된다. 12신살(神殺)은 겁살劫殺 ·재살災殺 ·천살天煞 ·지살地殺 ·년살年殺 ·월살月殺 ·망신살亡身煞 ·장성살將星煞 ·반안살攀鞍煞 ·역마살驛馬煞 ·육해살六害煞 ·화개살華蓋煞이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2 겁살劫殺

겁살(劫煞)은 '겁탈당하다', '잃어버리다'라는 불의의 사태로 귀중한 것을 빼앗긴다는 의미로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갑작스런 사건, 사고수가 많다.

사주 또는 대·세운에서 겁살(劫煞)을 만나면 재물손상이 생기고, 부친의 갑작스런 불행, 처의 변고나 사고가 생길 수 있다.

재물 손상이 없으면 갑자기 급박한 사고나 수술 또는 사망에 이르거나 난데없는 폭행을 당하기도 한다. 또한 도둑이 들어 재물의 손상이 생길 때도 역시 겁살(劫煞)이 들 때이다.

겁살(劫煞)이 있으면 고집이 세고 욕심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운(運)이 좋을 때는 갑자기 발재(發財)하여 하기도 하므로 사주의 청탁(淸濁)과 대·세운의 흐름을 고루 살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3 재살 災殺

재살(災煞)은 수옥살(囚獄殺)이라고도 불린다. 관재구설(官災口舌)로 화(禍)를 입거나 갑작스런 재난(災難)을 암시한다. 자신의 과오나 타인의 행위에 의한 불의의 사고, 건강과 재산손실을 의미하기에 명조 내에 존재하거나 운에서 만나면 항상 경거망동을 삼가 해야 한다.

사주 내에 수옥살(囚獄殺)이 있으면서 탁(濁)하거나 운(運)의 흐름이 좋지 않는 경우, 특히 관재, 송사, 납치, 감금과 연관되어 감옥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하는 흉살이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4 천살天煞

천살(天煞)은 물, 불, 바람 등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갑작스럽게 당하는 불행을 암시하고 있으며, 불시에 재난과 화근이 미치고 돌발적인 상황에 직면하게 됨을 나타낸다.

자신의 과오보다는 일기, 기후의 변화에 의해 억울하게 당하는 경우가 많다고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살(天煞)이 들면, 갑작스런 화재. 수몰. 산사태 등 불의의 피해를 보기도 하고, 천재지변을 당하는 때 역시 천살(天煞)이 작용하는 시기라고 볼 수 있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5 지살地殺

지살(地殺)은 인간이 디디고 사는 땅을 이 곳 서 곳 옮겨 다니며 밟는다는 뜻으로 역마살과 비슷한 의미이다.

고향을 일찍 등져 타지 생활을 하기도 하고, 주거지나 직업적 이동이 찾아 여러 지역을 옮겨 다니는 경우가 많다.

지살(地殺)이 길신(吉神)과 동주(同柱)하면 외국을 넘나들며 직위나 재물을 취할 수 있기에 현대에 와서는 오히려 길신(吉神)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 지살운(地殺運)에는 이사, 이직, 여행, 발령, 해외이민 및 차량사업이나 차량 사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6 년살年殺

년살(年殺)은 함지살(咸池殺)이나 음욕살(淫慾殺) 또는 도화살(桃花殺)이라고도 하는데. 이성에 대한 관심이 지나치게 많고 현숙치 못하여 쉽게 유혹에 넘어가 화근을 자초한다는 살이다.

년살(年殺)이 배우자궁이나 배우자성에 해당이 될 때는 외정(外情)에 의한 문제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와 반대로 화려함과 창조적인 일, 이성과 접촉이 빈번한 서비스계통에 종사할 때는 오히려 좋게 작용한다. 이 때문에 현대에는 연예인, 유명 모델, 예술가로 이름을 알리는 경우가 많아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7 월살月殺

월살(月殺)은 기운이 유통되지 못하고 쌓여서 오히려 피해가 나는 것으로 근본이 무너지거나 기본적인 자산. 근거지의 파괴를 뜻한다. 이 때문에 월살(月殺)이 들 때는 곡식의 파종, 집의 건축 또는 수리, 동물의 교미, 그리고 결혼식 등에는 절대로 피해야 할 일진이 된다.

고서에서 “동지섣달 긴긴밤을 임 그리워하며 눈물짓네.” 라는 말처럼 외로움이나 고독을 의미한다. 그래서 배우자성이나 배우자궁이 월살(月殺)이면 배우자와 함께 지내지 못하던지, 배우자가 있어도 독수공방해야 할 일이 많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8 망신살亡身煞

망신살(亡身煞)은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사주 내에 망신살이 있으면 자신이나 육친이 언행으로 타인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게 됨을 의미한다.

망신살(亡身煞)이 중(重)하면 자신의 행동은 떳떳하나 타인들이 곡해하거나 본의와는 상관없이 잘못 비춰서 험담을 듣게 되거나 지탄을 받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육친 간 생사이별이나 사기 또는 억울한 누명으로 인한 감옥살이 등을 들 수 있는데, 망신살(亡身煞)이 동주(同柱)하고 있는 육친을 잘 살펴서 가려야 한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9 장성살將星煞

장성살(將星煞)은 용기와 결단력을 겸비한 진취적인 기상이 있음을 의미 하는데, 외동딸이 많고 학창시절이나 사회생활을 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많다.

단점으로는 장성살(將星煞)이 있으면, 여자는 남자를 누르고 집안의 주도권을 휘어잡아 불화로 끝내 중도 이별하는 경우가 많아 주의를 요한다. 또한 고독한 생활, 늦게 자식을 두거나 정 없이 키우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여성이라면 활동이 많은 경우에는 고속 승진하여 최고 경영자나 그룹 리더가 되기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일장일단이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10 반안살攀鞍煞

반안살(攀鞍煞)은 '말안장을 휘어잡는다.' 라는 뜻이다. 사주에 반안살(攀鞍煞)이 있으면 장점으로는 직장 구하기가 용이하고, 승진 기회를 놓치지 않으며. 여자의 경우 임기응변에 능하다.

단점으로는 대급부로 쉽게 그만두기도 하고, 여자는 잦은 이동으로 남자와 해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반안살(攀鞍煞)은 취직, 승진 및 진학에 길성(吉星)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아 길신과 같이 방위(方位)나 시(時)를 잡을 때 활용 한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은인 역시 반안살(攀鞍煞) 방향에 있고, 새로운 일을 하고자 할 때 문서나 행동시점을 반안살(攀鞍煞)과 연관이 되는 시(時)에 있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11 역마살驛馬煞

역마살(驛馬煞)이 있는 경우 오랫동안 한자리에 지키지 못하고, 이곳저곳 기웃거리며 돌아 다녀야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 된다. 또한 사주에 역마살(驛馬煞)이 있으면 호기심으로 취하려는 것이 많아 직접 확인하거나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선호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역마살(驛馬煞)이 있으면 실천력이 있어 조직 내에서 인정은 받지만 지속력이 부족해 장기간 집중을 요하는 일에는 적합하지 않다. 또한 신중하지 못한 행동으로 인하여 본의 아닌 구설수에 휘말리는 경우가 많고, 분수나 상황판단이 미숙해 난처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도 많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12 육해살六害煞

육해살(六害煞)은 여섯 가지 해로움을 뜻하는데, 주로 건강과 관련된 흉살(凶殺)이라고 할 수가 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과 신음 그리고 갑작스런 전염병 등을 초래할 수가 있고. 정신착란이나 잡신이 들어 헛것이 보이거나 정신이 맑지 못해 돌출 행동을 하기도 한다.

사주에 육해살(六害煞)이 있으면 대체로 선천적인 잔질 때문에 고생을 하며, 병약하여 평생 약첩이 떠날 날이 없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사주 내에 육해살(六害煞)이 있는 사람이 활인술이나 의료계통에 종사하면 오히려 길하게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3) 신살(神殺)에 의한 심리 -13 화개살華蓋煞

화개살(華蓋煞)은 십이운성(12運星) 중 사고지(四庫支)에만 해당이 되는데, 만물의 기운이 활동을 마치고 휴식기에 들어가는 때이다. 다음을 기약하며 그 동안 사용하던 연장 등을 곳간에 일단 들여 놓는 것과 같으므로 일이나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단됨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재충전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한다. (華 : 빛날 화, 蓋 : 덮을 개)

화개살(華蓋煞)은 고요히 다음을 준비하며 학문에 정진하거나 자신을 닦는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선비의 자리라고도 한다. 세속적인 일을 떠나 자신을 수양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므로 종교인, 무속인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문화, 예술, 신양생활, 종교단체와 관계되는 일과 연관이 있다.

제 12차시. 운(運)에 의한 심리 변화

1) 운(運)의 분류

사주(四柱)는 태어난 현재의 간지(干支)를 나타낸 것이라면, 운(運)은 흘러가는 시간에 맞춘 간지(干支)를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사주(四柱)는 고정되어 있는 간지(干支)라고 한다면 운(運)은 변화를 나타내는 간지이다.

먼저, 시간의 흐름은 시진(時辰)으로, 하루하루의 흐름은 일진(日辰)으로, 매달의 흐름은 절운(節運)으로, 매년의 흐름은 세운(歲運)으로, 10년씩의 흐름은 대운(大運)으로 나타낸다. 운(運)의 흐름을 사주에 대입하면 변화가 나타나므로 그것으로 심리의 변화를 읽을 수 있다.

2) 운(運)의 구성-1

시진(時辰)은 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의 순으로 흘러간다. 여기에 일간(日干)에 따라 시간(時干)의 기운이 바뀌어 간다.

甲己일은 甲子時부터, 乙庚일은 丙子時부터, 丙辛일은 戊子時부터, 丁壬일은 庚子時부터, 戊癸일은 壬子時부터 시작 된다.

시진(時辰)은 하루를 12시간으로 구분했기 때문에. 지금의 2시간을 한 시간으로 해야 한다. 시간은 하루 중에서 어떤 일을 몇 시에 하면 좋을까? 또는 몇 시쯤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 를 예측하는데 활용한다. 그러나 시진(時辰)은 활용 범위가 적다.

2) 운(運)의 구성-2

일 간	甲 · 己	乙 · 庚	丙 · 辛	丁 · 壬	戊 · 癸
시 진	甲 子	丙 子	戊 子	庚 子	壬 子

[표 -30] 지지조화도표(地支造化圖表)

위 도표는 일간(日干)에 따른 子時의 천간(天干)을 나타낸 것이다. 하루의 시작은 子時에서 시작이 된다. 그러나 천간(天干)의 기운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일간(日干)에 맞춰서 정해야 한다.

2) 운(運)의 구성-3

일진(日辰)은 하루의 운과 심리상태를 예측하는데 활용한다. 하지만 만세력을 보질 않고, 일진(日辰)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어렵다는 것이다. 그래서 대부분 만세력 책을 보거나 휴대폰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하게 된다.

보통 좋은 일이 발생하면 "오늘 하루 일진이 좋구나." 그러기도 하고, 뜻대로 되지 않거나 흉한 일을 당하면 “오늘 하루 운수가 사납구나.” 라는 말들을 하는데, 그 원인이 바로 일진(日辰)의 변화 때문이라고 보면 된다. 이러한 일진(日辰)의 변화 때문에 오전에는 활력이 넘치다가, 오후에 들어서 의기소침해지기도 한다.

2) 운(運)의 구성-4

절운(節運)은 시진(時辰)과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지지의 변화가 일률적이다. 寅卯辰은 봄, 巳午未는 여름, 申酉戌은 가을, 亥子丑은 겨울로 木-火-金-水 사계절의 변화가 일률적이다.

이렇게 지지(地支)의 운(運=方) 흐름이 반복이 되므로 어느 계절에 운(運)이 좋고. 어느 계절에 운(運)이 좋지 않은가 하는 패턴을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해마다 반복해서 지지(地支)가 똑같이 변화를 하는 패턴을 보여주기 때문에, 자신이나 상대방이 현재 궁금해하거나 고민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측하는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다. (來訪四柱 활용)

2) 운(運)의 구성-5

세운(歲運)은 한 해의 운(運)을 나타낸다. 그래서 그 한 해의 길흉(吉凶)을 알아보려면, 그 해의 간지(干支)를 사주에 대조하여 예측을 한다. 세운(歲運)의 간지(干支)는 그 해에 해당하는 60갑자에서 구하면 된다.

세운(歲運)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운이다. “올해는 합격할까?, 올해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올해는 직장을 구할 수 있을까?, 올해는 아기를 낳을 수 있을까?, 올해는 집을 장만할 수 있을까?' 등 세운(歲運) 간지(干支)를 사주에 대조하여 한 해의 운(運)을 예측한다.

그러나 세운 역시 방(方)의 흐름을 감안해야 한다. 예를 들어 丑년이라면 水運임을 감안 한다.

2) 운(運)의 구성-6

대운(大運)은 10년씩 변해가는 운이다. 그러므로 대운(大運)의 방(方)을 월지(月支)에 대조하여 초년 · 청년 · 장년 · 말년의 운과 10대, 20대, 30대 등 세월에 따른 인생의 길흉을 예측한다.

여기서 방(方)은 寅卯辰-木方, 巳午未-火方, 申酉戌-金方, 亥子丑-水方을 뜻한다.

그래서 간명(看命)할 때 단시간에 명주(命主)의 인생행로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남자와 여자는 운(運)이 서로 반대로 흐르기 때문에 남자로 태어난 것이 좋았는지, 여자로 태어난 것이 좋았는지 하는 문제를 금방 확인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3) 운(運)의 작용-1

형(刑)은 송사나 시시비비로, 충(冲)은 갑자기 발발하는 사고나 사건으로, 삼합(三合)이나 육합(六合)은 계획을 하여 또는 준비를 했던 일이나 상황 등으로 해석이 된다.

지지(地支)는 결론을, 천간(天干)은 배경이나 환경을 나타낸다. 사주에 세운(歲運)을 대조하면 한 해에 벌어질 일을 예측할 수 있다.

지지(地支)가 식신(食神)이고, 천간(天干)이 비견(比肩)이면 '지인과 함께 여행이나 먹고 살려고 일을 하게 된다.' 로 해석이 된다. 이때 년지(年支)를 충(冲)하면 갑자기 해외로, 년지(年支)를 합(合)하면 '계획을 세운 뒤에 여행이나 일을 하려고 간다.' 로 예측이 된다.

3) 운(運)의 작용-2

사주(四柱)와 운(運)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청대(淸代)의 『자평진전子平眞詮』에서는 '사주(四柱)와 운(運)은 서로 다르지 않다.'고 했다. 즉 사주(四柱)는 운(運)에 의해서 변화를 하기 때문에, 성중유패(成中有敗)가 생기고, 패중유성(敗中有成)이 일어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시진(時辰)은 일진(日辰)과 대조, 일진(日辰)은 절운(節運)과 대조, 절운(節運)은 세운(歲運)과 대조, 세운(歲運)은 대운(大運)과 대조하여 성패(成敗)를 가린다는 점이다. 대운 속에 세운이, 세운 속에 절운이, 절운 속에 일진이, 일진 속에 시진이 있기 때문이다.

3) 운(運)의 작용-3

사주에 세운이나 절운을 대조할 때, 일간으로 세운이나 절운의 간지를 보고 십신을 구분한다.

	일진	절운	세운	대운
壬戊戊庚 戌申寅戌	甲 寅	庚 辰	庚 子	癸 未
	편관 편관	식신 비견	식신 정재	정재 겁재

위 명조(命造)는 일간(日干)이 戊토이다. 그러므로 일간(日干)인 戊토의 입장에서 모든 십신(十神)을 규정한다. 계미대운(癸未大運)의 지지(地支) 未토는 겁재이고, 천간(天干)은 癸수 정재이다. 경자세운(庚子歲運)의 지지(地支) 子수는 정재이고, 천간(天干)은 庚금 식신이다. 경진절운(庚辰節運)의 지지(地支) 辰토는 비견이고, 천간(天干)은 庚금 식신이다. 갑인일진(甲寅日辰)의 지지(地支) 寅목은 편관이고, 천간(天干) 甲목 역시 편관이다.

4) 일진(日辰)의 통변(通變)

壬戊戊庚　甲　庚
戌申寅戌　寅　辰

하루의 운, 즉 일진(日辰)을 알아보는 경우는 우선 사주 본명(本命)에 일진(日辰)을 붙인 후 일진(日辰)의 지지(地支)와 천간(天干)을 각각 사주 본명(本命)의 지지(地支)와 천간(天干)에 붙여서 통변(通變)을 하면 된다. 이때 일간(日干)인 명주(命主) 戊토의 입장에서 보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일진(日辰)인 甲寅은 지지(地支)와 천간(天干)이 모두 살(殺)이므로 난제(難題)에 직면함을 알게 된다. 그리고 월지 寅목은 년지(年支)와 시지(時支)의 戌토와는 반합(半合=寅戌)을 하면서 일지(日支) 申금과 인신충(寅申冲)을 하는데, 寅은 지살(地殺)이고 申은 역마(驛馬)라 지살과 역마의 충(沖)이다. 이 명조에서 천간에 甲목 살(殺)이 투출하면 식신(食神) 庚금이 제대로 역할을 하게 된다(食神制殺).

종합해보면, 어려운 문제에 봉착을 해서 멀리 떠나야 할 일이 발생된다. 교통사고도 조심할 때이다. 일지(日支)와 충(冲)을 하므로 부부싸움도 예상된다. (地支는 결과, 天干은 상황)
절운 庚辰과 대조하여 성패(成敗)를 가리면 寅목 살(殺)에 비견(比肩) 辰토이므로 큰 문제가 없고, 천간은 살(殺) 甲목이 식신(食神) 庚금에 극(剋)을 당하여 성격(成格)이 되므로 아랫사람 덕에 오히려 공(功)을 세울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 절운(節運)의 통변(通變)

壬 戊 戊 庚　庚　庚
戌 申 寅 戌　辰　子

한 달의 운 즉 절운(節運)을 알아보는 경우는 사주 본명(本命)에 절운(節運)을 붙인 후 절운(節運)의 지지(地支)와 천간(天干)을 각각 사주 본명(本命)의 지지(地支)와 천간(天干)에 붙여서 통변(通變)을 하면 된다. 일간(日干)인 명주(命主) 입장에서 봤을 때, 절운(節運) 庚辰의 지지(地支) 辰토는 비견이고 천간(天干)의 庚금은 식신(食神)이므로 문서를 쥐고 먹고 살 일을 해보려고 한다.
그리고 년지(年支)와 시지(時支)와는 辰戌 충(冲)을 하면서 역마(驛馬)인 일지申금과는 申辰 반합(半合)을 한다. 세운(歲運) 庚子와 대조하여 성패(成敗)를 가리면 천간(天干)은 상신(相神)인 식신(食神) 庚금이라 성(成)이지만 申子辰 수국(水局)이 되므로 지지는 패(敗)가 난다.

종합해 보면, 비견 즉 지인 함께 집을 팔던지 하여 멀리 떠나서 뭔가 하고 싶은 일을 해 보려고 시도하는 시기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천간(天干) 즉 밖으로는 편해 보이지만 내부적으로는 돈 문제로 오히려 곤경에 빠질 수 있는 시기가 된다.
지지(地支)는 결과이고, 천간(天干)은 상황이나 배경 또는 환경이기 때문에, '빛 좋은 개살구'가 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경거망동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던 일이나 열중하라고 조언을 해 줘야 한다.

6) 세운(歲運)의 통변(通變)

壬 戊 戊 庚　庚　癸
戌 申 寅 戌　子　未

일 년의 운(運) 즉 세운(歲運)을 알아보는 경우는 사주 본명(本命)에 세운(歲運)을 붙인 후 세운(歲運)의 지지(地支)와 천간(天干)을 각각 사주 본명(本命)의 지지(地支)와 천간(天干)에 붙여서 통변(通變)을 하면 된다. 일간(日干)인 명주(命主) 입장에서 봤을 때, 세운(歲運) 庚子의 지지(地支) 子수는 정재(正財)가 되고, 천간(天干) 庚금은 식신(食神)이라, 재(財)과 식신(食神)의 조합이므로 재물이나 여자와 식신 즉 즐기려 하는 시기가 된다.
특히 세운(歲運) 지지(地支) 子수는 일지(日支) 申금과 자진반합(子辰半合)하여 반수국(半水局)을 이룬다. 세운(歲運) 庚子를 대운(大運) 癸未와 대조하여 성패(成敗)를 가리면 천간(天干)은 식신생재(食神生財)라 패(敗)가 나지만 월지(月支)인 寅목 살(殺)을 생(生)해줘서 대패(大敗)가 날 수 있는 세운(歲運) 지지(地支) 子수를 대운(大運) 지지(地支) 未토가 막아주게 되어 다행이다.

종합해 보면, 일지(日支)는 배우자 궁인데, 배우자 궁에 재(財)가 합(合)하고 들어오고, 천간(天干)은 식신(食神)이라 여자와 즐기려 하는 시기가 된다. 그리고 子申 반합(半合)하여 재(財)가 국(局)을 이루게 되므로 크게 흉할 수 있음을 뜻한다.

천간(天干)의 상황을 보면 월간(月干)의 상신(相神) 戊토를 대운(大運) 천간(天干) 癸수가 戊癸 合하는 중에 식신(食神) 庚금이 다시 투출하여 식신생재(食神生財)하면 대패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세운(歲運)의 지지(地支)도 문제지만 천간(天干)의 상황은 큰 패(敗)가 날 수 있으므로 특히 여자를 조심해야 하는 시기이다. 대운(大運) 未토가 상신(相神) 역할을 하게 되므로 문제가 생기기 전이나 후에는 반드시 지인들의 충고를 들어야 하는 시기이다.

제 13차시. 내방자(來訪者)의 심리 구분

1) 내방사주(來訪四柱)란?

피상담자가 어떤 문제로 상담을 하러 방문했는가를 예측하는 방법을 말한다. 사람은 시간과 상황에 따라서 심리에 변화가 있기 마련인데, 명리학에서는 이것을 간지의 움직임에 대조하여 예측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그래서 피상담사의 사주에 그 날의 일진을 대조하기도 하고, 상담자의 사주에 그 날의 일진을 대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몇 일이나 몇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상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당일 날 갑자기 생긴 고민으로 찾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드물고, 대체로 여러 날을 두고 고민을 하다가 방문한다.

한해의 간지가 바뀌면 생각이 크게 변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사주의 간지 전체가 변하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운의 흐름도 바뀌기 때문에 삶과 심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할지 모른다.

그렇기 때문에 피상담자의 사주에 세운(歲運)과 절운(節運)을 대조하면 내방자의 방문 목적인 고민과 심리상태를 예측할 수 있게 된다.

이때에도 역시 천간의 역할과 지지의 역할에는 차이가 있다. 세운(歲運) 간지는 한 해 동안 생각하고 있는 내방자의 심리라면, 절운(節運)은 내방자의 직접적인 방문 목적이 들어있다고 보면 된다.

그래서 피상담자의 사주에 그 날의 일진(日辰)을 대조하기도 하고, 피상담자가 내방 시 상담자의 사주에 그 날의 일진(日辰)을 대조하기도 한다. 그러나 일반적인 경우 상담을 의뢰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몇 일이나 몇 달 정도 고민을 하다가 상담 의뢰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에도 역시 세운(歲運)이나 절운(節運)이 사주 본명(本命)의 지지(地支)와 형충회합(刑冲會合)이 일어나는지, 역마나 지살 등의 신살(神殺)에 해당되는지도 함께 살펴야 한다.

그래서 형(刑)이 어느 지지와 엮이게 되는지를 확인한다.

년지(年支)와 충(冲)이나 합(合)이면 외국이나 먼 타지와 연관
월지(月支)와 충(冲)이나 합(合)이면 직업문제와 부모형제 문제
일지(日支)와 충(冲)이나 합(合)이면 이사와 배우자와의 충돌
시지(時支)와 충(冲)이나 합(合)이면 자식으로 인한 문제 발생

세운(歲運)과 절운(節運)을 사주 본명(本命)에 대조하여 각 궁(宮)과의 형충회합(刑冲會合)과 성패(成敗)를 확인했으면 피상담자에게 통변(通辯)의 묘(妙)를 살려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된다. 이때 일간(日

干)을 기준으로 세운(歲運)과 절운(節運)의 지지와 천간의 십신(十神)을 구분하여 설명해 주면 된다.

운(運)의 지지는 결과가 되고, 천간은 배경이나 상황이 된다.

세운(歲運)은 대운(大運)과 대조하여 성패(成敗)를 가리고, 절운(節運)은 세운(歲運)과 대조하여 성패(成敗)를 가리면 된다.

3) 내방자(來訪者)의 심리 요약

成敗 / 十神	成	敗
比肩	동업, 화합 / 형제, 친구	다툼, 경쟁 / 형제, 친구
劫財	투자, 횡재 / 이성, 지인	破財, 失物 / 부인, 부친
食神	생계, 평안 / 부하, 자식	실증, 위약 / 부하, 자식
傷官	변화, 변동 / 부하, 자식	실직, 위법 / 부하, 자식
財	取富, 충족 / 부친, 부인	부도, 탕진 / 부친, 부인
官	진급, 취업 / 남편, 자식	관재, 퇴직 / 남편, 자식
殺	성공, 업적 / 수장, 자식	사망, 수술 / 적군, 상사
印	합격, 문서 / 부모, 어른	탈락, 해고 / 부모, 어른

[표 -31] 내방자(來訪者)의 심리(心理) 요약 도표(要約 圖表)

운(運)을 만났을 때 같은 십신(十神)이라도 길신(吉神)으로 쓰일 때는 그 십신(十神)의 장점과 육친의 도움이 드러나고, 흉신(凶神)으로 쓰일 때는 그 십신(十神)의 단점과 육친의 방해가 드러난다.

비견(比肩)이 가진 의미는 어깨를 견준다는 뜻으로 좋게 쓰일 때는 동업자나 도움을 받고, 주위의 덕을 보기도 한다. 그러나 흉신으로 쓰일 때는 다툼이나 경쟁 및 지인들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

겁재(劫財)가 가진 의미는 재물을 빼앗긴다는 뜻이다. 그러나 좋게 쓰일 때는 투자할 일이나 횡재를 하기도 한다. 또한 남매의 도움이나 지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흉신으로 쓰일 때는 파산을 하거나 재물을 잃어버리기도 한다. 남자는 부인이나 부친, 여자는 부친이나 시모에 변고가 생긴다.

식신(食神)이 가진 의미는 풍요와 넉넉함이다. 좋게 쓰일 때는 먹고 살 일이 생기고 평안하며 건강을 보장 받을 수 있다. 육친상으로는 부하나 자식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흉신으로 쓰일 때는 매사에 실증을 느끼게 되고, 먹고 살 길이 막히며 부하와 자식으로 인한 근심을 앓게 된다.

상관(傷官)이 가진 의미는 명예를 잃어버린다는 뜻이다. 그러나 좋게 쓰일 때는 새로운 도전이나 좋은 변화와 변동 및 인기를 얻게 되고 역시 부하나 자식 덕을 보게 된다. 그러나 흉신으로 쓰일 때는 직장

을 잃게 되거나 법을 어기는 일이 발생되며, 부하나 자식이 자신이 명예와 자리를 빼앗게 된다.

재(財)가 가진 의미는 재물이나 이익이다. 좋게 쓰일 때는 부자가 되거나, 자신이 원하는 바를 얻게 된다. 부친과 여자 또는 시모의 덕을 보게 된다. 그러나 흉신으로 쓰일 때는 부도나 가산을 탕진하게 되며 부친이나 부인 또는 시모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관(官)이 가진 의미는 명예와 직위이다. 길신으로 쓰일 때는 취업이나 진급을 하게 되며, 남편이나 자식으로 인한 덕을 보게 되지만 흉신으로 쓰일 때는 관재수가 생기거나 직장을 잃게 되며, 남편이나 자식으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된다.

살(殺)이 가진 의미는 죽음이나 난제이다. 그러나 좋게 쓰일 때는 어려운 일을 완수하여 성공하거나 업적을 남기게 되며, 최고 위치가 되거나 자식 덕을 보게 된다. 그러나 흉신을 쓰일 때는 사망하거나 수술이나 병고를 겪게 되며, 적을 만나거나 상사로부터 고통을 받게 된다.

인(印)이 가진 의미는 학문이나 문서이다. 좋게 쓰일 때는 합격을 하거나 상장 또는 좋은 문서를 얻게 되고, 부모님이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게 된다. 그러나 흉신으로 쓰일 때는 시험에 떨어지거나 해고를 당하기도 하며 부모님이나 어른들 때문에 고통을 겪게 된다.

4) 내방사주(來訪四柱)와 적용-1 (식당 -> 매매)

[84년생 여자]	[내방사주]
2월 19년 30운	
戊 乙 甲 甲	丁 己 辛	辛 甲 丁 己
寅 巳 戌 子	卯 亥 未	未 寅 卯 亥

월지와 천간에 투출한 용신이 財이다. 지지에서는 월지의 상관 巳화가 상신(相神) 역할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천간에는 년간과 월간에 겁재 甲목이 양투(兩透)하여 있으므로 겁재가 병(病)이 된다. 그래서 대운의 방은 남방 火운이나 서방 金운이 가장 좋고, 천간에서는 정관을 만나서 겁재를 극(剋)하는 것이 가장 좋고, 식상을 만나서 통관(通關)하여 재를 살리는 것이 차선으로 좋다.

己亥年은 地支가 印이고, 天干이 財라 풀이하면 “문서인데 돈과 관련이 된 것이다.” 월지나 천간의 용신이 財라 좋게 볼 수 있으나, 세운 지지 亥수가 대운 未토와 亥未半合을 하여 木局을 이루게 되므로 불발이고, 세운 천간 己토 財는 대운 辛금 殺을 생하기에 패(敗)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어려움이 가중된다.

丁卯月은 지지가 卯로 亥卯未 木局을 이루어 어렵지만, 천간은 食神이라 ‘어려운 중에 마음 편히 지낼 방법을 찾기 위해 방문’한 것이다.

4) 내방사주(來訪四柱)와 적용-2 (대안학교 -> 자퇴)

[02년생 여자]	[내방사주]
2월 19년 13.5운	
辛 己 庚 壬	甲 庚 丁 己
丁 己 戊	
未 未 戌 午	申 戌 卯 亥
卯 亥 申	

월지가 겁재이고, 천간에 투출한 용신은 월지장간 戊 중의 辛금 즉 식신이다. 월간에 상관 庚금이 함께 투출하였으므로 격이 조금 떨어진 경우이다. 그러나 년간에서 만난 정재 壬수가 있어 식상생재(食傷生財)가 되어 그나마 성격(成格)이 되었다. 대운의 방은 관운으로 흐르는 동방 木운이 가장 좋고, 식상으로 흐르는 서방 金운이 차선으로 좋다.

己亥年은 地支가 財이고, 天干이 比肩이라 "돈인데 친구와 관련이 된 것이다." 월지는 劫財 천간은 용신이 食傷이다. 세운 지지 亥수가 대운 지지 申금과 財逢傷官하니 친구와 함께 돈을 벌려고 한다. 무인성(無印星)에 대운이 傷官에 劫財라 친구와 놀 궁리만 한다.

丁卯月은 卯목이 殺이고, 丁화가 印이라 어려운 문서를 쥐려고 한다. 그리고 卯목은 월지 戌토와 卯戌合이면서 일지 未토와도 卯未半합이라 '돈 관련 직업, 이성을 만날 수 있는 시기'다.

4) 내방사주(來訪四柱)와 적용-3 (상속 및 세금)

[77년생 남자]	[내방사주]
2월 19년 30운	
甲 辛 癸 丁	丁 戊 丁 己
丁 己 辛	
午 未 卯 巳	巳 申 卯 亥
卯 亥 未	

월지가 편재이고, 천간에 투출한 용신은 시간의 甲목 정재이다. 년간에서 丁화 칠살을 만나 패격(敗格)이 될 것이나 월간의 癸수 식신이 살을 극(剋)하면서 재를 생(生)하고 있으므로 상신(相神)이 된다. 일간의 근(根)은 정관인 년지 巳화 중의 庚금에 있다. 대운의 방은 관운으로 흐르는 남방 火운이 가장 좋고, 식상으로 흐르는 북방 水운이 차선으로 좋다. 천간에서 戊토(戊癸合)나 己토(甲己合)를 만나면 패격(敗格)이 된다.

己亥年은 地支가 傷官이고, 天干이 印이라 풀이하면 "상황이 변하고, 말썽이 났다. 문서 때문이다." 월지나 천간의 용신이 財인데, 대운 未토와 亥卯未 木局 즉 財局을 이루게 되므로 재물이 커졌다. 세운 천간 己토는 印이라 문서나 부모가 된다. 그러나 甲己合이 되므로 이득도 취하지만 묶일 것도 많다.
丁卯月은 절운 지지의 卯목은 財고, 절운 천간의 丁화는 殺이라, '재물로 인한 어려움이 있다는 뜻'이 된다. 실지로 상속세로 고민이 많다.

4) 내방사주(來訪四柱)와 적용-4 (공직 -> 이동, 진급)

[64년생 남자]	[내방사주]
1월 19년 30운	
丙 甲 庚 甲	丙 己 辛	壬 甲 丙 己
寅 午 午 辰	寅 亥 未	申 申 寅 亥

월지는 상관이고, 천간에 투출한 용신은 시간의 丙화 식신이다. 흉신을 남기고, 길신을 올려 놓은 경우이다. 그리고 丙화 식신이 칠살 庚금을 극(剋)하고 있어, 식신제살(食神制殺)하는 귀명(貴命)이다. 丙辛合하는 辛금을 만나면 패격(敗格)이 된다. 이 명조는 여름나무이다. 그래서 인운으로 흐르는 북방 水운이 가장 좋고, 인을 생(生)하는 관운인 서방 金운이 두 번째로 좋은 운이다.

己亥年은 地支가 印이고, 天干이 財라 풀이하면 “문서를 쥐고 재물(욕구)을 벌고자 하는 시기다.” 그러나 세운 지지 亥수 印이 대운 지지 未토와 亥未半合하여 比劫이 되므로 불발이다. 천간의 己토 財도 本命의 월간 庚금과 대운 辛금 즉, 殺과 官을 생하게 되므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빠질 수 있게 된다.

丙寅月의 寅목은 比肩이고 丙화는 食神이라, ‘동료의 도움으로 자신의 재능발휘나 먹고 살 일을 하고 싶다’ 는 뜻이 된다.

제 14차시. 명리상담 실례 1

1) 실례(직업 : 체험학습 프로그램)

[72년생 여자]

丙 己 辛 壬
寅 巳 亥 子

79 69 59 49 39 29 19 9.0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庚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본성 : 월지와 용신이 다 같이 正財라 치밀하다.
활동 : 食神을 印이 合(丙辛合)하고 있기에 남을 돕는 것 보다는 남을 이용하는 스타일이다.
결정 : 일지 正印이 월지 財에 剋을 받아 착하나 이익이 생기면 인간적인 면은 접고 이익을 추구한다.
대운 : 월지가 財인데, 食傷에서 印運으로 흘러가므로 재능을 발휘하다가 뒤에 학문과 연관을 시키면서 살아간다. 丁未大運은 천간의 壬수와 지지의 亥수 財가 모두 合去되며, 戊戌年은 財가 用神인데 천간과 지지 모두 劫財이므로 파산 했다.

2) 실례(직업 : 어린이집 보육교사)

[66년생 여자]

己 丙 壬 丙
亥 申 辰 午

72 62 52 42 32 22 12 2.0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申 酉 戌 亥 子 丑 寅 卯

본성 : 월지가 食神이라 낙천적이다.
활동 : 傷官과 殺이 투출한 兼格이라 불(傷官) 칼(殺)같은 성격이다.
결정 : 일지가 偏財라 큰 재물에 뜻을 두고 있고, 결단력과 판단력이 좋다. 일간이 년지의 午화 陽刃에 根이 두고 있어 중개 역할을 잘하지만 욕심이 많다.
대운 : 월지가 食神인데, 印運으로 흘렀기에 자신이 하고 싶었던 예능의 특기를 살리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의 뜻에 따라 진학을 했다. 丙戌大運 己亥年은 殺과 傷官이라 功을 세우고 변화하는 시기라 어린이 집을 운영하게 되었다.

3) 실례 (직업 : 인테리어업체 대표)

[76년생남자]

庚 辛 壬 丙
寅 卯 辰 辰

78 68 58 48 38 28 18 8.9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子 亥 戌 酉 申 未 午 巳

본성 : 월지가 印이라 착하고 어질다.
활동 : 傷官이 正官을 剋했기에 남 밑에서 일을 못하고, 겁재가 있어 고집도 세다.
결정 : 일지가 偏財이므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을 믿고 산다. 그러나 일간의 뿌리가 없어 배짱이 없는 것이 흠이다.
대운 : 월지가 印인데, 官殺運에서 比劫運으로흘러 대운의 흐름이 최상이다. 특히 학창시절은 천간도 傷官生財-> 財生官이라좋다. 戊戌年은 대운 지지 戌토 印이 월지 辰토와 冲하며 일지와 卯戌合을 하므로 이사를 했고, 회사도 이전 했다.

4) 실례 (직업 : 회사 회계업무 담당)

[75년생 남자]

壬 戊 乙 乙
戌 寅 酉 卯

77 67 57 47 37 27 17 7.0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丑 寅 卯 辰 巳 午 未 申

본성 : 월지와 년지가 傷官見官이라 괴팍하고, 변덕이 심하며 하극상을 한다.
활동 : 천간에 正官 둘과 偏財가 투출해있기 때문에 원칙을 준수하며, 시원시원하며 결단이 있는 성격을 보인다.
결정 : 일지가 殺이면서 시지의 戌토와 寅戌半合을 하므로 자존심이 강하면서, 명분에 맞춰 화합하는 스타일이다.
대운 : 월지가 酉금 傷官인데, 印運에서 官殺運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자신의 성격을 잘 다스리며 살아왔고, 명분에 따라 움직이려고 노력해 왔다. 辛巳大運 戊戌年은 지지 戌토가 년지와 일지 卯寅과 合하므로 동료들과 이동을 하는 시기다.

5) 실례 (직업 : 상점 점원)

[91년생 남자]

戊 辛 癸 辛
子 丑 巳 未

78 68 59 48 38 28 18 8.0
乙 丙 丁 戊 己 庚 辛 壬
酉 戌 亥 子 丑 寅 卯 辰

본성 : 월지가 正官이라 공명정대하다.
활동 : 용신이 正印이라 착하지만 戊癸合되어 게을러서 갖추질 못하고, 학문까지 등한시 한다.
결정 : 일지가 偏印이라 타인을 믿지 못하고, 正官 巳火와 食神 子水와 각각 合이라 명분을 찾고 느린 것이 흠이다.
대운 : 월지 正官에 財運에서 食傷運으로 흐르므로 재물을 쫓다가 중년 이후 직업적으로 안정이 되지 않고 산전수전(山戰水戰)을 겪게 된다. 辛卯大運 戊戌年은 세운 印이대운 財와 卯戌合하고 천간도 用神인 印이라, 문서 쥐고 돈을 벌려고 한다.

6) 실례 (직업 : 교습소 운영, 미혼)

[80년생 여자]

己 壬 甲 庚
酉 子 申 申

71 61 51 41 31 21 11 1.2
丙 丁 戊 己 庚 辛 壬 癸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본성 : 월지가 偏印이라, 영리하지만 절대 손해 보지 않으려고 하는 잔머리꾼이다.
활동 : 용신이 偏印과 正官이라 손해를 볼 짓을 하지 않으며, 명분을 따진다. 배운 것을 전달하는 능력 또한 좋다.
결정 : 일지가 陽刃이라 고집 세고 욕심이 많다. 申子半合 水局 比劫이라 이기주의다. 일지가 金多水濁이라 남자와 인연이 없다.
대운 : 월지가 偏印인데, 財運에서 食傷運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재물을 추구하고, 자기가 벌어먹고 살아야 한다. 庚辰大運 戊戌年은 천간에 正官이 있는 중에 殺이 투출했으므로 교습소를 내 놓으려고 하는데, 언제쯤 나갈지를 알고 싶어 했다.

7) 실례 (직업 : 고교 축구선수)

[02년생 남자]

甲 乙 己 壬
申 未 酉 午

74 64 54 44 34 24 14 4.9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巳 辰 卯 寅 丑 子 亥 戌

본성 : 월지가 殺이라 자존심이 강하다.
활동 : 천간에 正印이 있어 착하고, 偏財가 있어 판단력이 좋으며 劫財가 있어 고집이 있고 相神이라 인덕도 있다.
결정 : 일지가 未토 偏財이면서 일간의 根이라 자신의 판단을 믿는다. 그리고 년지 午火 食神과 合이라 마음 편히 결정한다.
대운 : 월지가 殺인데, 초년 대운지지가 戌토 財라 공부와는 거리가 멀다. 다음 印運에서 比劫運이라부모덕이 있고 인덕으로 살아가는 형이다. 戊戌年은 殺이 用神인데 천간과 지지 모두 財라 학교를 그만두고 다른 길(헤어 디자이너)로 가고자 한다.

8) 실례 (직업 : 사립대학 교수)

[71년생 남자]

丙 丁 庚 辛
午 丑 寅 亥

75 65 55 45 35 25 15 5.9
壬 癸 甲 乙 丙 丁 戊 己
午 未 申 酉 戌 亥 子 丑

본성 : 월지가 正印이라 착하고 어질다.
활동 : 천간에 正·偏財가 같이 있어 통이 크면서도 치밀하다. 劫財가 있어 고집이 세고, 욕심도 많다.
결정 : 일지가 丑土 食神이라 느긋하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있다. 그리고 자신이 편하면 그만이라는 심리도 있다.
대운 : 월지가 印인데, 官殺運에서 財運으로 흐르고 있어 학문으로 功을 세우겠다는 마음에서 재물을 벌어보려는 마음으로 변하게 된다. 乙酉大運 戊戌年은 印이 用神인데, 대운이 財고 세운이 傷官이라 새로운 방향으로 사업을 하려고 한다.

9) 실례 (직업 : 국립대학 교수)

[75년생 여자]

壬 戊 己 乙
戌 寅 卯 卯

72 62 52 42 32 22 12 2.0
丁 丙 乙 甲 癸 壬 辛 庚
亥 戌 酉 申 未 午 巳 辰

본성 : 월지가 正官이라 공명정대하다.
활동 : 용신이 正官이면서 劫財도 있으니 고집도 있다. 偏財도 있어 판단력과 화통함도 갖추고 있다.
결정 : 일지가 殺이라 자존심이 강하지만 比肩과 合이라 타협도 한다. 正官이많고, 食傷이 없어 융통성이 없다.
대운 : 월지가 正官인데, 印運에서 食傷運으로 흘러 부모덕이 있고, 학문에 충실하다 자신의 능력과 뜻대로 살려고 한다. 戊戌年은 正官이 用神인데 천간과 지지 모두 比肩이면서 合이라, 직장에서 화합을 하고 가정도 화합을 하려고 한다.

10) 실례 (직업 : 공기업 중역)

[64년생 남자]

乙 庚 壬 甲
酉 子 申 辰

76 66 56 46 36 26 16 6.4
庚 己 戊 丁 丙 乙 甲 癸
辰 卯 寅 丑 子 亥 戌 酉

본성 : 월지가 比肩이라 누구나 동등하게 대한다.
활동 : 용신이 食神이라 호인(好人)이다.正財와 偏財가 있어 현실적이면서 화통하고, 꼼꼼한 면을 함께 갖추고 있다.
결정 : 일지가 傷官으로 변덕이 심한 점이 흠이다. 일간의 根이 比肩과 陽刃에 있어 누구에게도 지지 않으려고 한다.
대운 : 월지가 比肩인데, 食傷에서 財運으로 흘러가므로 재능을 발휘하다가 뒤에 取富하는 방향으로 살아간다. 丁丑大運 戊戌年은 印運이라 문서를 잡으려 하는데, 대운의 正官 丁火가 용신인 食神 丁火와 丁壬合 하므로 퇴직하려 시도했다.

제 15차시. 명리상담 실례 2(신수身數)

1) 실례 (해녀, 음식점, 박사과정)

명주(命主)는 삼대를 이어온 제주도 태생의 해녀로 현재 제주도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국립대학교 대학원에서 동양학과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

[64년생 여자]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72 62 52 42 32 22 12 2.0
丁 戊 己 庚 辛 壬 癸 甲
卯 辰 巳 午 未 申 酉 戌

亥월 丙화라 칠살격(七殺格)이다. 월지(月支)가 흉신(凶神)인 칠살이라 운(運)의 흐름은 칠살의 기운을 설(洩=샐 설)하여 일간(日干)을 돕는 동방 木運이 가장 좋고, 차선으로 남방 火運도 좋다. 흉신(凶神)은 원래 극(剋)하는 기운이 가장 좋으나 토방이 없기 때문에 木火運로으 흐르는 것이 좋다.

그러나 서방 金運으로 흐르는 시기가 가장 흉하다. 원인은 흉신(凶神)인 칠살을 생(生)하면서 식상(食傷)이 살(殺)을 극(剋)하는 것을 통관(通關)하여 살(殺)을 살리고, 살인상생(殺印相生)하여 살(殺)의 기운을 인(印)으로 통관(通關)하려는 것도 역시 재(財)가 인(印)을 극(剋)하므로 불가능하게 한다. 그래서 칠살격(七殺格)이 재운(財運)으로 흐르면 죽음에서 늪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한 것이다.

천간(天干)은 월지(月支)인 亥水 중에서 중기(中氣)인 甲목 즉 편인 甲목이 년간(年干)과 시간(時干)에 함께 투간(透干)해 있다. 그러므로 칠살격이 편인격으로 변격(變格)이 된 사주가 된다. 월간(月干)의 乙목도 역시 용신(用神)이 되는데, 편인 甲목이 양투(兩透)한 사주에 정인 乙목까지 함께 투간(透干)해 있으니 좋을 것이 없다. 이렇게 천간에 인(印)만 투간(透干)해 있으면 식상(食傷)과 연(緣)이 없다. 인(印)이 식상(食傷)을 극(剋)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식이나 아랫사람과 연이 없고, 베품이 약할 수 있다. 식상(食傷)은 베푸는 것인데, 인(印)이 왕(旺)하여 들어설 자리가 없기 때문이다.

본성 : 월지가 殺이라 자존심이 강하다.
활동 : 용신이 偏印과 正印이라 손해를 보지 않으려 머리를 쓰지만 착하고 어진 면도 있다. 그러나 자비 부족이 될 수 있다.
결정 : 일지도 偏印이라 심사숙고형이면서 일지 印이 殺및 刃과도 合(寅亥, 寅午合)이라 극단적이며 과한 욕심과 고집이 강하게 나타남.
대운 : 월지가 殺인데, 財運에서 比劫運으로 흐르고 있으므로 힘들게 재물을 추구하다가, 지인들과 함께 하고자 한다. 己巳大運 己亥年은 지지는 殺이고 천간이 傷官이라, 난제로 인하여 다른 길을 모색하게 되는 시기이다. 형제와도 충돌한다.

2) 실례 (身數) - 丙寅月

[64년생 여자]	1월 19년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丙 己 寅 亥

丙寅月은 地支가 印이고, 天干이 比肩이라. 풀이하면 “문서를 쥐려고 하는데, 혼자가 아니라 지인이나 형제와 함께”라는 뜻이 된다. 그리고 절운의 지지 寅목은 일지 亥수와 寅亥合을 하므로 업무와 관련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하고, 시지 陽刃과 寅午半合을 하므로 동료나 형제와 합하여 욕심(양인)을 낸다는 뜻이 된다.
세운과 비교하면 역시 殺과 傷官이라 어려움이 있는 문서를 해결하려, 말썽이 날 수 있음을 뜻한다.

2) 실례 (身數) - 丁卯月

[64년생 여자]	2월 19년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丁 己 卯 亥

丁卯月은 地支가 印이고, 天干이 劫財라 풀이하면 “문서를 쥐려고 하는데, 겁재 즉 재물을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다. 그리고 절운 지지 卯목은 일지 亥수와 亥卯合을 하므로 업무와 관련된 어려운 일을 해결하려고 한다는 뜻이 된다. 합치면 업무와 관련하여 투자할 일이 있다는 뜻이다.
세운과 비교하면 역시 殺과 傷官이라 어려움이 있는 문서를 해결하려 하지만 역시 말썽이 날 수 있음을 뜻한다. (成中有敗)

2) 실례 (身數) - 戊辰月

[64년생 여자]	3월 19년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戊 己 辰 亥

戊辰月은 地支와 天干이 모두 食神이라 풀이하면 “먹고 사는 일 또는 내 마음이 편한대로” 뜻이 된다. 절운 지지 食神 辰土가 월지와 세운의 지지 亥水 殺을 剋하기 때문에 功이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어려움을 이기고 비로소 내 마음이 편하고 먹고 사는 일도 조금 편해짐을 뜻한다. 그러나 아직도 썩 개운치 못한 것은 지지와 천간이 모두 食神이라 일은 풀리지만 세운 천간이 상관 己土라 말썽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2) 실례 (身數) - 己巳月

[64년생 여자]	4월 19년
甲 丙 乙 甲	己 己
午 寅 亥 辰	巳 亥

己巳月은 地支가 比肩이고, 天干이 傷官이라 풀이하면 “지인이나 형제들로 인하여 말썽이 난다.”는 뜻이 된다. 그리고 절운의 월지 巳火가 월지의 亥水와 巳亥沖을 하기 때문에 이전이나 이동도 생각하는 때가 된다.

세운과 비교하면 역시 傷官이 겹치는 시기라 좋을 것이 없고 심각하게 말썽이 나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인이나 형제들과 업무와 관련해서 다퉈서는 안 된다는 뜻이 된다.

2) 실례 (身數) - 庚午月

[64년생 여자]	5월 19년
甲 丙 乙 甲	庚 己
午 寅 亥 辰	午 亥

庚午月은 地支가 劫財陽刃이고, 天干이 偏財라 풀이하면 “손상이 날 일이 생기는데, 그것이 큰 재물”이라는 뜻이 된다. 陽刃 午火는 일지 寅木과 寅午半合이기 때문에 자신이 살고 있는 곳과 연관이 있음을 뜻한다.

세운과 비교하면 월지와 세운 지지 亥水 殺에 절운에서 陽刃을 만났기 때문에 陽刃으로 殺과 대적(殺格逢刃)을 하기 때문에 이 시기는 갑자기 큰 재물을 얻는 일도 생긴다.

2) 실례 (身數) - 辛未月

[64년생 여자]	6월 19년
甲 丙 乙 甲	辛 己
午 寅 亥 辰	未 亥

辛未月은 地支가 傷官이고, 天干은 正財라 풀이하면 “바꾼다. 또는 말썽이 났다. 돈 때문에” 라는 뜻이 된다. 월지 亥水와 亥未半合을 하여 用神인 印으로 바뀌기 때문에 새로운 것으로 갖게 되는 것이 있음을 뜻한다. 시지 午火와 午未合을 하기 때문에 자식과 관련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세운과 비교하면 역시 殺과 傷官이 合하여 印으로 바뀌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바뀌어서 유리하게 돌아감을 뜻한다. 그러나 財로 인한 말썽은 있다.

2) 실례 (身數) - 壬申月

[64년생 여자]	7월 19년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壬 己 申 亥

壬申月은 地支가 偏財이고, 天干이 殺이라 풀이하면 “돈으로 인한 난제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년지 辰土와 申辰半合이고, 일지 寅木과는 寅申相冲 이라 먼 곳으로 이사를 해서 먹고 살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기이다.

절운과 세운을 비교하면 월지와 세운의 지지 亥水 殺에 申金 偏財가 왔기 때문에 雪上加霜이 된다. 그러나 천간에 殺을 뜨면 세운 천간 己土 傷官에 剋을 받으므로 오히려 어려움이 해소되는 일도 있다.

2) 실례 (身數) - 癸酉月

[64년생 여자]	8월 19년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癸 己 酉 亥

癸酉月은 地支가 正財이고, 天干이 正官이라 풀이하면 “돈과 명예를 구하려 한다.” 는 뜻이 된다. 그러나 세운 지지 酉金 正財가 월지 해수 殺을 生하기 때문에 반대의 현상이 일어난다.

여기에 세운과 비교하면 세운 천간 己土 傷官에 절운 천간 癸水 正官이라 傷官見官의 현상이 벌어져서 하는 일을 그만 두려는 시기도 된다. 절운 지지 酉金 正財는 년지 食神 辰土와 辰酉合을 하므로 어려워져서 먼 곳으로 떠나려 하는 시기가 된다.

2) 실례 (身數) - 甲戌月

[64년생 여자]	9월 19년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甲 己 戌 亥

甲戌月은 地支가 食神이고, 天干은 偏印이라 풀이하면 戌土 食神 즉 “마음 편하게, 일지와 시지가 모여서 寅午戌 三合을 하므로 집과 자식 관련하여 문서를 쥐려는 시기” 가 된다.

절운 甲戌과 세운 己亥를 비교하면 본명의 월지와 세운의 지지 亥水 殺에 戌土 食神이므로 殺이 기운을 잃게 되므로 안정도 취하고 뜻을 이룰 수 있는 시기가 된다. 그래도 년지와 辰戌冲 이라 떠날 마음에 변함이 없다.

2) 실례 (身數) - 乙亥月

[64년생 여자]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10월 19년 乙 己 亥 亥

乙亥月은 地支가 殺이고, 天干이 正印이라 풀이하면 “문서로 인한 가장 큰 난제에 빠지게 된다”는 뜻이 된다. 亥水는 일지 寅木과 寅亥合을 하므로 집과 관련된다. 이때 천간은 用神인 印이므로 밖으로 평온하고 말썽도 사라지는 시기가 된다.

세운과 비교하면 월지와 세운 지지 및 절운이 모두 亥水 즉 殺이라 가장 어려운 고비를 맞이한다. 그러나 외부에서 봤을 때는 말썽이나 구설이 사라지는 시기도 된다.

2) 실례 (身數) - 丙子月

[64년생 여자]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11월 19년 丙 己 子 亥

丙子月은 地支가 正官이고, 天干이 比肩이라 풀이하면 “직업이나 업무 관련 동업”을 시도하는 시기이다. 절운 지지 正官 子水는 년지 食神 辰土와 子辰半合을 하고, 시지 午火 陽刃과 子午沖을 하기에 먼 곳으로 직업적 이동을 꾀하며, 자식 관련 다툼도 있는 시기이다.

세운과 비교하면 월지와 세운 지지 亥水 즉 殺에 정관 子水라 직업적으로 어려워진다. 절운 천간 比肩 丙火도 傷官 己土를 生하기에 지인이나 형제들로 인한 말썽도 커진다.

2) 실례 (身數) - 丁丑月

[64년생 여자] 甲 丙 乙 甲 午 寅 亥 辰	12월 19년 丁 己 丑 亥

丁丑月은 地支가 傷官이고, 天干이 劫財라 풀이하면 “하던 일도 그만두고, 재물도 나가며 말썽도 더 커지는 시기”가 된다. 傷官은 말썽이나 새로운 것 또는 변화이고, 劫財는 재물의 손상이기 때문이다.

세운과 비교하면 절운 지지 傷官 丑土는 凶神이기는 하지만 세운 亥水 즉 殺을 제거하는 기운이라 갑자기 난제를 해결하는 방안도 나오게 된다. 그러나 재물의 손상과 말썽과 갈등은 끊임이 없다.